건축사 건축 525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01
1966년 창간

신년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칼 럼 건축, 변화를 어울어야 산다
에세이 풀 때까지, 될 때까지
지적(地籍) 설계 오류 "제로(Zero)"를 위하여…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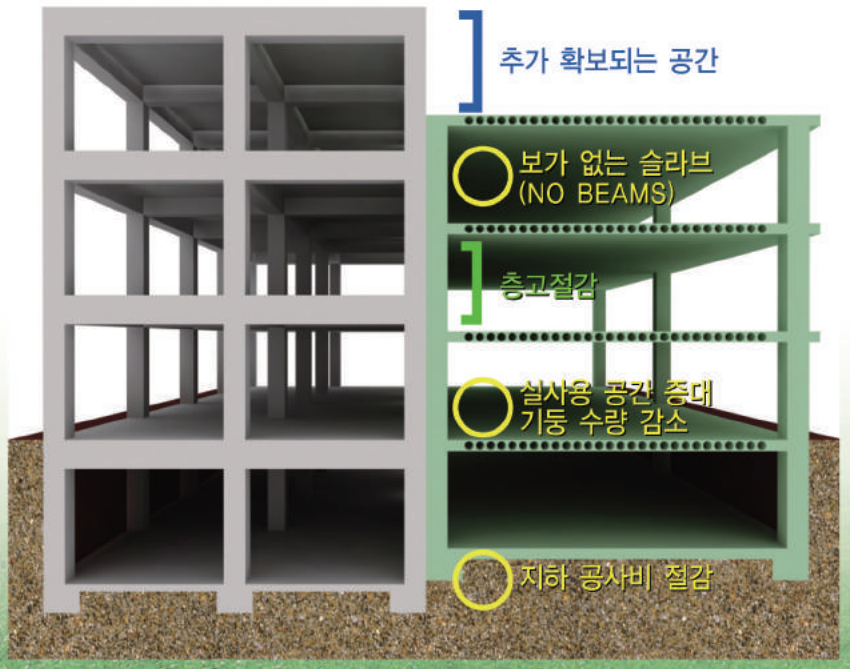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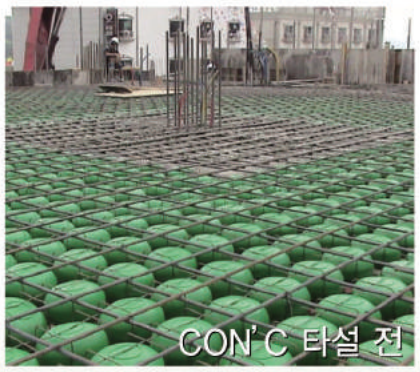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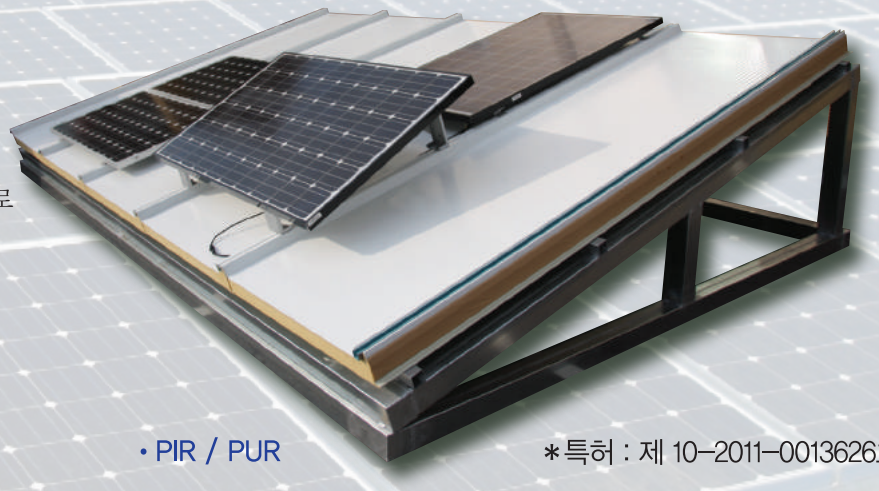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특허 : 제 10-2011-0013626호

에스와이패널(주)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MFC-J6710DW
01/Jun/201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매트

윌매트

Wilmat
신개념 출입구 매트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시스템. 윌매트는 국내 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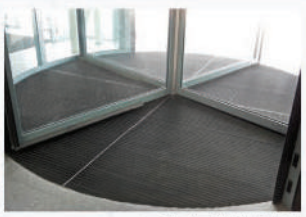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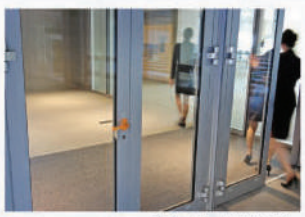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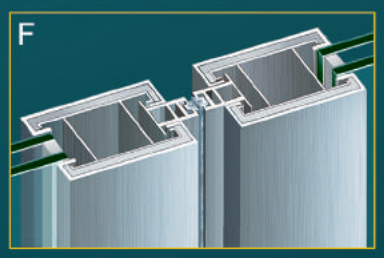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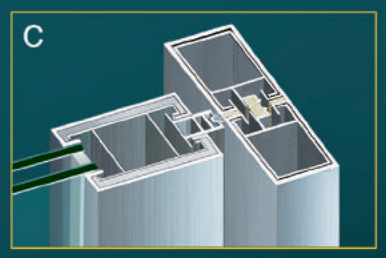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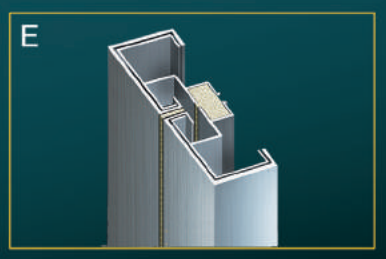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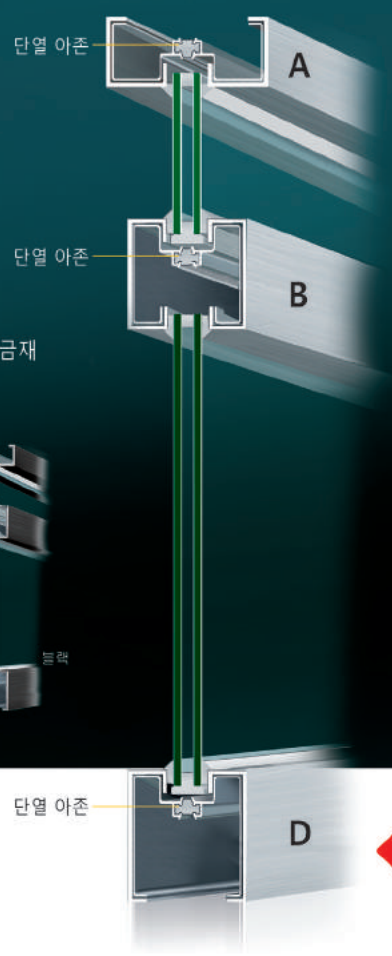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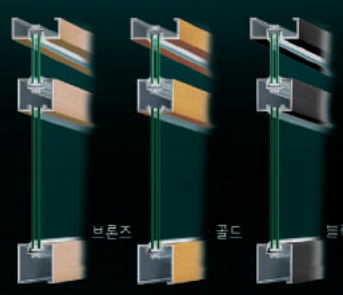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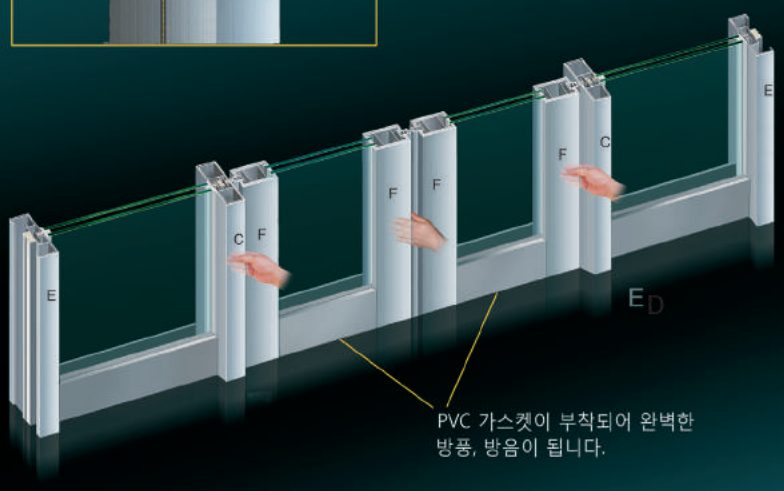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옵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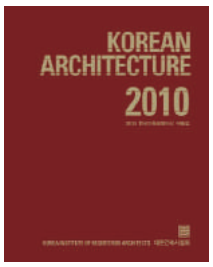
• 전국 영업망 구축 •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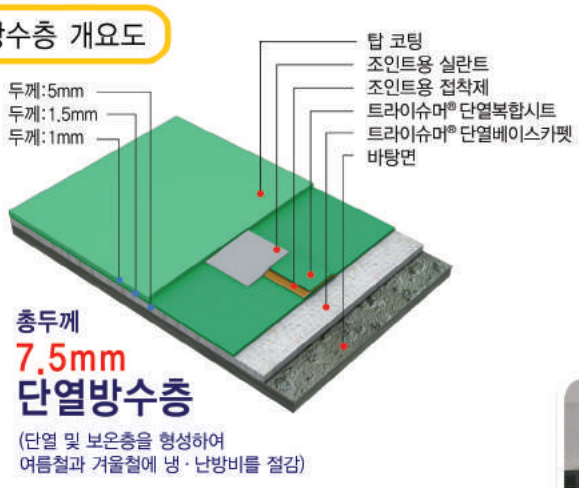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난방비 15~20%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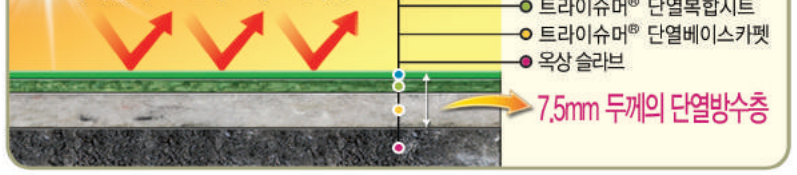
방수층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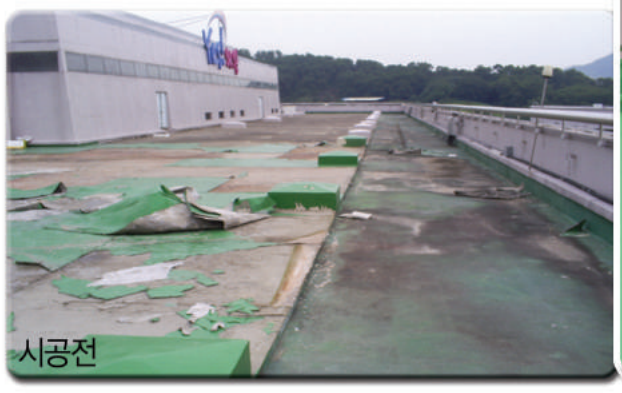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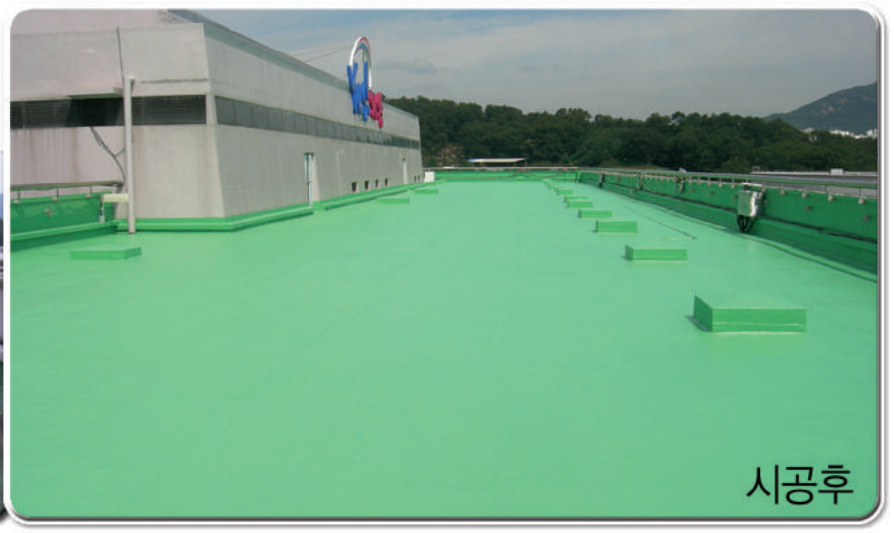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공법



건축재료의 열전도율


시공전


시공후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3 January 1

COVER STORY

표지사진 :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이종찬, 성진용, 박기성(주.원양 건축사사무소)
이용익(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건축사 작품 中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31_730_3800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4 신년사 NEW YEAR'S ADDRESS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make success
_강성익

017 컬 럼 COLUMN
건축, 변화를 이끌어야 산다
Architecture industry have to lead change to survive
_조충기

021 에세이 ESSAY
풀 때까지, 될 때까지
Keep trying to resolve and clear
_박찬정

022 에세이 ESSAY
지적(地籍) 설계 오류 "제로(Zero)"를 위하여…
For "zero" error in land registration design
_조한권

024 시가 있는 여울목 POEM
_강희동

025 만 평 CARTOON
_곽희수

026 회원작품 WORKS
스탠포드 호텔 서울
STANFORD HOTEL SEOUL
_이관직_KIRA |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Contents 525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1월호

KT 노원 프라자
KT NOWON PLAZA
_오섬훈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드와이트스쿨 서울
DWIGHT SCHOOL SEOUL
_조도연, 이경환_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_이용익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KANGWON LAND CONVENTION HOTEL
_이종찬, 성진용, 박기성_KIRA | ㈜원양 건축사사무소
_이용익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062 설계경기 COMPETITION
달성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노인회관
DALSEONG COMMUNITY HEALTH SUPPORT CENTER & SENIOR CENTER

066 꽁트 CONTE
겨울 엽서
A postcard of winter
_김현탁

068 기고 FEATURE
친환경건축물 인증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The procedure and incentive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_왕정준

070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Exceptional supports for whom subjected under migration policy and paying for basic household equipments
_성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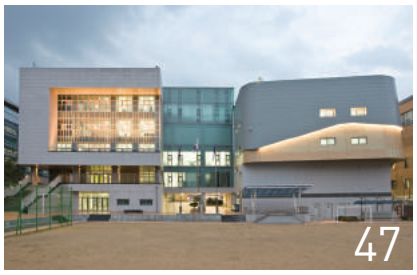
072 연재 SERIAL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④
개항과 조선의 변화
Encountering the Westen and Joseon's New Venture
_안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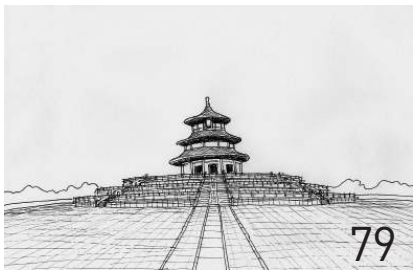
078 건축기행 ARCHITECTURE TRAVEL
중국 전통건축 답사기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ravelogue
_김석환

사람과 예술, 건축과 자연이 빚어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Naoshima-An art site organized by human and art, architecture and nature
_이진경

088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이승석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42


47


79

58

84

건축, 변화를 이끌어야 산다

Architecture industry have to lead change to survive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전야 인가,
아니면 길을 잃고 자포자기 하는 마지막 밤인가?"

건축사, 건축사협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

201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건축계는 건축을 떠들었다.
건축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갈망하는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한 사람이 돈의 힘을 안다. 좋은 건축이 있었다면 우리는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된 이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불확실의 증대'와 '불안의 확산'이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 확신하고 모두가 불안하다. 이는 문화라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여야 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건축사협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땅에 건축이 어떻게 성장했나? 이 땅의 건축사들과 협회의 공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의 저변에서 건축사법과 건축법 등, 제도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요즘은 건축사자격증이 먹고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1970 ~ 19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사면허만 있으면 최소한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의 나홀로사무소, 소규모사무소, 중규모사무소, 대규모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소속된 건축사들은 각기 다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사회,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안은 나홀로사무소부터 중, 대규모사무소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나홀로사무소, 소규모 사무소, 중규모사무소, 대규모사무소가 공통의 경험, 공통의 취향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로 뭉칠 수 있을까? 더구나 나홀로, 소, 중, 대의 규모를 꿰뚫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이별, 지역별, 업무성격별로 말이다.

건축은 소통을 이야기한다. 좋은 사회, 아름다운 도시는 모든 건축사들이 자부하는 실체이다. 정말로 건축사들이 국가의 건축과 도시를 대변하려면 현재의 건축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술적 계량 중심의 '친환경건축정책'이나 '뉴타운건설' 및 '4대강사업'에 대해서 엄정한 비판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열망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망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지금의 협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건축지식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 대답이 제대로 나올 때, 비로소 지금 이 시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니 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건축사들이나 후학들의 불안을 해소할 '시스템의 전환' 즉 법과 제도를 통한 불안의 확산을 막고 예측 가능한 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금 협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축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협회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보여야 한다.
꿈을 주지 못하는 협회장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협회장의 크기가 협회의 크기이다.

좋은 정책이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협회장과 같은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정치력'이다. '경영' 혹은 '행정'이 아닌 행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능력 말이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CEO식의 협회장이 나오면 꼭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 자기 뜻대로 안되면 권위만 부릴 수 있다. 협회장은 항상 선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 때로는 선한 결과를 위해서는 정말로 '악마적 힘'과도 관계를 맺을 자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협회장은 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좋은 사람도 아닌, 합리적인 사람도 아닌 합목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지도자만이 협회장이 될 수 있다.

협회장이 가져야 할 자질은 크게 네 가지이다.
'결단력' '통찰력' '추진력' '설득력'이다. 이 중 한 가지는 확실히 가져야 한다. 통찰력이 있어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디에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협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단력이 있어야 협회의 전략 목표와 추진과제를 놓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또 설득력이 있어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건축사를 하나의 힘으로 묶을 수 있다. 물론 추진력은 짧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무엇보다도 협회의 지도자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건축계를 비롯한 대중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존경은 국가를 위해, 건축을 위해, 협회를 위해, 회원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협회장은 누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희생에 기반을 둔 업적으로 회원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협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크기가 협회의 크기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밤을 맞이한 새색시처럼 어느 날 협회의 집행부나 위원장으로 발탁되거나 되어서야, 협회를 배우기 시작하여 회장의 비위나 맞추는 인턴집행부가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다. 협회의 고문, 협회장, 이사, 위원장, 16개 시 · 도건축사회의 회장과 이사 및 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간부 등이 어떤 수준의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장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협회장의 크기는 협회의 크기이다.
로마제국시대에는 왕과 귀족이 원형극장에서 싸우는 노예를 구경했다면, 이제는 왕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대중이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회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들이 가득하다. 협회는 구시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회원은 자기와 다른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협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축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협회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보여야 한다. 꿈을 주지 못하는 협회장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협회장이 국민을 상대로 건축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건축을 세일해야 한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회원을 위해 만들어졌지 협회를 위해 회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협회에 대한 소속감 약화, 집행부의 협회에 대한 의존도 약화는 협회의 역할에 의문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자. 협회는 필요 없는 것인가? 필요 없다면 무엇으로 대체될 것인가? 필요하다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등이다.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다. 협회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비슷한 이들이 모여 기반을 확대해서 정부, 의회와 같은 곳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협회나 정관이나 규정으로 대표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 협회장의 생각과 행동이 협회의 정체성이나 비전에 부합하는 지, 건축계와 회원의 이해관계를 떠안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한데도 오로지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만 관심은 곤란하다. 협회장에만 당선되면 이사, 위원장, 외부추천, 포상추천 등 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협회에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회원도 없고 오로지 동업자적인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회원이 협회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회원을 위해 협회가 만들어졌지 협회를 위해 회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협회는 평범한 회원을 위한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성공하려면 회원의 '생활공동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야 한다. 회원의 소속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 공동관심사에 공동의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무료법률상담, 건축학교, 동아리 등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 교회에 자기소득의 10%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뭔가를 자신에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협회에 가면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고, 건축사업의 문제점도 자문 받을 수 있고, 새로 나온 계약서를 구할 수도 있으며, 건축에 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장례식 등에 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협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재미를 주나, 소속감을 주나, 정보를 주나? 아니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를 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원과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변화 즉, 희망의 불꽃을 발견하고 협회다운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를 희망한다. 건축주가 부동산중개사를 찾고 건설업자를 찾는 세상은 이미 건축은 죽은 사회이거나 무존재의 대상이다. 현재와 같이 건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서 대통령과 국민 등 누구나 이해가 되는 짧고 명확한 설명으로 건축으로 정의 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장이 국민을 상대로 건축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건축을 세일해야 한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지적(地籍) 설계 오류 “제로(Zero)”를 위하여…

For “zero” error in land registration design

조한권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장

‘건축(建築)’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행위이다.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 첫째로 제출해야 하는 도서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은 토지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어디에 위치한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정보는 건축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건축사는 우선적으로 ‘지적(地籍)’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경계를 나타내는 ‘건축선’도 토지의 경계선인 ‘지적선’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주로 제도판과 연필, 트레이싱지 등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왔던 건축설계는 점차 전산파일(CAD)을 활용한 전산작업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수작업 과정에서 생겼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확성에 기여하게 되었고 불필요하게 반복되었던 작업들도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BIM으로까지 연결되어 단순한 설계제도의 정확성 수준에서 건축 전반의 공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축설계작업이 전산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적도가 여전히 종이 기반으로 발급되고 있어, 이를 다시 CAD로 변환하는 작업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地籍制度)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918) 및 임야조사사업(1916~1924)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대장과 도면을 종이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적 관련 작업 역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1992) 및 도면전산화(2005)가 이루어졌지만, 건축에 기본이 되는 지적도면은 디지털정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아날로그 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더 이상 종이도면과 장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전국토의 토지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 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에서는 ‘건축사에게 종이기반으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산파일로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상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화 작업으로 금년 11월부터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는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 사무관과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장(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지적도를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방법은 건축사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속하여 건축사 자격 및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설계도면(DXF) 형태로 받게 되며, 건축인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토지와 건축물이 융합된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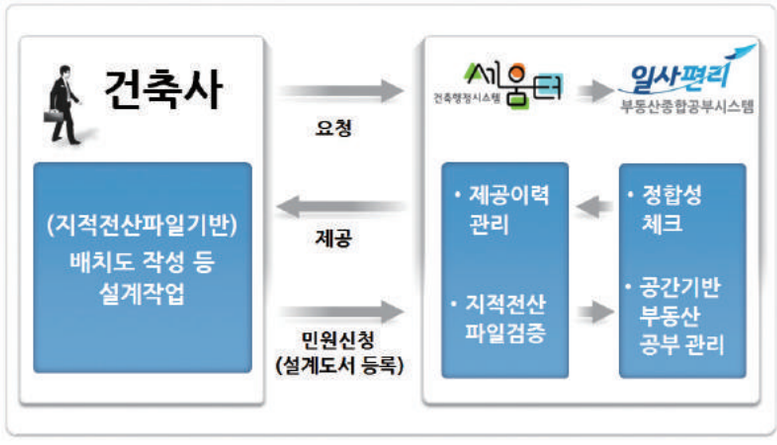
건축사에게 지적도를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방법은 건축사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속하여 건축사 자격 및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설계도면(DXF) 형태로 받게 되며, 건축인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토지와 건축물이 융합된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비스 개요도〉 참조

그동안 세움터는 공간(위치)기반이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전산파일 제공은 서식중심의 인허가 신청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종이 지적도는 연간 약 20만 건이 발급되고 있는 바, 이러한 종이 지적도가 전산파일로 직접 제공되면 건축설계가 정밀해지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와 지적도를 이용한 설계 작업과정도 대폭 간소화 될 것이다.

이는 현 지적제도의 탄생 이래 100여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일로서 앞으로 선진화된 국가 공간기반의 건축물 정보체계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건축과 지적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협업체계가 부족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에 연구위원으로 파견근무 중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소속 방종식, 이현숙 직원이 이번 과제를 비롯하여 건축과 지적의 상호 연관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

창조적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재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기초정보 제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가 많은 정보의 생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활용 기술들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개요도〉



스탠포드 호텔 서울
STANFORD HOTEL SEOUL

건축주 | (주)스탠포드호텔코리아

설계자 | 이관직_KIRA |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권재영, 한웅식, 한철희, 이삼화, 김미순, 류희완, 김정래, 김윤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사림구조컨설턴트
  - 기계설비 : (주)삼우엠이씨
  - 전기설비 : (주)신우기술단

감리자 | 한미글로벌 주식회사

시공자 | 풍림산업(주)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7번지

주요용도 | 숙박시설 (호텔)

대지면적(Site Area) | 3,407.1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07.7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6,278.3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93%

용적률(Floor Area Ratio) | 398.30%

규모(Building Scope) | B5 – 1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 라멘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화강석, THK24 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내부마감_대리석,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무늬목쉬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7. 10 ~ 2008. 10

공사기간 | 2008. 10 ~ 2011. 10

Client | Stanford Hotel Korea

Architect | Lee, Kwan-jick

Project team | Kwon, Jae-young / Han, Woong-sic / Han, Cheol-hee / Lee, Sam-hwa
Kim, Mi-sun / Ryu, Hee-wan / Kim, Jung-rae / Kim, Yun-su

Location | 1587,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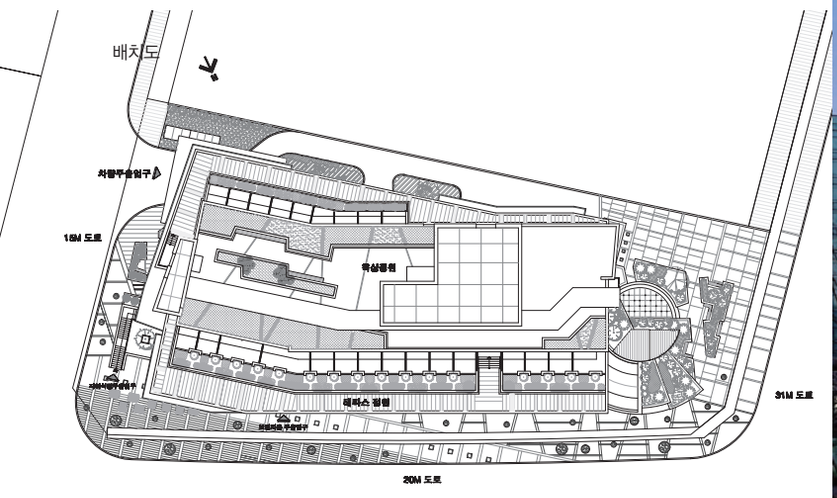
Structure | R.C

HVAC Engineer | Samwoo MEC

Electrical Engineer | Sinwoo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Marble, Emulsion paint, Manufacturing Method of Pattern Wood Sheet
Exterior_Granite Stone, THK24 Pair Glass, A.L Sheet

배치도



북측전경

동측전경

미국 맨해튼 한인거리에 스탠포드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건축주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가 서울 서북권의 관문 상암 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비즈니스호텔을 짓기로 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상세한 도시계획과 미디어보드의 엄격한 기준, 그리고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의 까다로운 규준과 조건이 많은 대지이다. 북쪽으로 20m 전면도로(Digital Media Street)가 있고 동쪽으로는 15m 도로와 근린공원(IT Art Park)이 있고 서쪽으로 31m도로에 접하고 있어, 삼면이 가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다.

호텔은 고층부의 객실 타워와 저층부의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저층부와 고층부의 적절한 비례와 분절을 통해서 조형을 가볍고 경쾌하게 조절했고, 저층부의 입면은 화강석과 유리로 구성했다. 호텔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에게 접근성과 시각적인 인지 측면에서 최대한 열린 평면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문화적인 이용이 되도록 전시시설을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했다. 미디어스트리트에 면한 1층의 주된 용도인 레스토랑은 도로에서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F&B(식음료)와 스포츠센터 등으로 용도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호텔에 시티호텔의 성격이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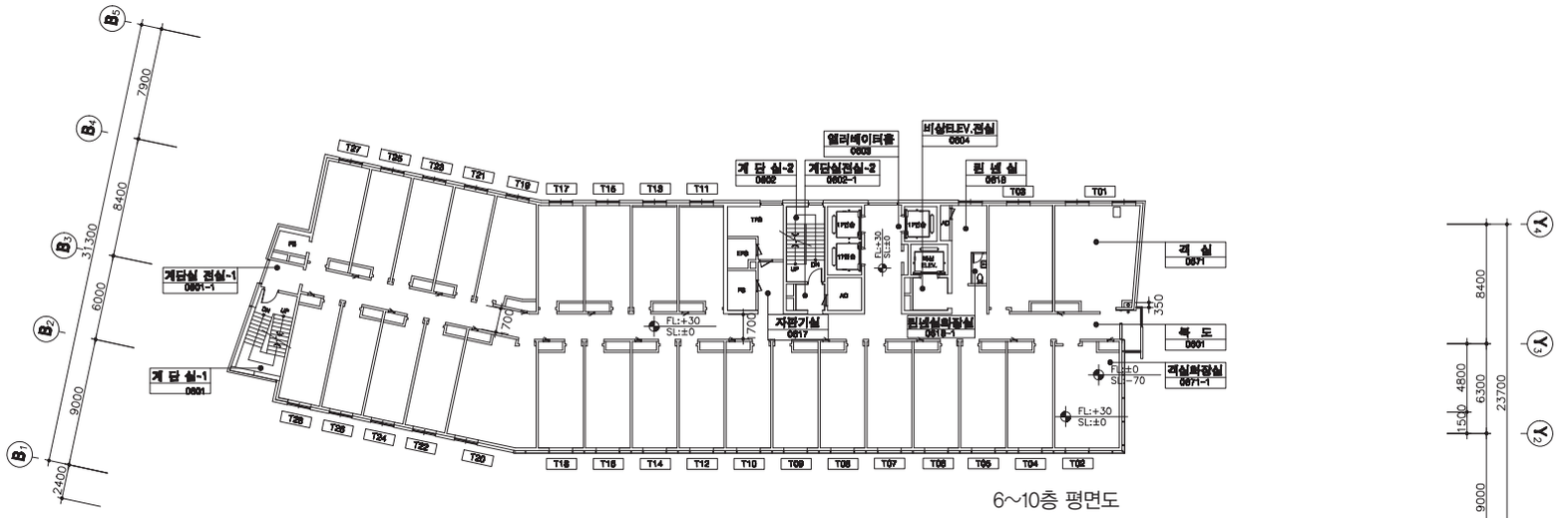
대지의 크기가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저층부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포디움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컨벤션과 수영장이 객실타워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건축계획과 구조적인 많은 해결이 필요하였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층고의 제약으로 객실 타워 부분은 벽식 구조를 채택하여 기준층의 층고를 3m로 낮추어 해결하였고, 지상 4층의 바닥에서, 객실 층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트랜스퍼가더(transfer-girder)를 사용해서 컨벤션과 수영장의 대공간을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1, 2층의 평면에서는 하중을 전이시킨 기둥 크기의 증가와 불규칙한 간격의 문제가 생겨서 공간 구성이 쉽지 않았다.

서측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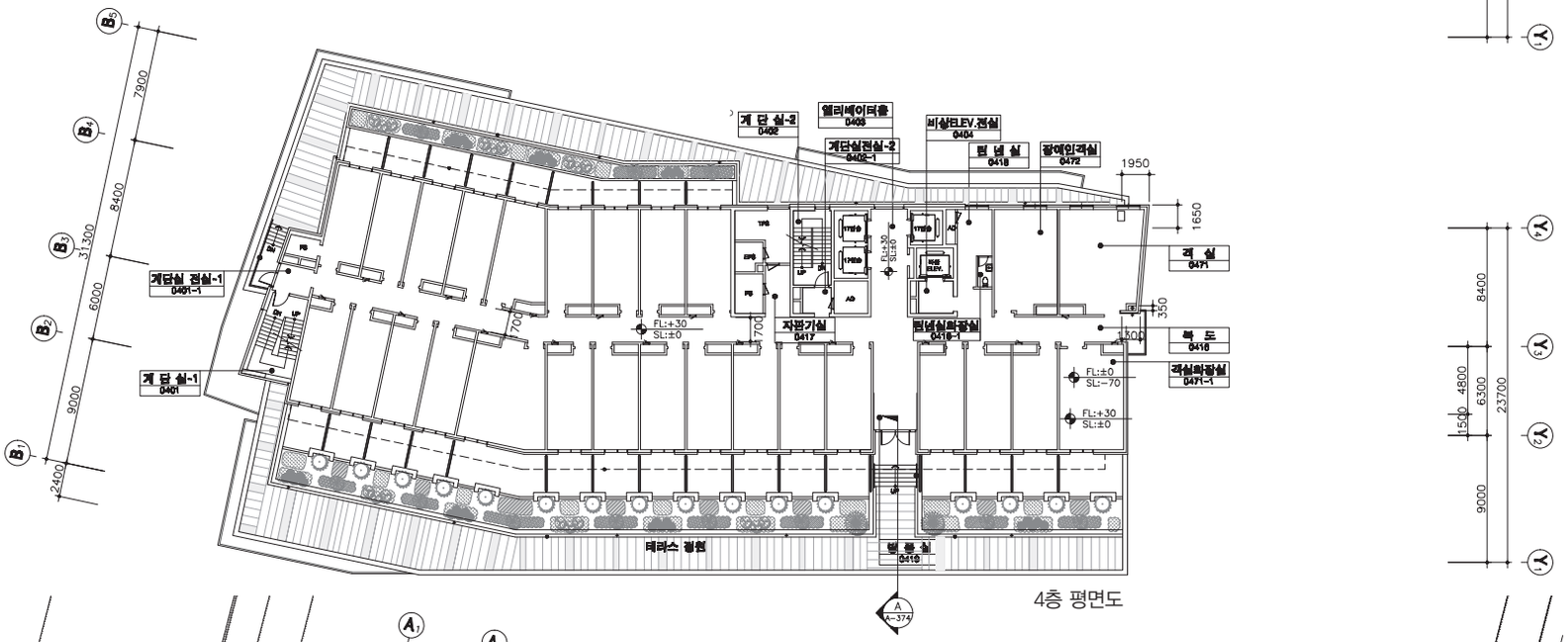
좁고 긴 대지를 최적화하고, 대지의 형상을 이용해서 갈매기모양으로 객실타워 부분의 평면을 꺾어서 형태상의 지루함 없애고 가벼운 변화를 만들었다.
도로 측으로 향한 객실 타워부 입면의 외장재료는 복층유리로 되어 개방감, 투명성이 표현되고 후면부는 실별로 구획된 펀칭윈도우로 디자인하고 화강석 판석을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중복도 타입의 판상형 호텔에서 객실의 조망과 향은 한 면이 좋은 반면 다른 면은 상대적으로 나쁘게 된다. 스탠포드호텔의 경우도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에 면한 북측이 정면성을 가지면서 전면 도로측으로 열려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조망이 확보된다. 타워의 남측은 인접대지와 근접해있어서 조망이 불리하게 되어 계획을 진행하면서 대지조건의 한계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포디움의 상부 층인 4층의 객실은 각 실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전용 테라스가 있는 특별한 객실로 디자인되었다. 비록 포디움의 폭과 객실 타워 폭의 차이로 생긴 자연 테라스지만 적극적인 계획으로 각 객실에 대한 개별 정원을 만들어 스탠포드호텔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최상부의 11층에는 EF(Executive Floor) 라운지가 있고 11, 12층은 EF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호텔로서 일반 객실은 3m와 3.3m 베이의 비교적 작은 객실로 구성되었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였다.
타워부분의 옥상은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도록 쉐도우 캐노피를 구조물로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쉐도우 캐노피는 서측 입면으로 꺾여 내려와 복도 발코니와 연결되면서 조형적인 변화요소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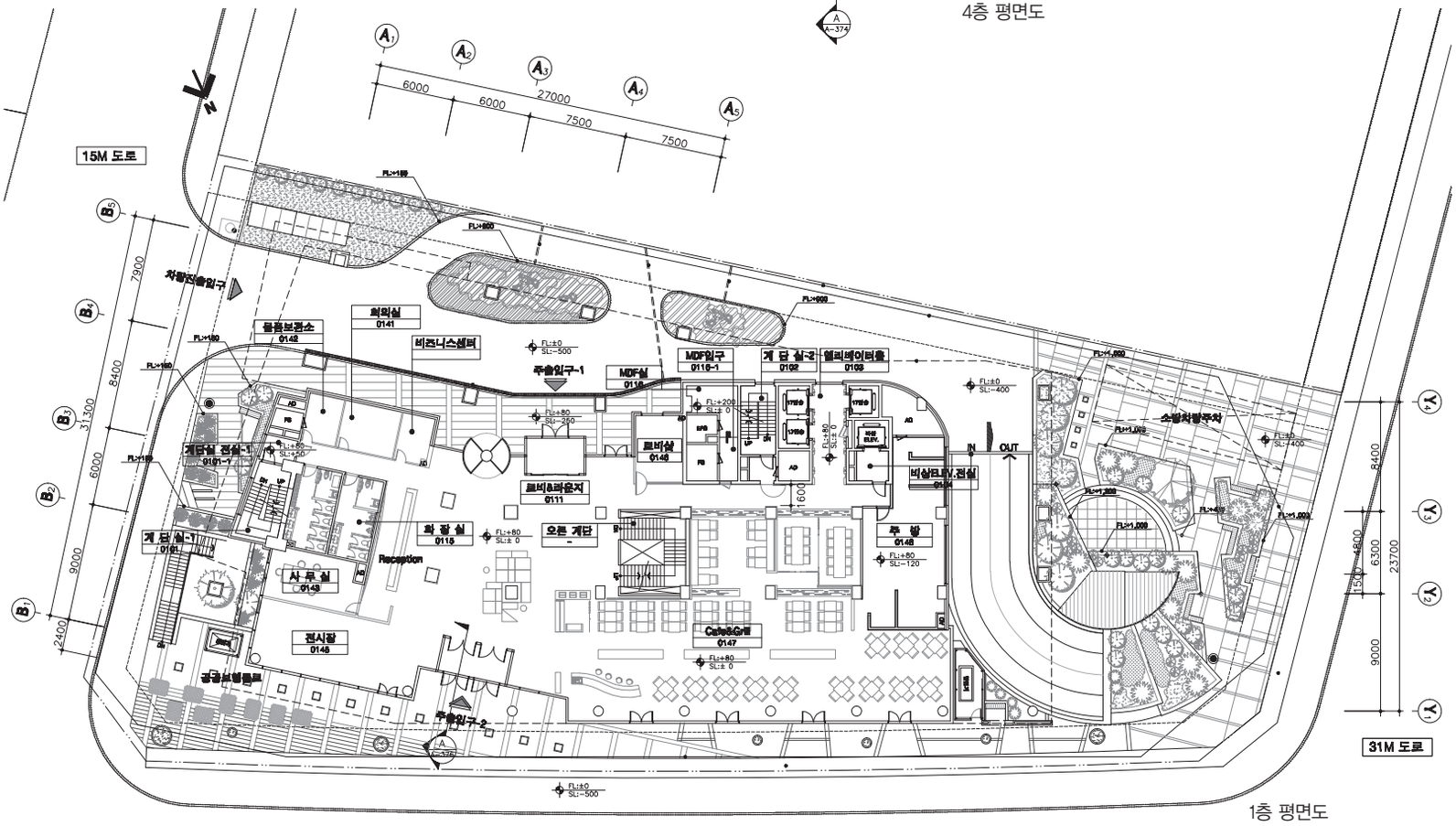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설계와 공사 끝에 호텔이 이제서야 준공되고 손님을 맞는다. 비교적 좁은 대지에 수직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적인 요구가 필요한 기능을 쌓아 올리면서 조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최선을 다한 설계적인 복잡화의 해결이 이용자들에게 편리와 공간적인 즐거움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6~10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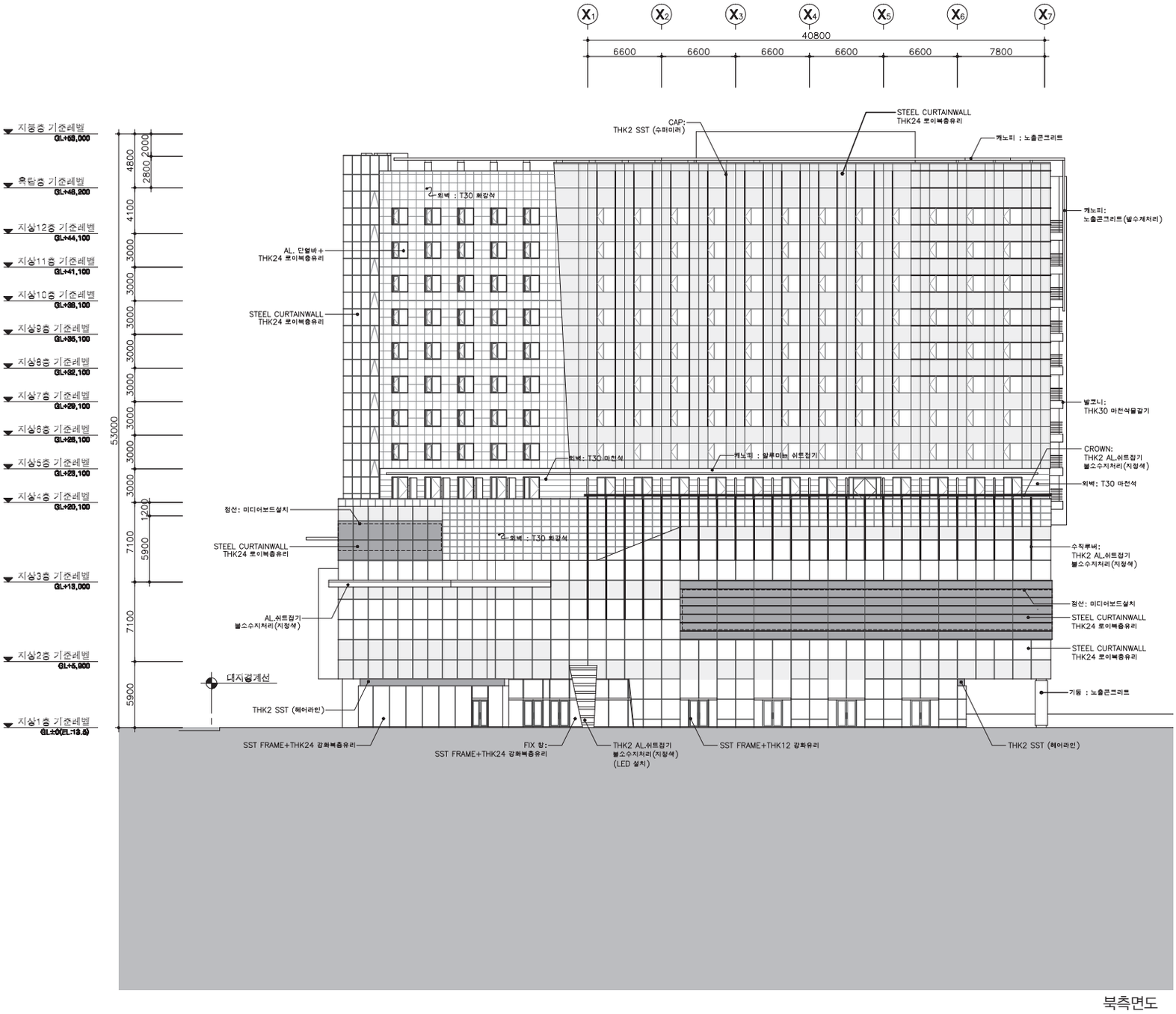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출입구

연회장(그랜드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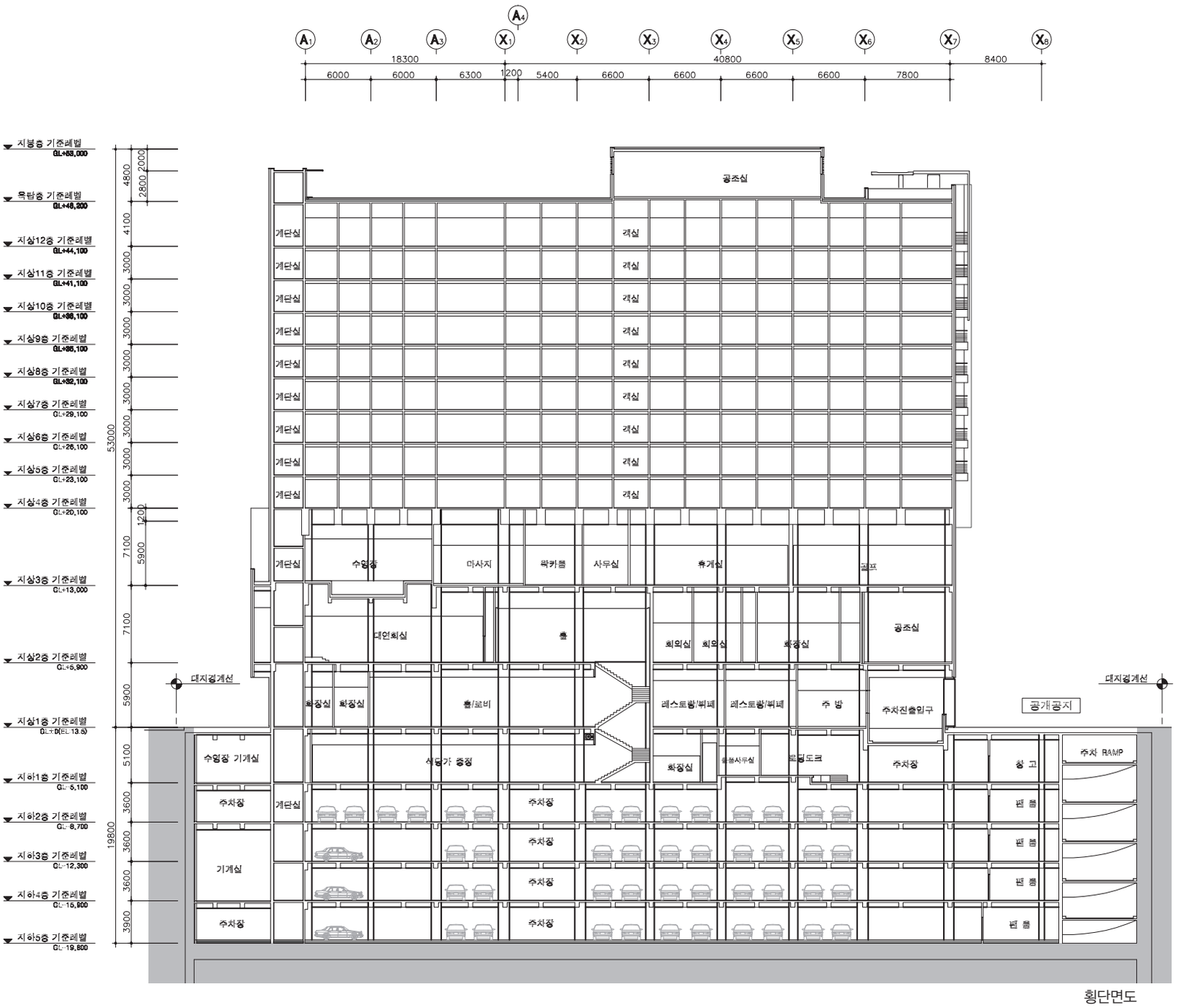
수영장


X1 X2 X3 X4 X5 X6 X7
40800
6600 6600 6600 6600 6600 7800
지붕층 기준레벨 GL+53,000
옥탑층 기준레벨 GL+48,200
지상12층 기준레벨 GL+44,100
지상11층 기준레벨 GL+41,100
지상10층 기준레벨 GL+38,100
지상9층 기준레벨 GL+35,100
지상8층 기준레벨 GL+32,100
지상7층 기준레벨 GL+29,100
지상6층 기준레벨 GL+26,100
지상5층 기준레벨 GL+23,100
지상4층 기준레벨 GL+20,100
지상3층 기준레벨 GL+13,000
지상2층 기준레벨 GL+5,900
지상1층 기준레벨 GL±0(EL+13.5)
4800 2800 2000 41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200 5900 7100 7100 5900
53000
CAP: THK2 SST (수피미러)
STEEL CURTAINWALL THK24 로이복층유리
캐노피 : 노출콘크리트
외벽 : T30 화강석
AL. 단열바+ THK24 로이복층유리
STEEL CURTAINWALL THK24 로이복층유리
캐노피: 노출콘크리트(발수제처리)
발코니: THK30 마천석물갈기
외벽: T30 마천석
캐노피 : 알루미늄 쉬트접기
CROWN: THK2 AL.쉬트접기 불소수지처리(지정색)
외벽: T30 마천석
점선: 미디어보드설치
외벽 : T30 화강석
STEEL CURTAINWALL THK24 로이복층유리
수직루버: THK2 AL.쉬트접기 불소수지처리(지정색)
AL.쉬트접기 불소수지처리(지정색)
점선: 미디어보드설치
STEEL CURTAINWALL THK24 로이복층유리
STEEL CURTAINWALL THK24 로이복층유리
대지경계선
기둥 : 노출콘크리트
THK2 SST (헤어라인)
SST FRAME+THK24 강화복층유리
FIX 창: SST FRAME+THK24 강화복층유리
THK2 AL.쉬트접기 불소수지처리(지정색) (LED 설치)
SST FRAME+THK12 강화유리
THK2 SST (헤어라인)

북측면도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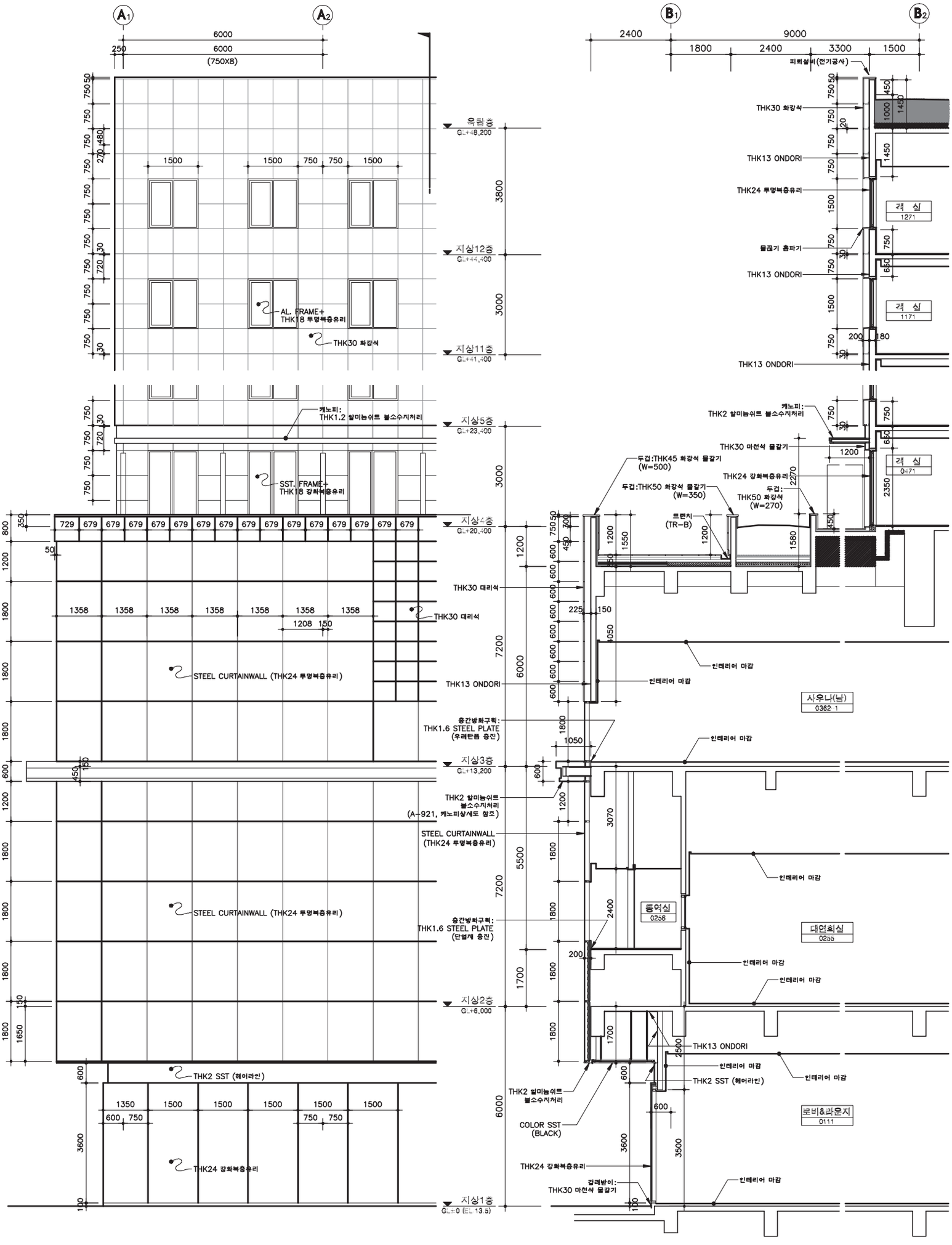
2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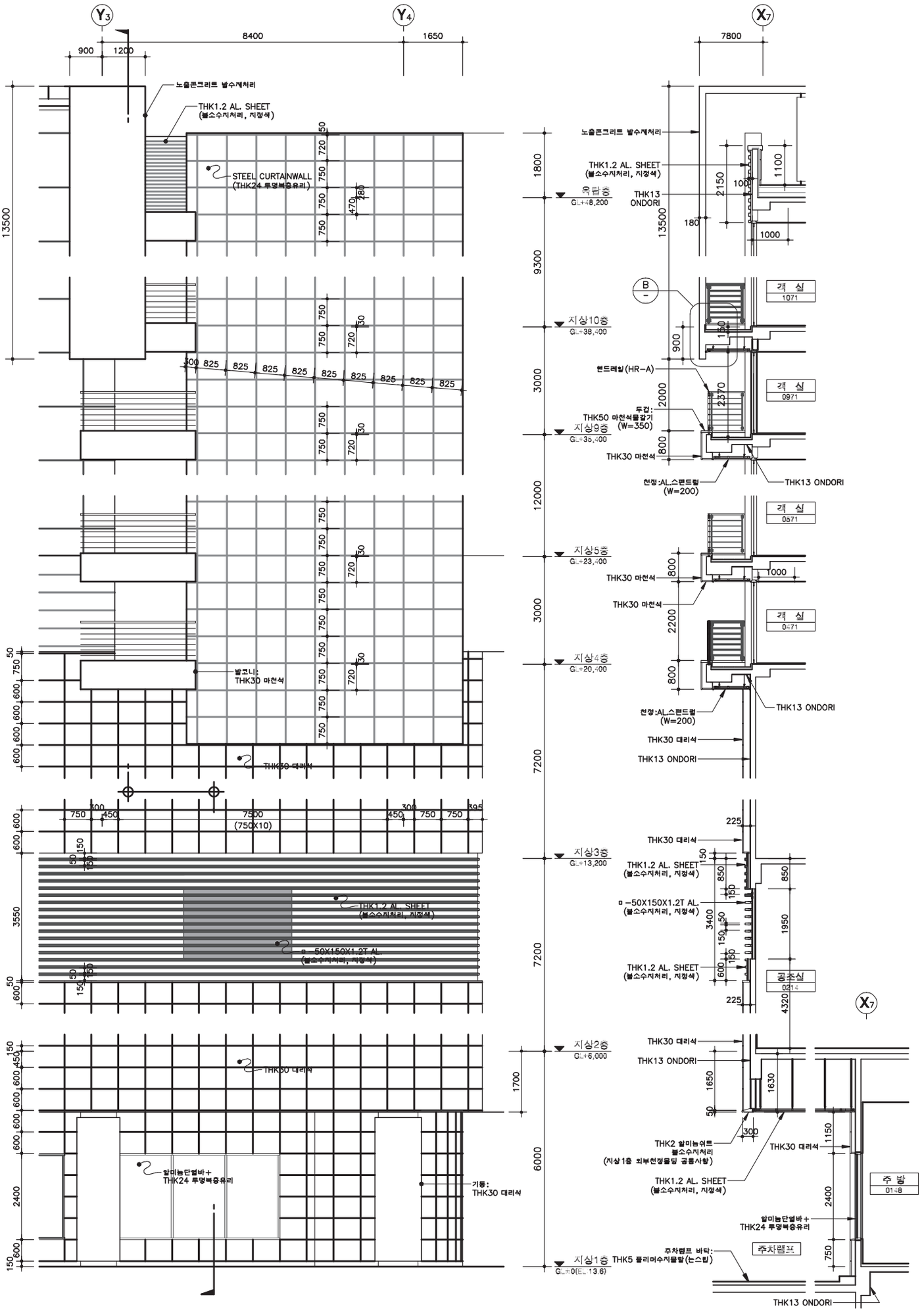
횡단면도

그릴바 입구

객실


A1
A2
B1
B2
6000
250
6000
(750X8)
2400
9000
1800
2400
3300
1500
옥탑층
GL+48,200
지상12층
GL+44,400
지상11층
GL+41,400
지상5층
GL+23,400
지상4층
GL+20,400
지상3층
GL+13,200
지상2층
GL+6,000
지상1층
GL±0 (EL 13.6)
3800
3000
3000
7200
6000
7200
6000
AL. FRAME+
THK18 투명복층유리
THK30 화강석
캐노피:
THK1.2 알미늄쉬트 불소수지처리
SST. FRAME+
THK18 강화복층유리
THK30 대리석
STEEL CURTAINWALL (THK24 투명복층유리)
STEEL CURTAINWALL (THK24 투명복층유리)
THK2 SST (헤어라인)
THK24 강화복층유리
피뢰설비(전기공사)
THK30 화강석
THK13 ONDORI
THK24 투명복층유리
물끊기 홈파기
THK13 ONDORI
THK13 ONDORI
캐노피:
THK2 알미늄쉬트 불소수지처리
THK30 마천석 물갑기
두겁:THK45 화강석 물갑기
(W=500)
두겁:THK50 화강석 물갑기
(W=350)
두겁:
THK50 화강석
(W=270)
THK24 강화복층유리
드렌치
(TR-B)
THK30 대리석
인테리어 마감
THK13 ONDORI
인테리어 마감
층간방화구획:
THK1.6 STEEL PLATE
(우레탄폼 충진)
인테리어 마감
THK2 알미늄쉬트
불소수지처리
(A-921, 캐노피상세도 참조)
STEEL CURTAINWALL
(THK24 투명복층유리)
인테리어 마감
층간방화구획:
THK1.6 STEEL PLATE
(단열재 충진)
인테리어 마감
인테리어 마감
THK13 ONDORI
인테리어 마감
인테리어 마감
THK2 SST (헤어라인)
THK2 알미늄쉬트
불소수지처리
COLOR SST
(BLACK)
THK24 강화복층유리
걸레받이:
THK30 마천석 물갑기
인테리어 마감
객 실
1271
객 실
1171
객 실
0471
사우나(남)
0382-1
통역실
0236
대연회실
0259
로비&라운지
0111

외벽단면상세



Y3
Y4
X7
8400
1650
900
1200
7800
노출콘크리트 발수제처리
THK1.2 AL. SHEET
(불소수지처리, 지정색)
STEEL CURTAINWALL
(THK24 투명복층유리)
13500
옥탑층
GL+48,200
THK13
ONDORI
지상10층
GL+38,400
핸드레일(HR-A)
두갑:
THK50 마천석물갈기
(W=350)
지상9층
GL+35,400
THK30 마천석
천정:AL.스팬드럴
(W=200)
객 실
1071
객 실
0971
객 실
0571
객 실
0471
지상5층
GL+23,400
지상4층
GL+20,400
발코니:
THK30 마천석
THK30 대리석
7500
(750X10)
지상3층
GL+13,200
THK1.2 AL. SHEET
(불소수지처리, 지정색)
ㅁ-50X150X1.2T AL.
(불소수지처리, 지정색)
공조실
0214
지상2층
GL+6,000
THK2 알미늄쉬트
불소수지처리
(지상1층 외부천정물당 공통사항)
주 방
0148
주차램프
주차램프 바닥:
THK5 플리머수지물탈(논스립)
지상1층
GL±0(EL 13.6)
알미늄단열바+
THK24 투명복층유리
기둥:
THK30 대리석

외벽단면상세

KT 노원 프라자
KT NOWON PLAZA

파워유학
전당포
DH
상계대항외과
6F
STARBUCKS
호성치과

KT 노원 프라자

건축주 | (주)케이티

설계자 | 오섬훈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 설계팀 : 한준일, 이주한, 박종범, 김양미, 안윤정, 백인우, 이현주, 박상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맥구조안전
  - 전기설비분야 : (주)비젼이엔지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삼우엠이씨
  - 소방설비분야 : (주)영설계엔지니어링
  - 정보통신분야 : (주)비아이넷

감리자 | 오섬훈(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시공자 | 대림산업(주)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3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3,869.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316.2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195.6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6%

용적률(Floor Area Ratio) | 394.51%

규모(Building Scope) | B5 – 13F

주요마감재 | 실외 – THK24 복층유리, THK3 세라믹패널, THK4 알루미늄 복합패널
실내 – 화강석, 대리석, THK3 데코타일, 폴리싱타일, THK15 흡음텍스, THK9.5석고보드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7.07 ~ 2009.08

공사기간 | 2009.11 ~2012.06

Client | Seoul City

Architect | Oh, Seom-hoon

Project team | Han, Jun-il / Lee, Ju-han / Park, Jong-beom / Kim, Yang-mi / An, Yun-jeong / Baek, In-u / Lee, Hyeon-ju / Park, Sang-eon

Location | 723, Sanggye-dong, Nowon-gu, Seoul, Korea

Structural Engineer | MAC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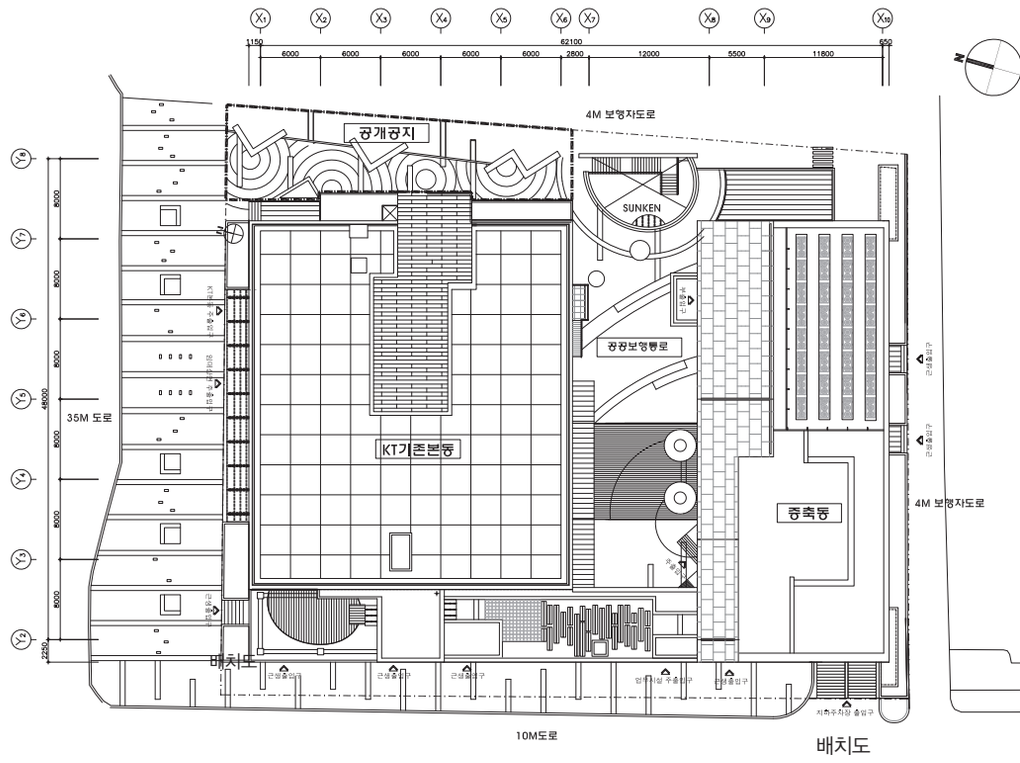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AMWOO MEC

Electrical Engineer | VISIO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THK24 pair glass, THK3 ceramic panel, THK4 aluminium composite panel
exterior_ granite stone, marble, polishing Tile, THK3 deco tile, THK15 sound absorption tex

Design period | 2007.07 ~2009.08

Construction period | 2009.11 ~2012.06



배치도

스케치

오래된 전화국이 도심확장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현상설계당시(현상설계 제출안 참조)는 기존건물을 유지하고 후면에 증축안을 제시하라는 지침이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주도로에서 대지의 안쪽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서측면의 10미터 도로변에 가로상가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전면건물 리모델링

건물 디벨롭을 위해, 정확한 프로그램의 확정을 위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변경에 따른 법정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공연장, 전자도서관 등의 시설이 기부체납 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확정과 더불어 전면의 기존건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결정되고, 저층부의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되었다.(전체리모델링 후 투시도 참조)

스킨의 변화와 서측도로변의 매개

전체적으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기는 했으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점에서도 외피에 대한 조절이 필요했다. 즉 불투명 실크스크린유리, 투명유리, 알루미늄쉬트 등으로 조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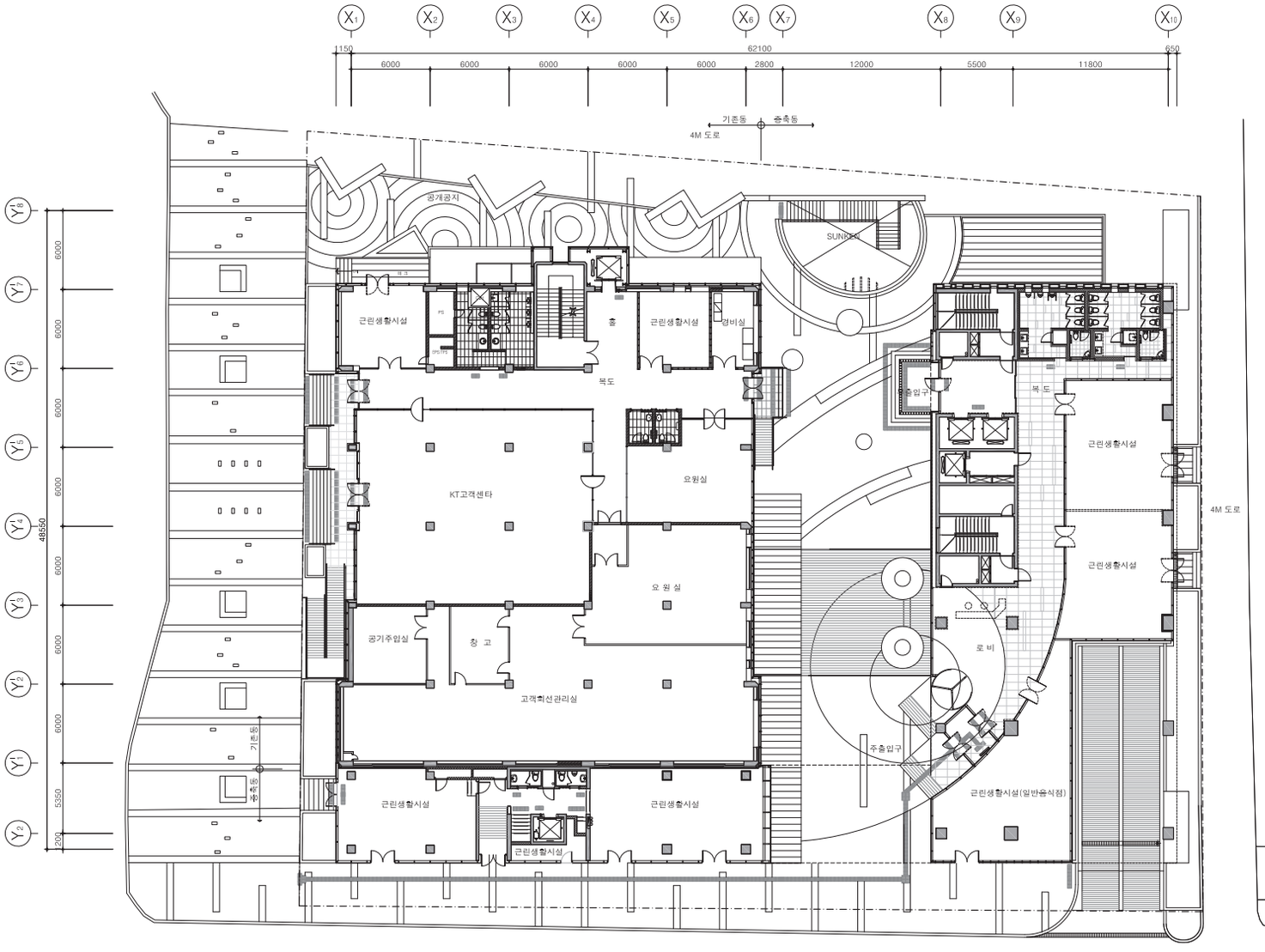
건물의 사잇공간은 주민공동시설, 공연장 등의 출입구와 연결되고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서측도로를 따라 상가와 출입구가 배치되어 건물 전체에 활기를 주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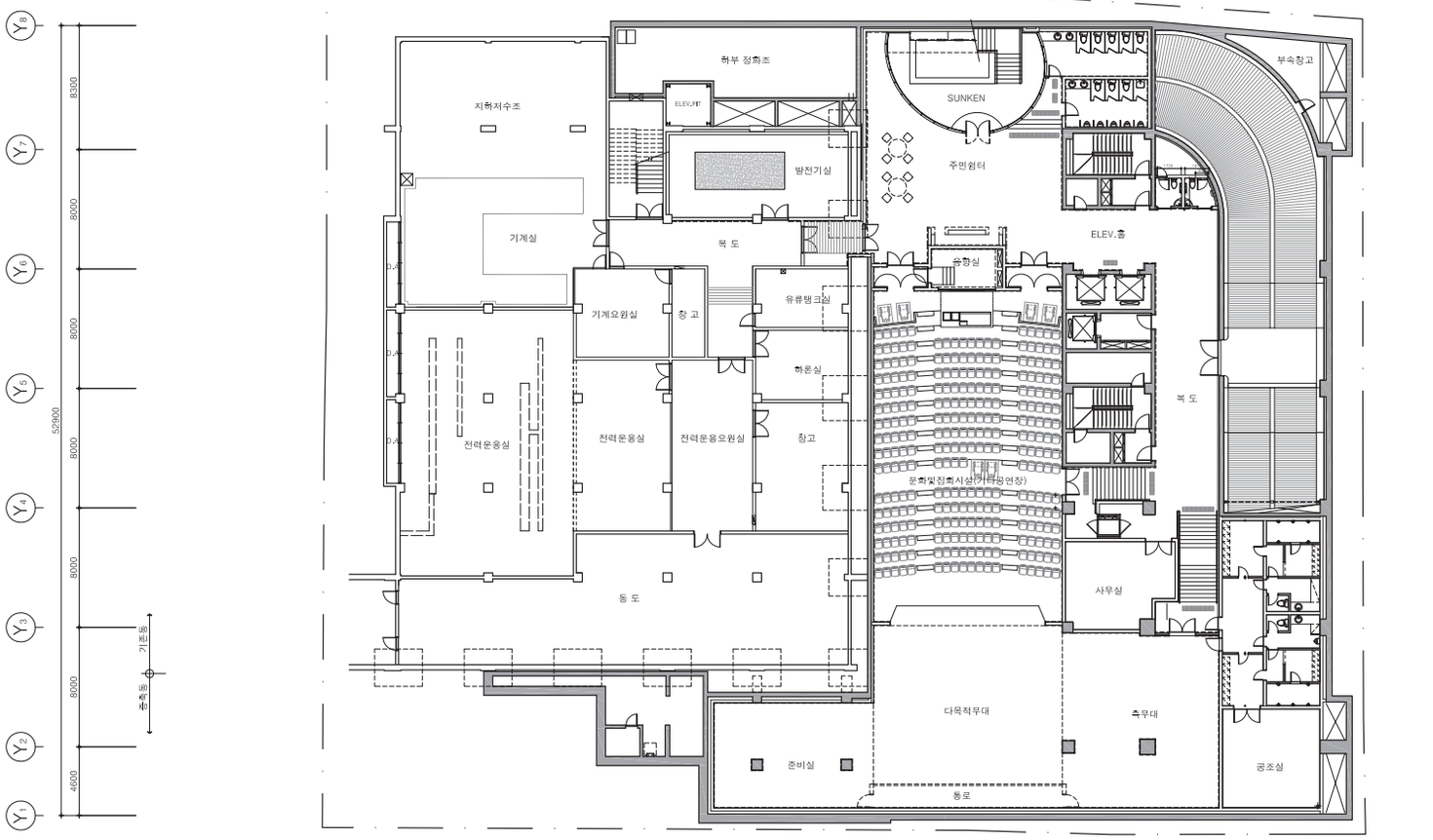
KT노원 현상설계 제출안

KT노원지사 전체 리모델링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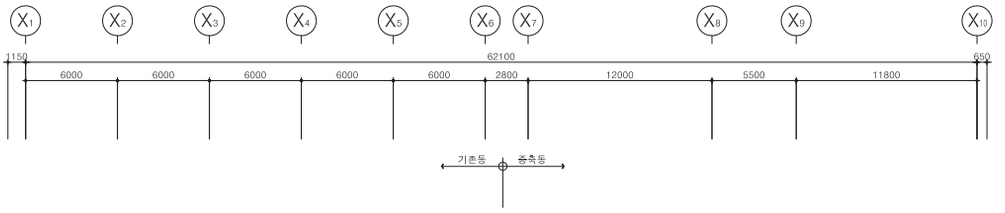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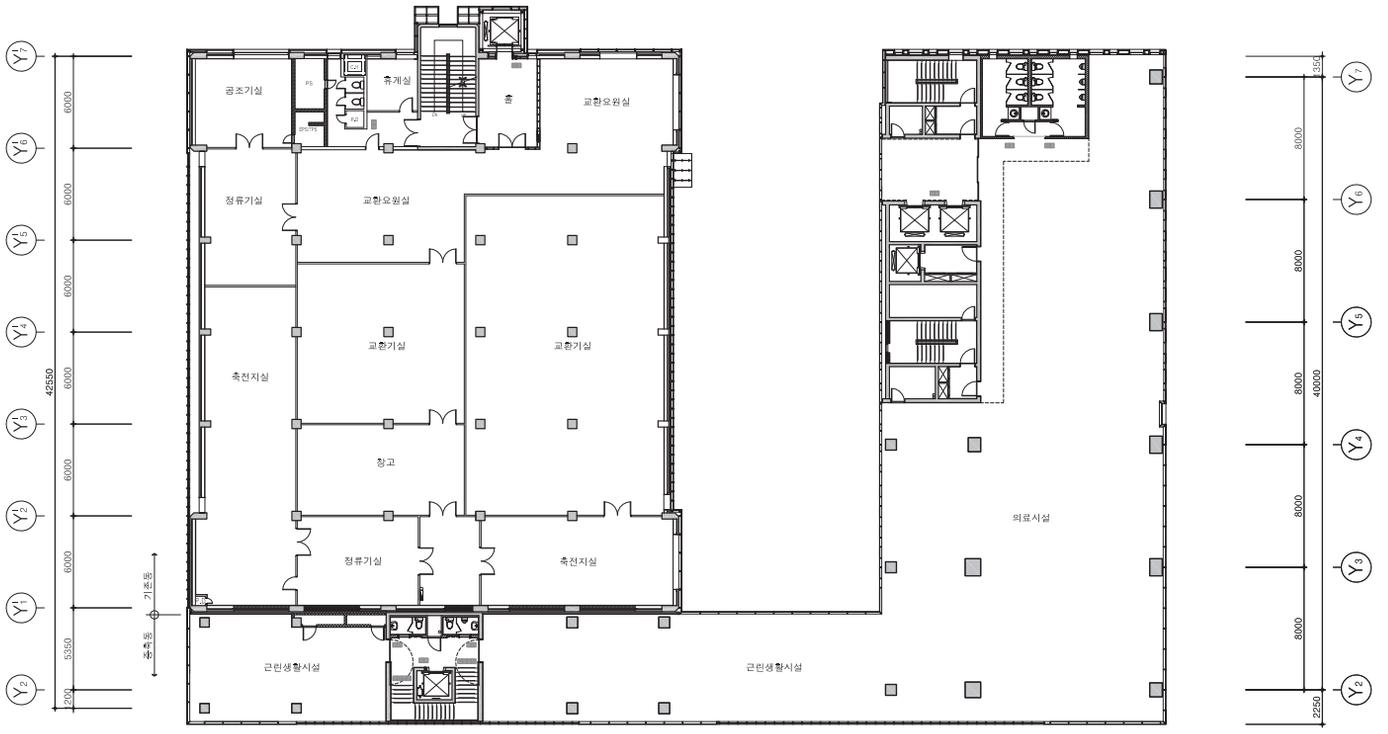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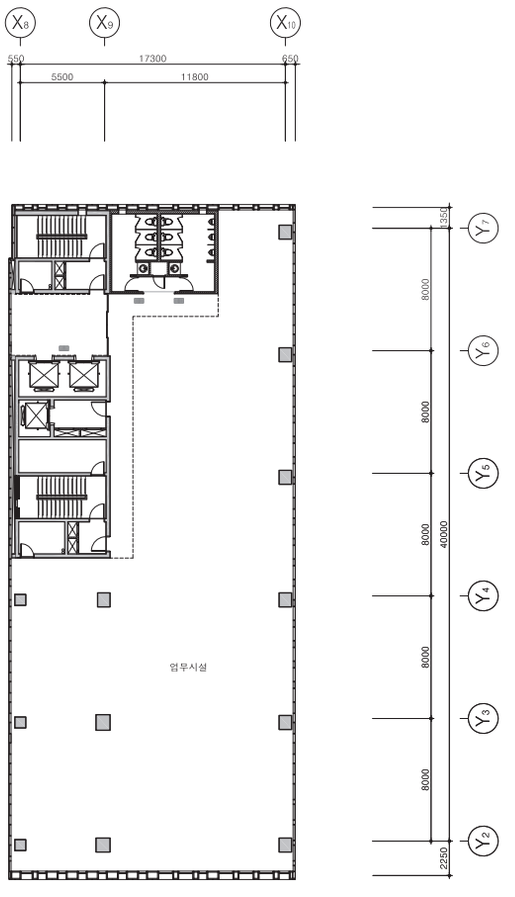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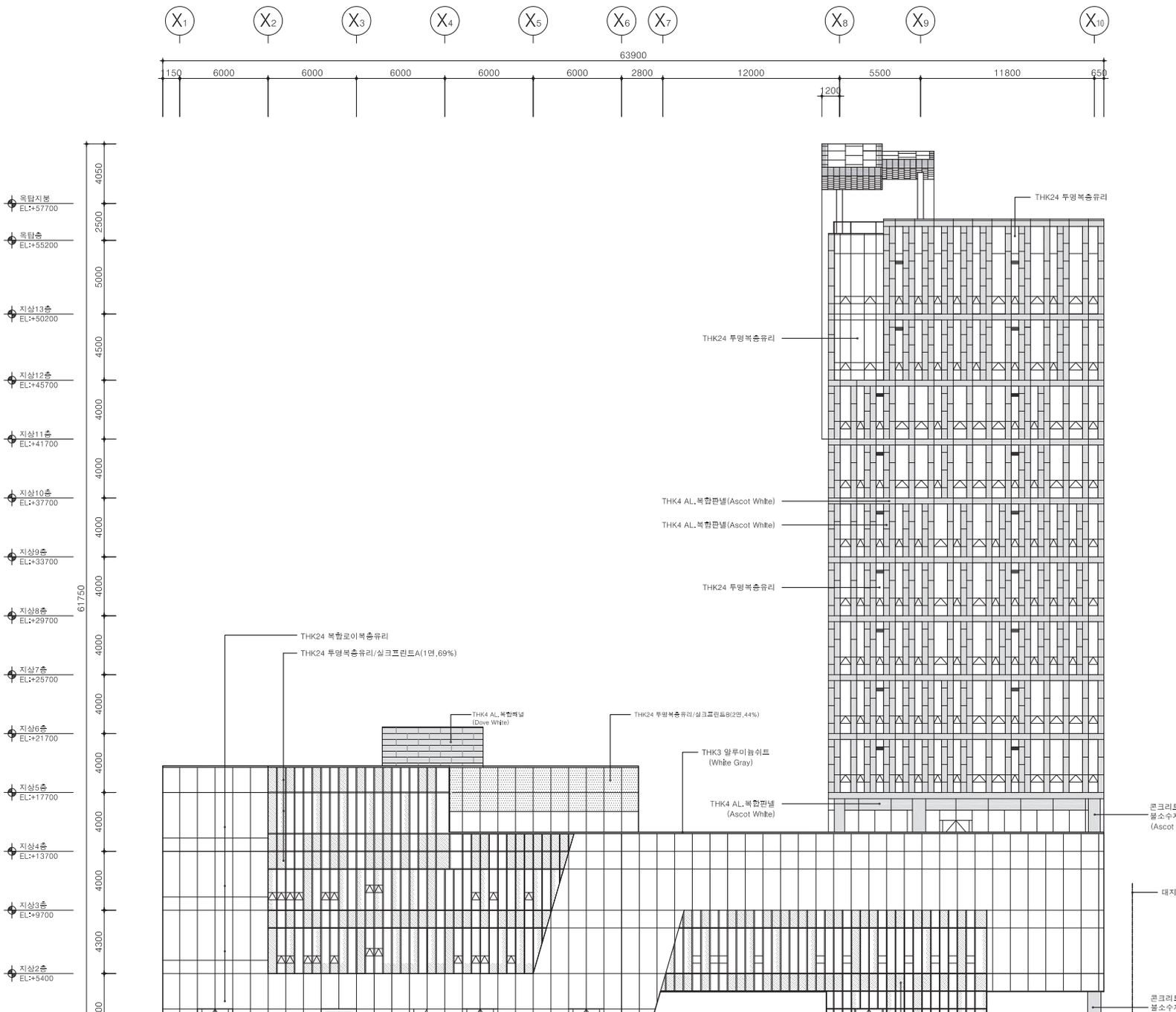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1층 썬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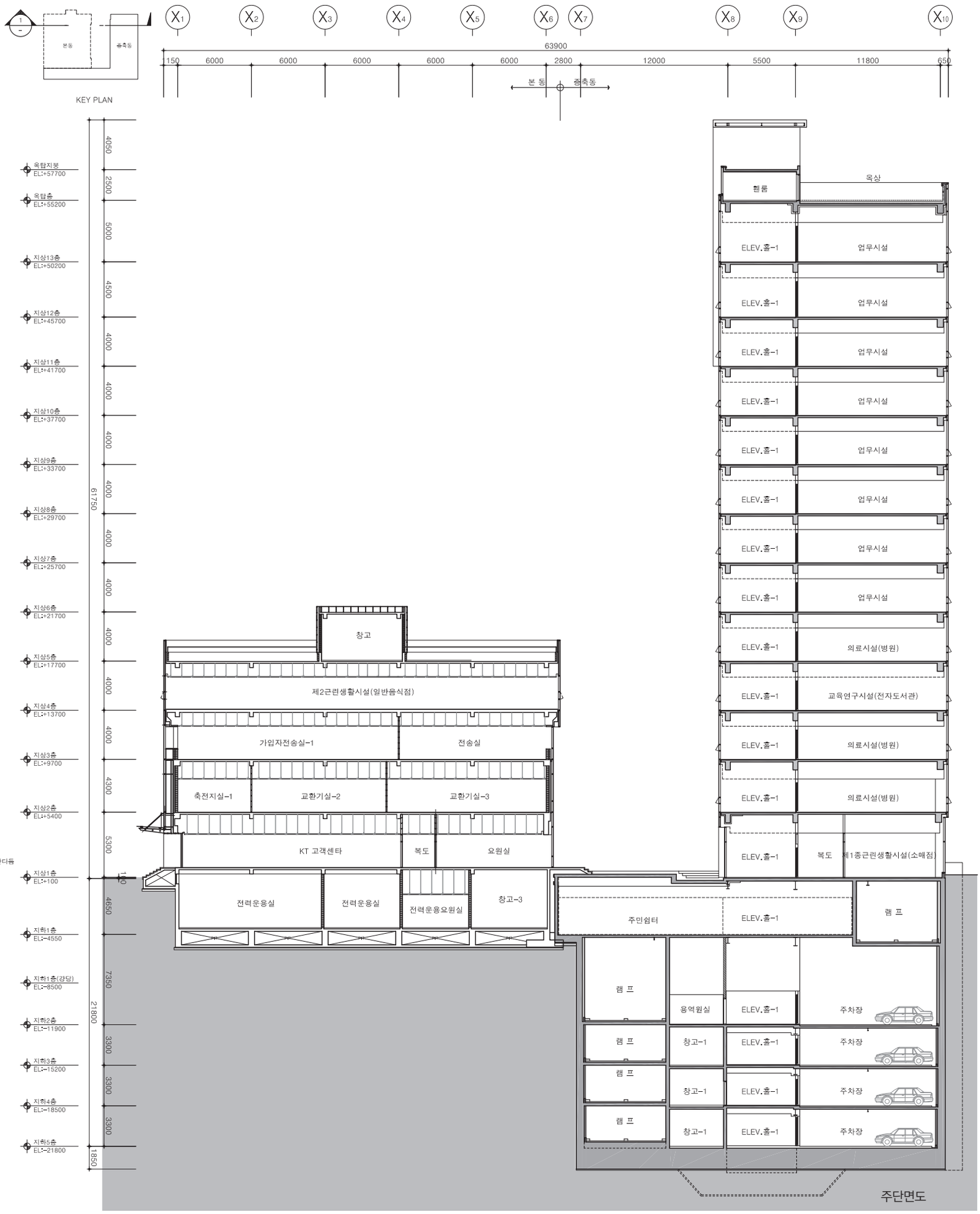
지상 6~13층 평면도



서측입면도

서측 입구

1층 로비


KEY PLAN
본동
증축동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63900
150
6000
6000
6000
6000
6000
2800
12000
5500
11800
650
옥탑지붕 EL:+57700
옥탑층 EL:+55200
지상13층 EL:+50200
지상12층 EL:+45700
지상11층 EL:+41700
지상10층 EL:+37700
지상9층 EL:+33700
지상8층 EL:+29700
지상7층 EL:+25700
지상6층 EL:+21700
지상5층 EL:+17700
지상4층 EL:+13700
지상3층 EL:+9700
지상2층 EL:+5400
지상1층 EL:+100
지하1층 EL:-4550
지하1층(강당) EL:-8500
지하2층 EL:-11900
지하3층 EL:-15200
지하4층 EL:-18500
지하5층 EL:-21800
4050
2500
5000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300
5300
100
4650
7350
3300
3300
3300
1850
61750
21800
옥상
헬륨
ELEV.홀-1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병원)
교육연구시설(전자도서관)
의료시설(병원)
의료시설(병원)
복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제2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가입자전송실-1
전송실
축전지실-1
교환기실-2
교환기실-3
KT 고객센타
복도
요원실
전력운용실
전력운용실
전력운용요원실
창고-3
주민쉼터
램 프
램 프
램 프
램 프
램 프
용역원실
창고-1
창고-1
창고-1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단면도

드와이트스쿨 서울
DWIGHT SCHOOL SEOUL

건축주 | 서울특별시

설계자 | 조도연, 이경환_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이용익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설계팀 : 이유복, 강연우, 강희정, 조신애, 곽동욱_디엔비건축
  김헌준, 김대선, 김성욱, 이성희_동우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신화에스디지
  - 토목분야 : 깨밴시스템(주)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수양엔지니어링
  - 전기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세진 전기연구소

감리자 | 건원엔지니어링

시공자 | 벽성건설(주)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A1-1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9,97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410.0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659.4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4.2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29.02%

규모(Building Scope) | B1 – 5F

구조 | 교과동_철근콘크리트조 / 학습지원동_SRC조

주요마감재 | 화강석 버너구이, 금속패널, 목재패널, THK24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3. ~ 2010. 12

공사기간 | 2010. 12 ~ 2012. 07

Client | Seoul City

Architect | Cho, Do-yeun · Lee, Kyoung-hawn / Lee, Yong-ik

Project team | Lee, U-bok / Kang, Youn-woo / Kang, Hee-jeong / Gwak, Dong-uk _ D&B
Kim, Hun-jun / Kim, De-sun / Kim, Sung-uk / Lee, Sung-hee _ DONG WOO

Location | DMC, A1-1,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 S.R.C

Structural Engineer | SHINHWA STRUCTURE DESIG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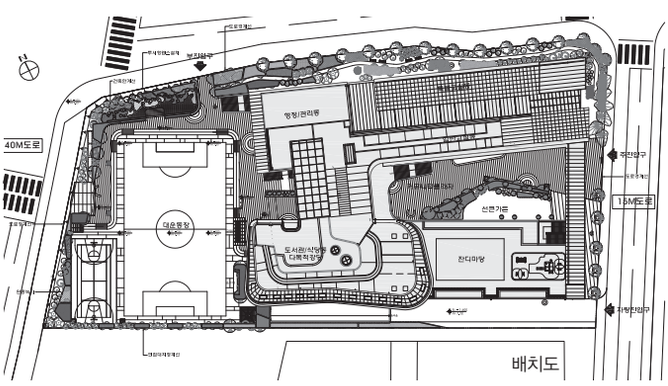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UYA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EJIN ELEC. Engineeri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stone, Metal panel, Wood panel, THK24 Low-E Glass

Design period | 2010. 3. ~ 2010. 12

Construction period | 2010. 12 ~ 2012. 07



배치도

협소한 대지여건과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대지는 DMC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서측관문으로 3면이 도로(40m, 25m, 15m)에 접해있고, DMC첨단산업센터, 우리금융상암센터, 일본인학교에 둘러싸여있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있다. 학교라는 교육시설이 들어서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40m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협소한 대지에 비해 다양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대지 여건과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40m도로의 소음, 먼지 등을 고려해 학교건물을 최대한 이격 배치하여 정숙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협소한 대지에 담기위해 볼륨이 큰 수영장, 다목적강당, 무용실과 같은 운동시설을 지하층에 배치하여 지상에서의 볼륨을 최소화하였으며, 그 상부에는 식당, 초등학생용 운동장을 배치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야외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였다.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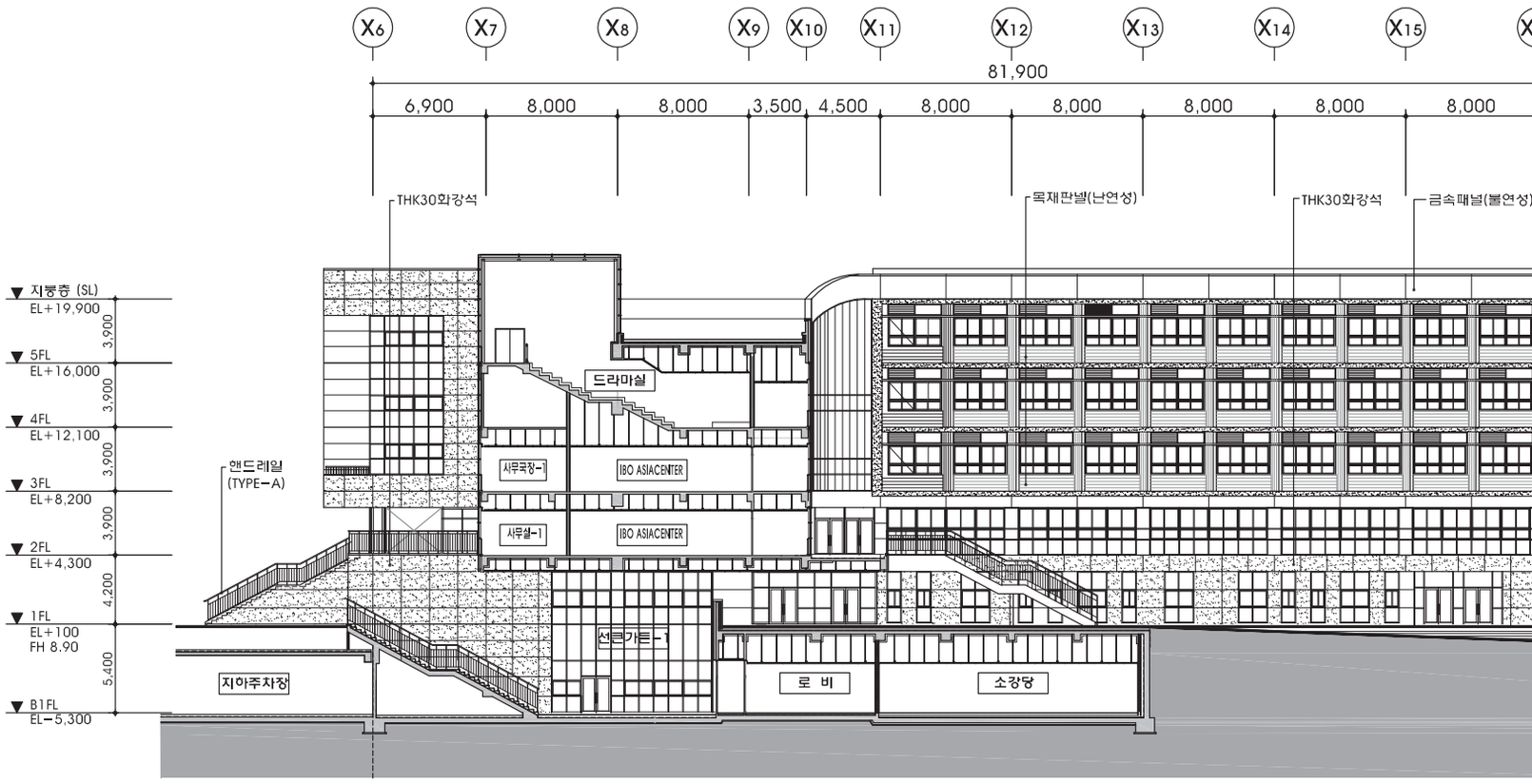
안전한 통학로와 편리한 차량 이용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명확히 분리하고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여 통학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지하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상에 쾌적한 외부공간 및 보행로를 조성하였다. 지하의 운동시설은 2개의 선큰을 통해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2개의 선큰 중 후면의 선큰은 40m도로변의 중, 고등학생용 대운동장과 연계되며, 전면의 선큰은 15m도로변의 진입마당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진입마당으로부터 커뮤니티 플라자(필로티) 대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넓은 외부공간을 갖도록 하여 입체적이며 다양한 외부공간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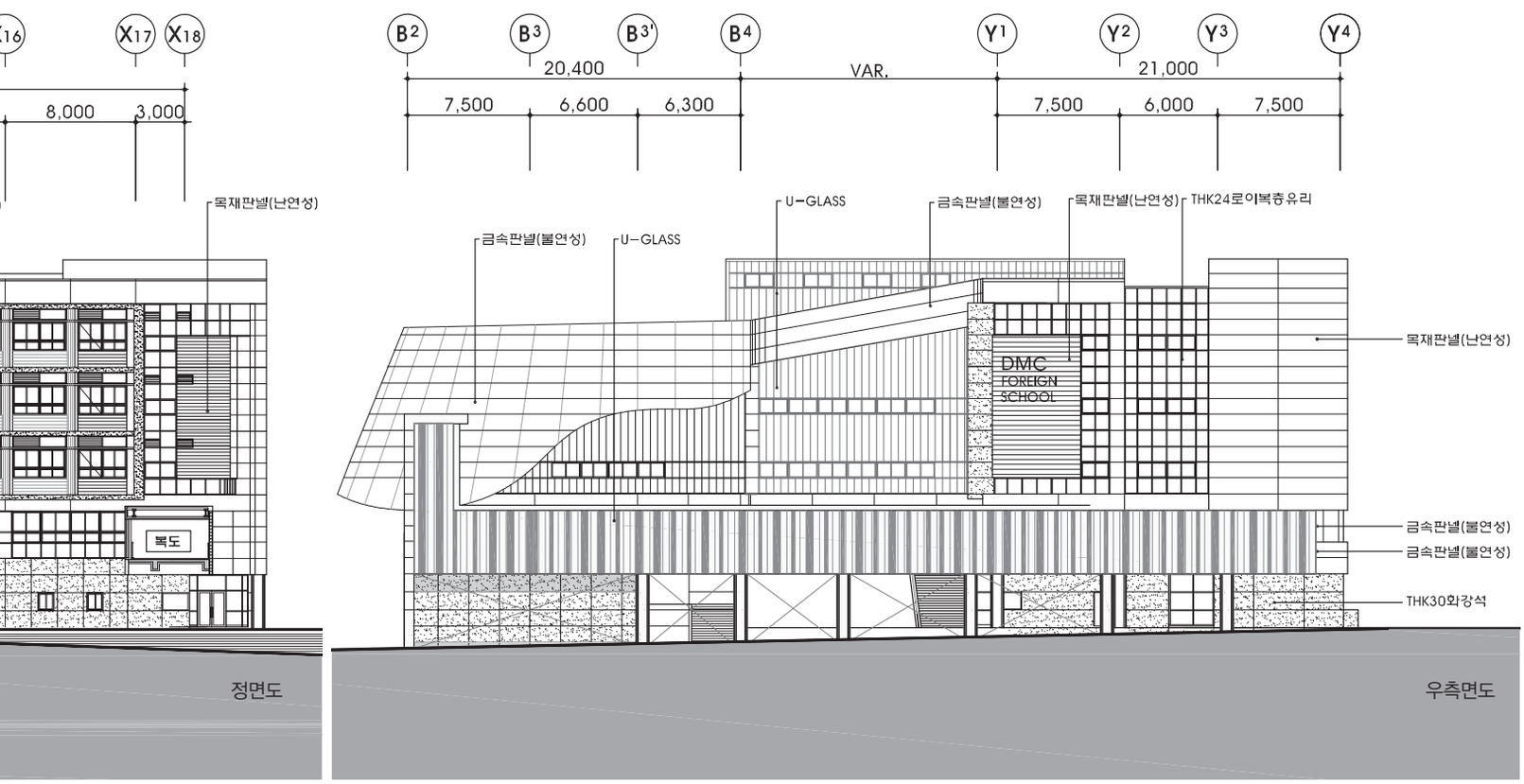
초 · 중 · 고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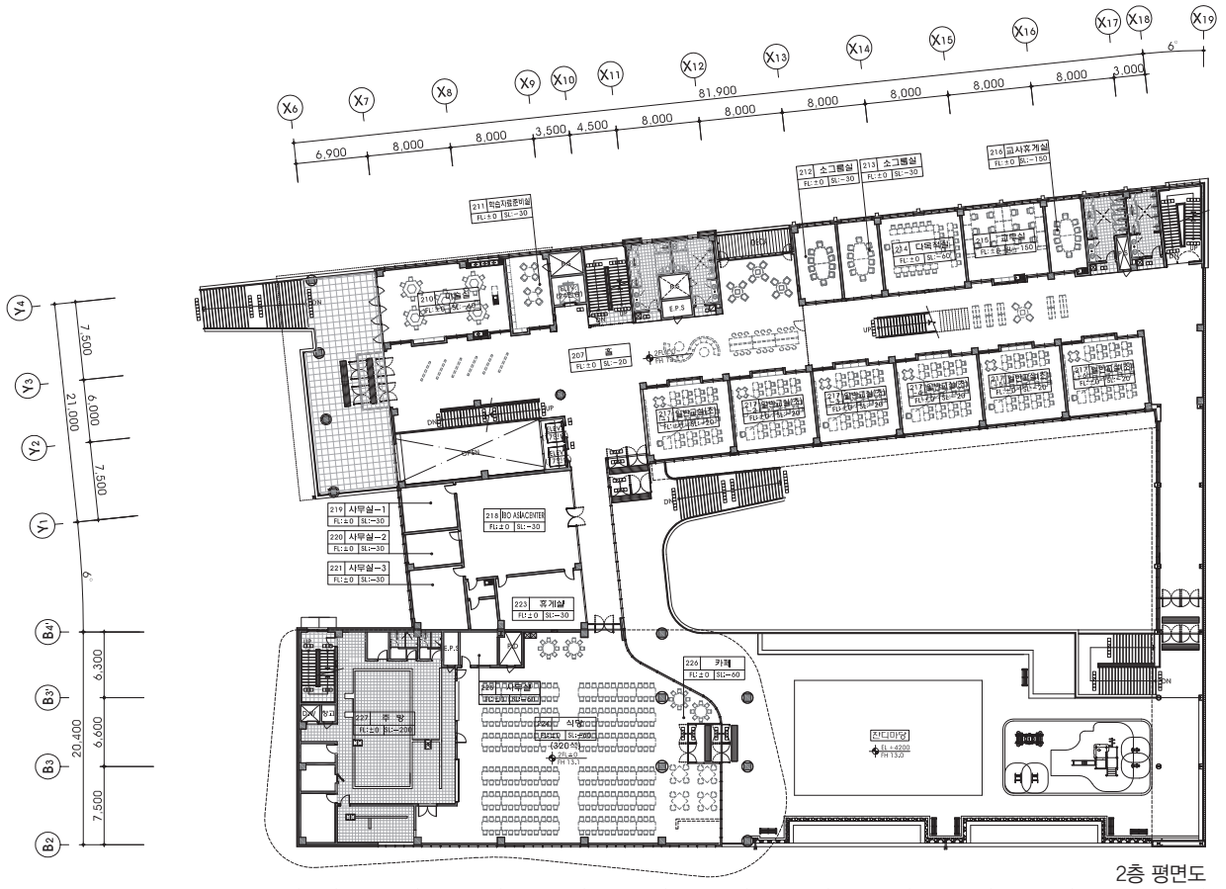
초 · 중 · 고교의 학습생활패턴별로 원할한 학습관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설별 조닝을 통하여 이용자별로 공간을 분리하고, 개방영역과 학습영역의 분리배치로 지역주민에게 열린 학교를 제공함과 동시에 독립된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초등학생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내부연결 동선을 계획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가변형 공간과 공연, 발표회 등 다목적 활용을 고려한 계단형 대공간(드라마실)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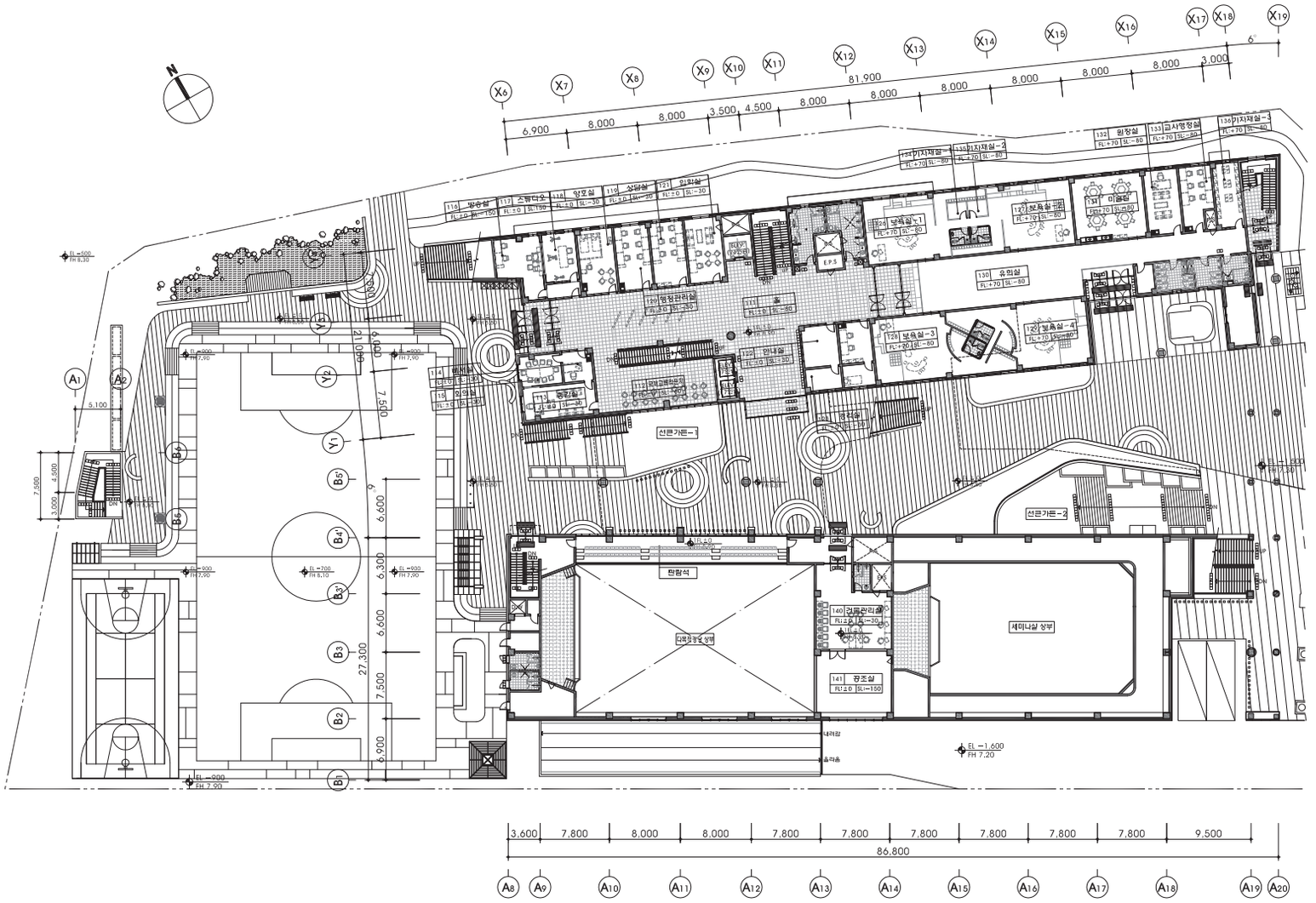
중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교실제를 고려하여 학습자료코너를 중심으로 특별교실, 교과교실배치를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학습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81,900
6,900
8,000
8,000
3,500
4,500
8,000
8,000
8,000
8,000
8,000
THK30화강석
목재판넬(난연성)
THK30화강석
금속패널(불연성)
▼ 지붕층 (SL)
EL+19,900
▼ 5FL
EL+16,000
▼ 4FL
EL+12,100
▼ 3FL
EL+8,200
▼ 2FL
EL+4,300
▼ 1FL
EL+100
FH 8.90
▼ B1FL
EL-5,300
3,900
3,900
3,900
3,900
4,200
5,400
앤드레일
(TYPE-A)
드라마실
사무국장-1
IBO ASIACENTER
사무실-1
IBO ASIACENTER
선큰가든-1
지하주차장
로 비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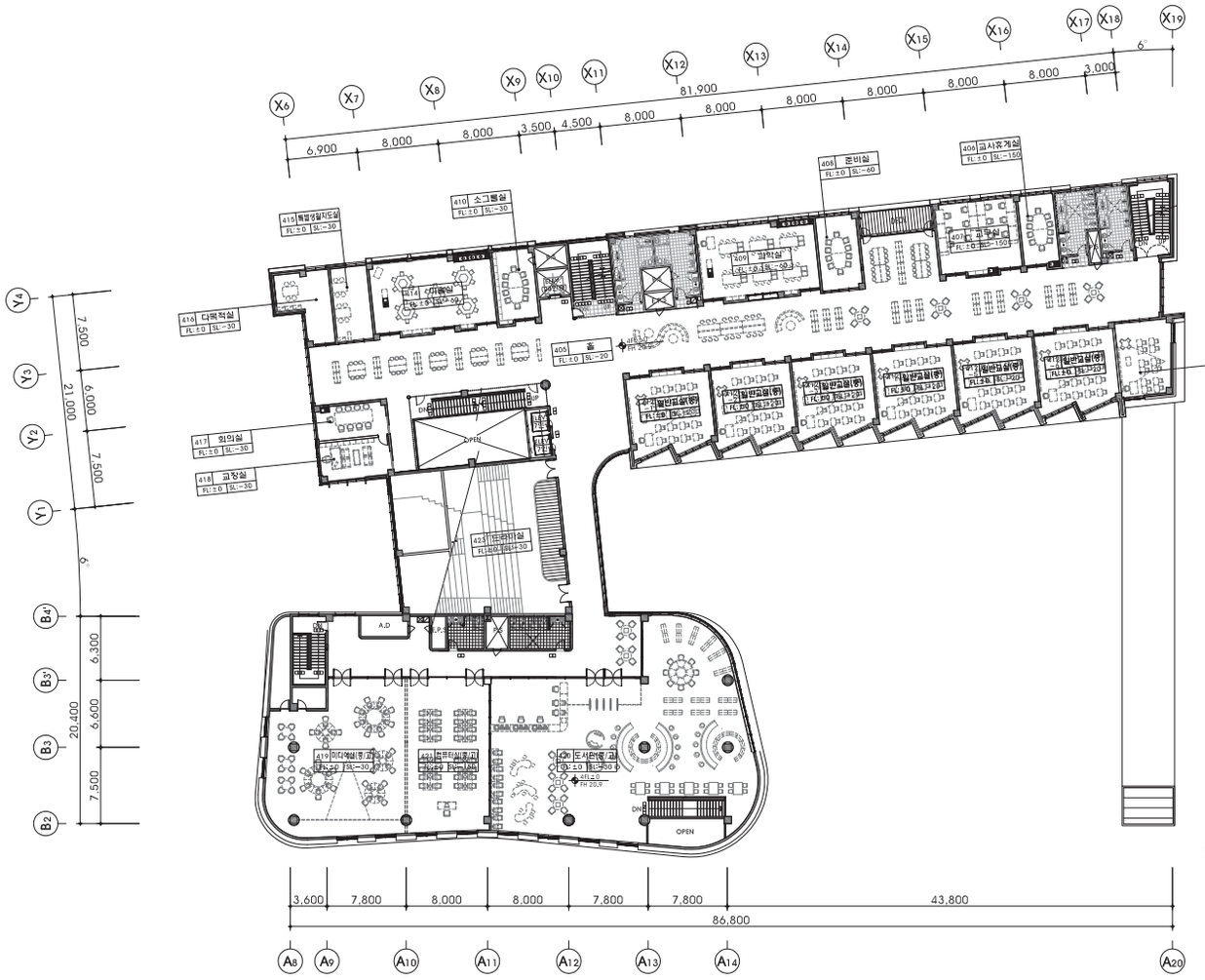

X16
X17
X18
8,000
3,000
목재판넬(난연성)
복도
정면도
B2
B3
B3'
B4
Y1
Y2
Y3
Y4
20,400
VAR.
21,000
7,500
6,600
6,300
7,500
6,000
7,500
U-GLASS
금속판넬(불연성)
목재판넬(난연성)
THK24로이복층유리
금속판넬(불연성)
U-GLASS
DMC
FOREIGN
SCHOOL
목재판넬(난연성)
금속판넬(불연성)
금속판넬(불연성)
THK30화강석
우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선큰가든에서 바라본 주진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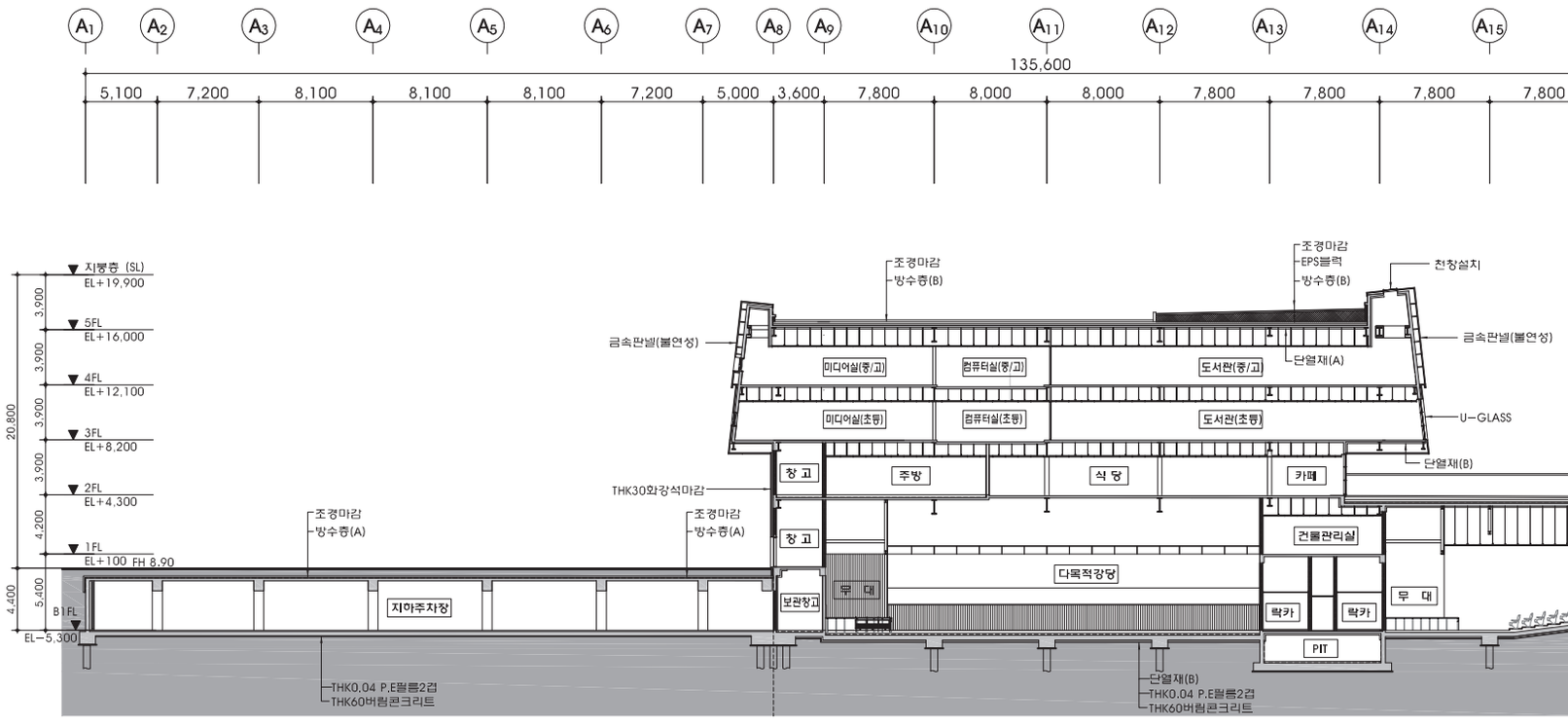
선큰가든

옥상정원 상부 전경

국제교류라운지 상부

다목적강당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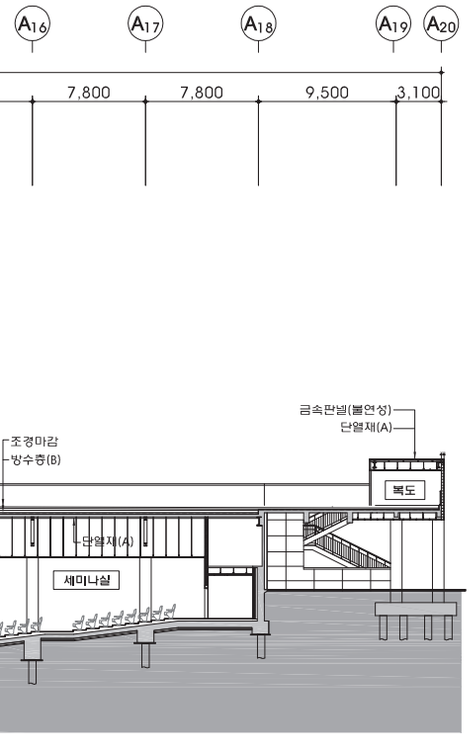


4층 휴게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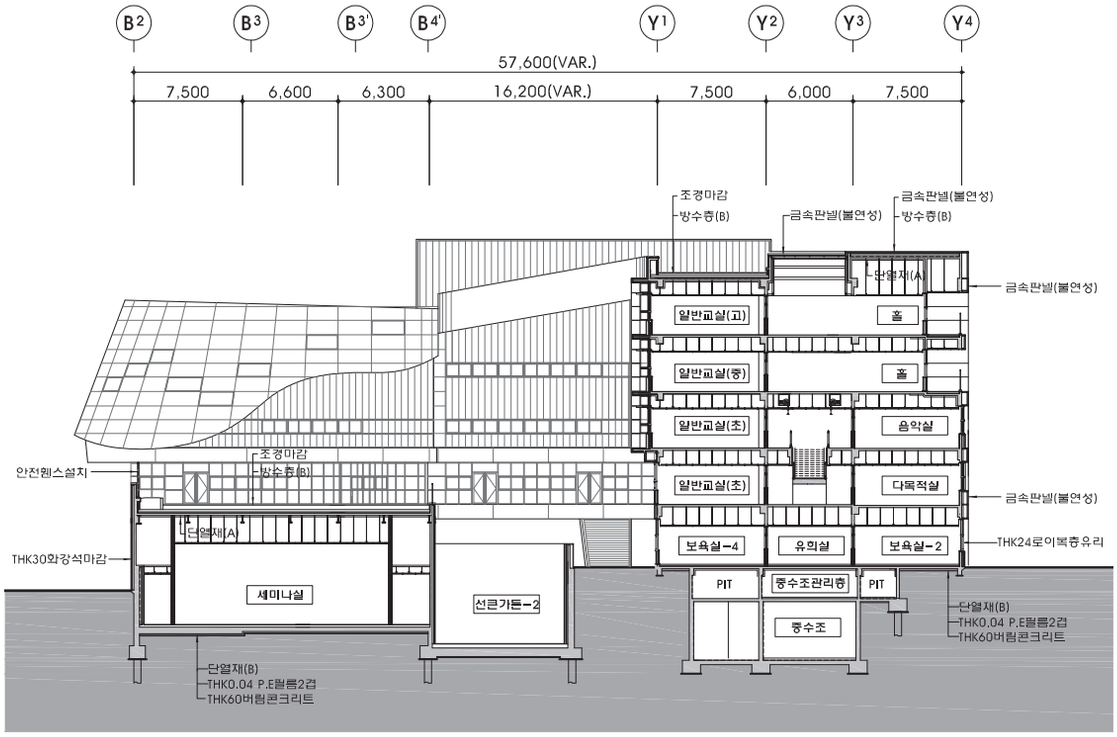
4층 드라마실

3층 공용부분

5층 공용부분



횡단면도



종단면도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KANGWON LAND CONVENTION HOTEL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건축주 | ㈜강원랜드

설계자 | 이종찬, 성진용, 박기성_KIRA | ㈜원양 건축사사무소
이용익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설계팀 : 박근우, 김용표, 최강석, 송석환_원양건축
  김인배, 김정수, 소재현, 이윤수_동우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동양구조안전기술
  - 전기 · 통신설비분야 : (주)전기설계 협인
  - 기계설비분야 : 한일엠이씨
  - 소방설비 : 융도엔지니어링
  - 토목 : 다산이엔지
  - 조경 :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감리자 |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태영건설

대지위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번지 외 18필지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74,38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9,286.37㎡

연면적(Gross Floor Area) | 46,698.9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5.27%

용적률(Floor Area Ratio) | 44.18%

규모(Building Scope) | 2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칼라복층유리 커튼월, 알미늄쉬트, 아연도 불소수지강판
내부마감_ 석재, 무늬목, 시트지, 카펫, 페인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7. 11 ~ 2009. 01

공사기간 | 2009. 08 ~ 2011. 07

Client | Kangwon Land

Architect | Lee, Jong-chan · Sung, Jin-yong · Park, Ki-sung / Lee, Young-ik

Project team | Park, Keun-woo / Kim, Pyo-yong / Choi, Gang-seok /
Song , Suk-hwan_Wonyang
Kim, In-bae / Kim, Jeong-su / So, Jae-hyeon /
Lee, Yun-su_DongWoo

General Contractor | TAEYOUNG E&C

Location | 424, Sabuk-ri, Sabuk-eup, Jeongseon-gun, Gwangwon-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DongYang Structural Engin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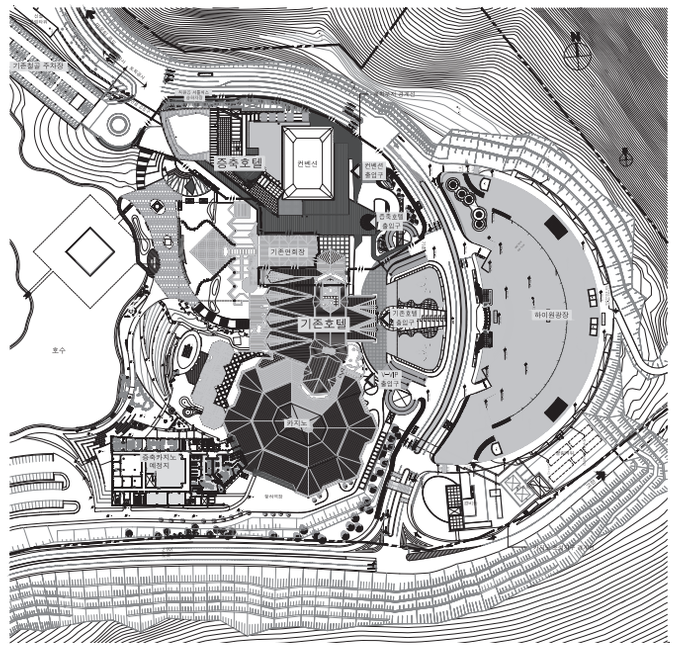
HVAC Engineer | Hanil Mech. Elec.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Consultant Hyeob-In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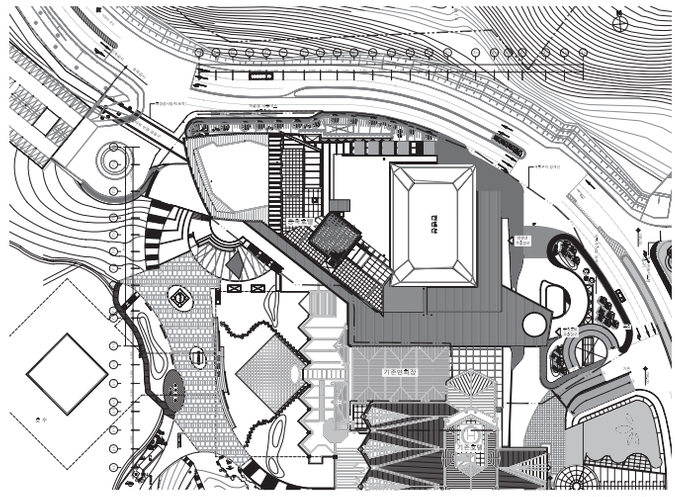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Curtain Wall

Design period | 2007. 11 ~ 2009. 01

Construction period | 2009. 08 ~ 2011. 07



전체배치도



증축호텔배치도

본 프로젝트는 기존 강원호텔에 객실동과 컨벤션, 행정업무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호텔 증축시설간의 연계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그리고 향후 계획중인 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들과의 연계로 하이원 리조트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하이원 리조트 증축 호텔은 하늘을 머금은 또 하나의 보석이라는 테마로 'High One + Resort Hotel'이라 명명하였다.

계획의 주안점

첫째, 기존과 증축호텔이 하나 되는 혁신적 시너지 Only One 호텔,
둘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형 컨벤션 First One 호텔,
그리고 하나 더 워터파크, 카지노, 컨벤션, 스키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가족형 패밀리 종합 리조트 호텔로 변화를 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The One + 이다.

디자인 개념 기존 탄광지역이었던 곳에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강원랜드에는 이미 '도깨비' 콘셉트의 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이 호텔과 연계되어 폐광지역을 보석처럼 빛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보석'이라는 콘셉트로 계획되었다.

저층부 계획 기존과 증축호텔의 통합 로비층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 후방지원시설(B.O.H)의 동일층 연계 구성으로 호텔 관리 효율을 배려하였으며, 기계, 전기실의 동일층 구성으로 설비시스템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증축호텔이 하나되는 혁신적 시너지 호텔을 계획하였다.

컨벤션 대소연회장의 수직조닝으로 행사시 독립성 확보 및 용도별 가변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기존 연회장과 동일층에 소연회장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동선 편의를 제공 하였고, 컨벤션 상부 천창 설치로 평균조도 25.9% 향상의 빛나는 컨벤션을 디자인 하였다.

객실동 수공간을 향해 열린 최적의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객실동 층별 조닝과 5.7m폭의 와이드한 객실로 파노라마 뷰를 조망할 수 있는 객실동을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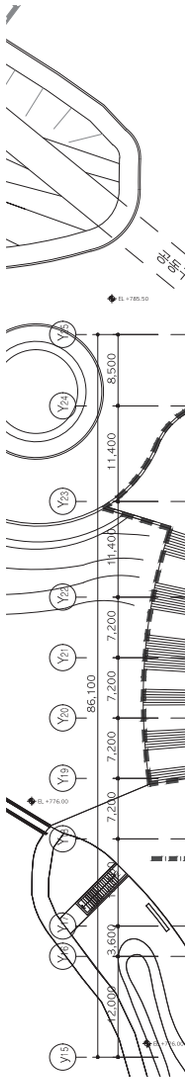
기존호텔과의 기능별 연계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입체적인 계획으로 부족한 가용지 및 경사지를 최대 확보하였다. 또한 객실동, 컨벤션, 행정지원시설을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최대 조망확보 및 기존호텔과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객실동 배치계획으로 기존호텔과 함께하는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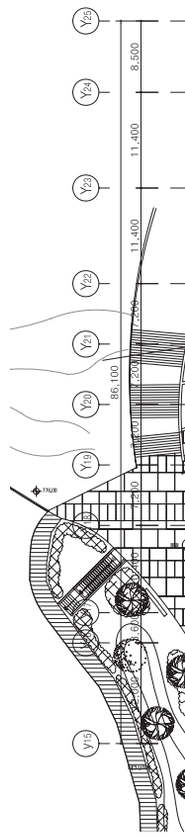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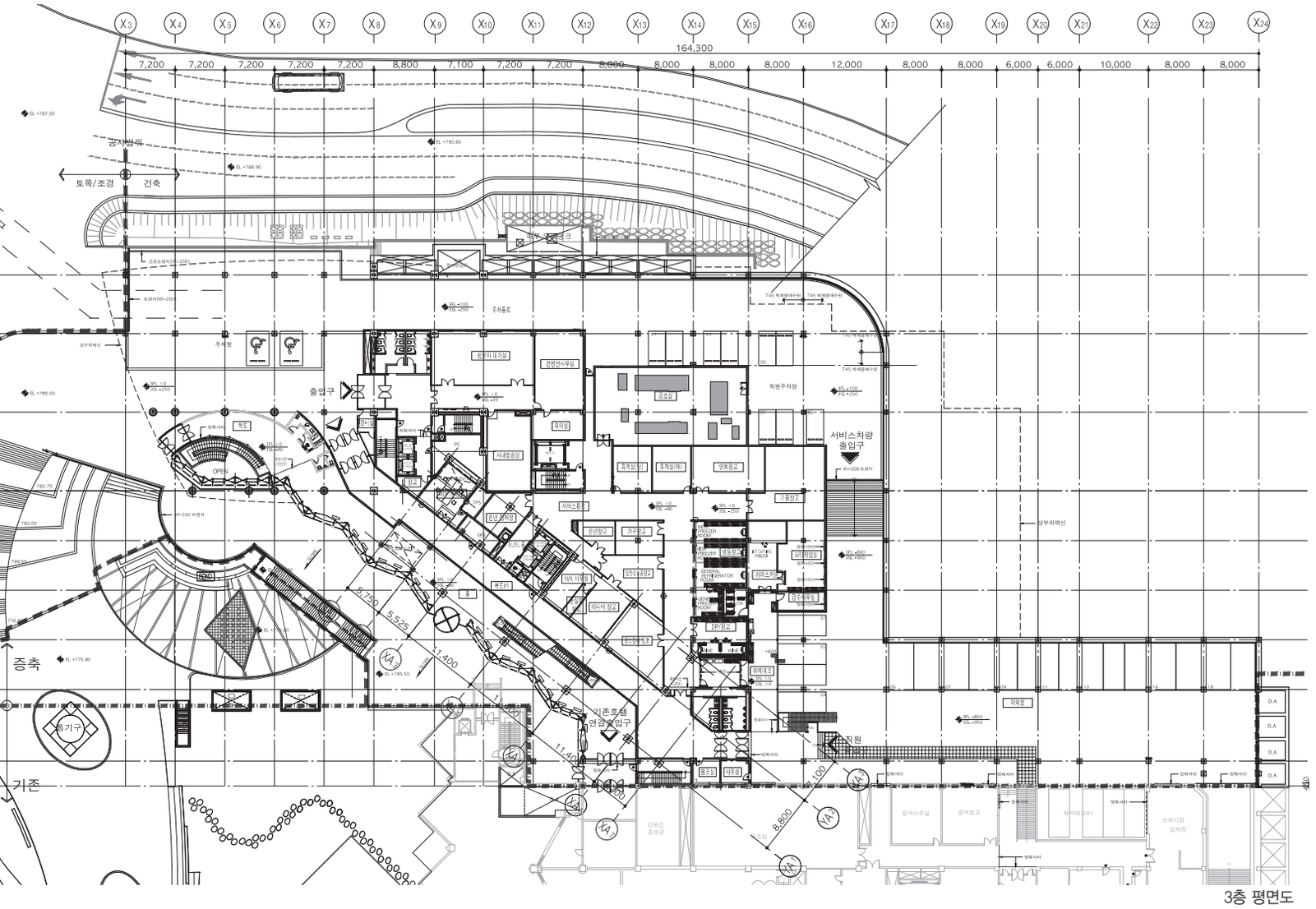
동일기능의 동일층 구성으로 고객 이용 동선의 편리성과 관리 운영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메인주방-그릴, 룸서비스주방-연회주방을 수직동선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컨벤션 포이어 공간의 천창 설치로 밝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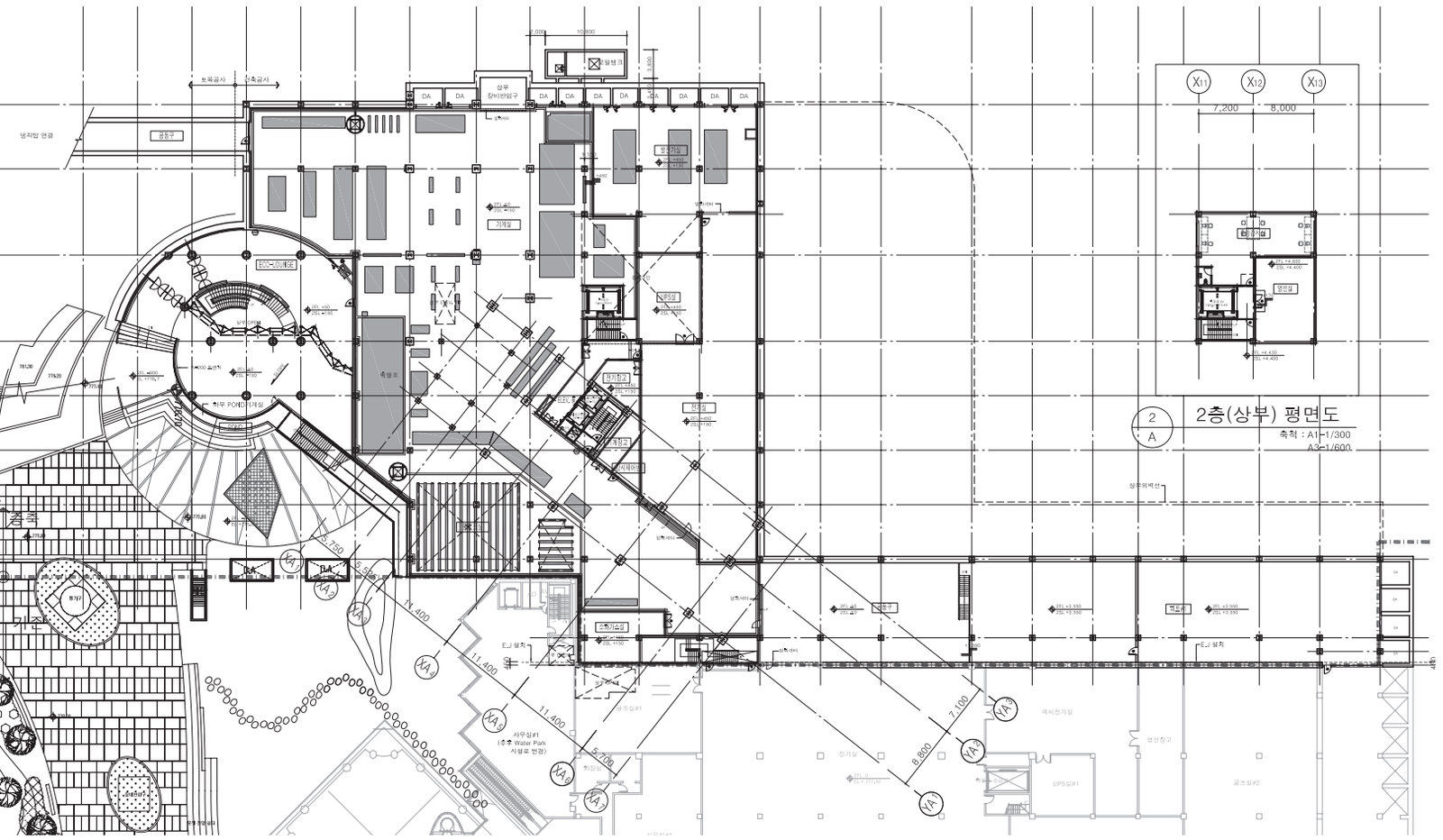
하이원 리조트의 새로운 상징이 되는 보석을 형상화한 다면 절곡형으로 구성하여, 빛나는 호텔, 가치있는 호텔, 다양한 칼라의 호텔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유리를 주마감재로 사용해서 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자 했으며, 특별한 기술을 적용해 보는 거리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형성하도록 유리의 각도를 달리해 시공 하였다. 또한 기존호텔과 조화를 고려해 기존호텔의 뾰족한 느낌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고, 야간에는 원거리에서도 빛을 통한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랜드마크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건물은 보석을 커팅한 듯한 면에 조명을 배치해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인상을 전한다.


EL.+785.50
EL.+776.00
Y24
Y23
Y22
Y21
Y20
Y19
Y15
8,500
11,400
11,400
7,200
7,200
7,200
7,200
86,100
3,600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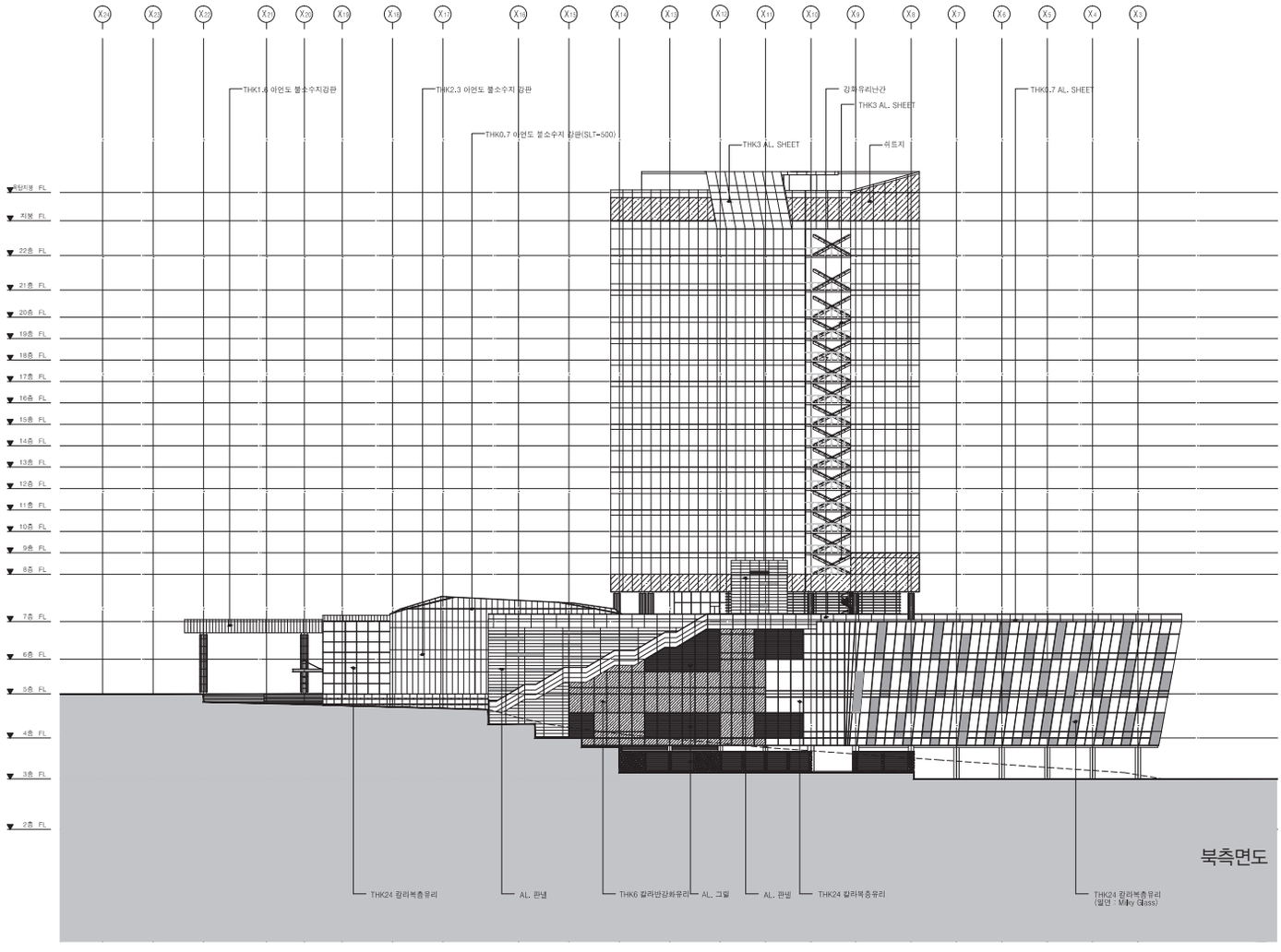

Y25
Y24
Y23
Y22
Y21
Y20
Y19
Y15
8,500
11,400
11,400
8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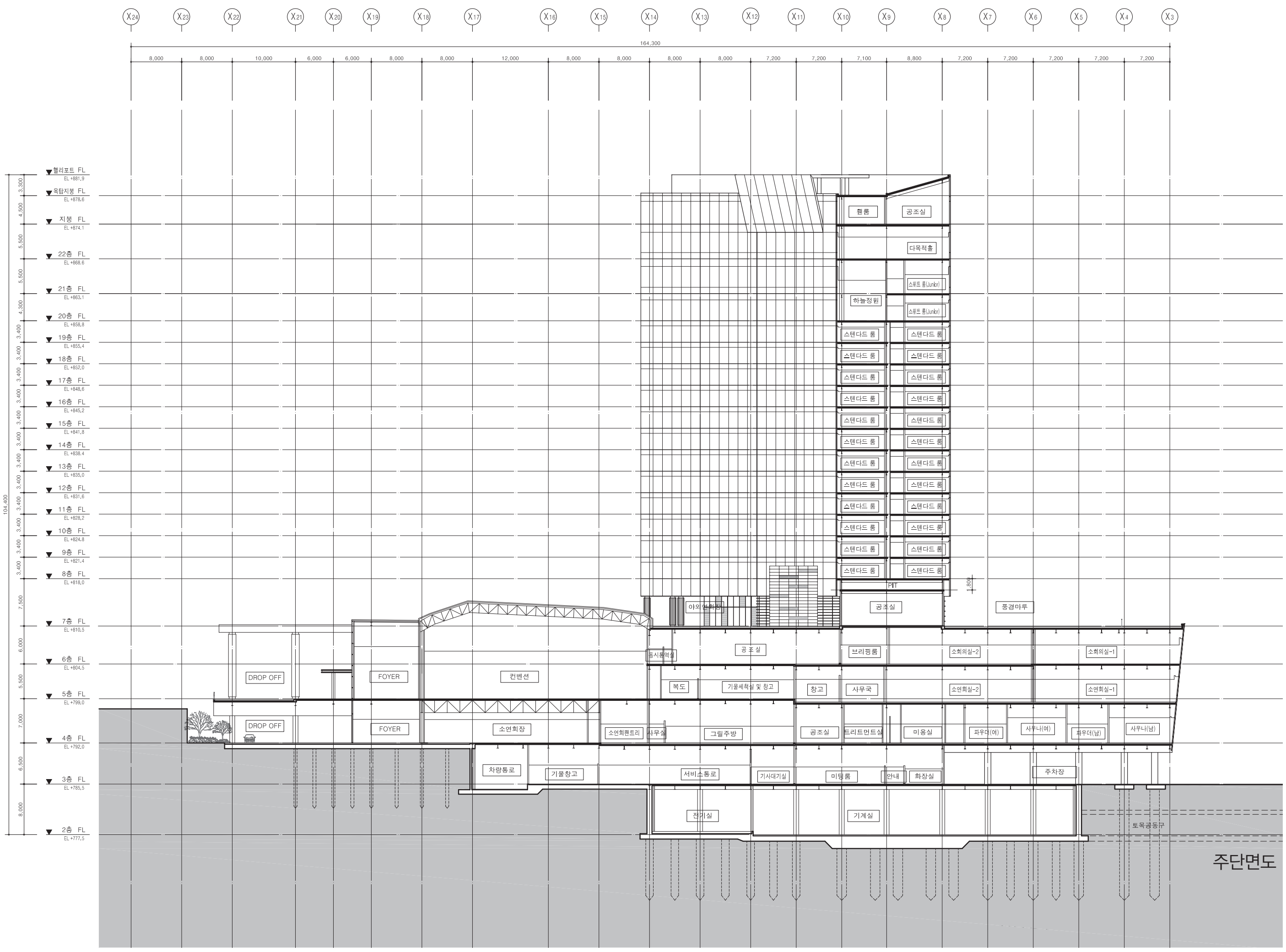

164,300
7,200
7,200
7,200
7,200
7,200
8,800
7,100
7,200
7,200
8,000
8,000
8,000
8,000
12,000
8,000
8,000
6,000
6,000
10,000
8,000
8,000
공사범위
토목/조경
건축
주차통로
주차장
출입구
직원주차장
서비스차량
출입구
OPEN
증축
기존
기존호텔
연결출입구
직원
5,750
5,525
11,400
8,800
7,100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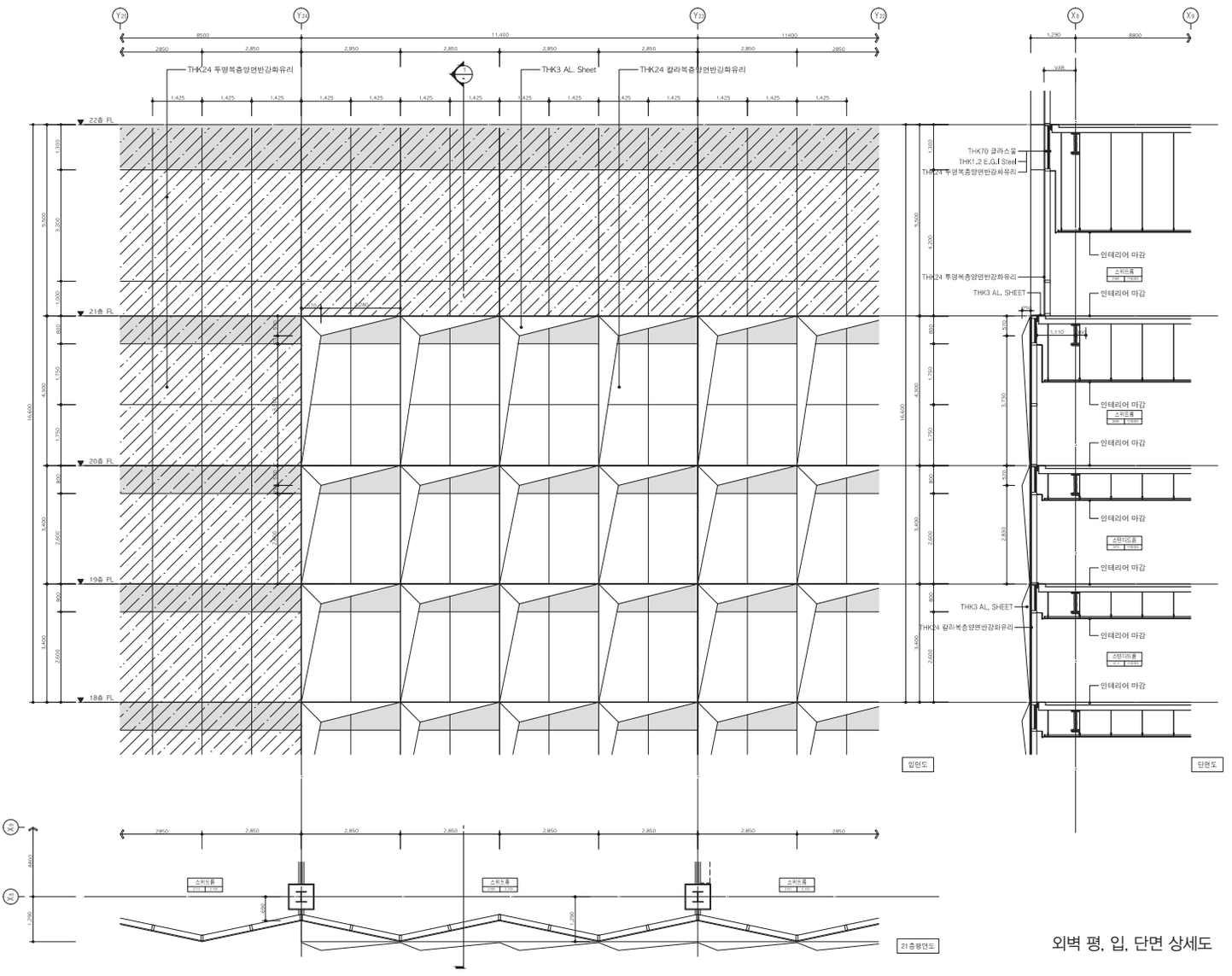

2층(상부) 평면도
축척 : A1-1/300
A3-1/600
7,200
8,000
증축
기존
11,400
11,400
11,400
5,700
7,100
8,800

2층 평면도


THK1.6 이언도 불소수지강판
THK2.3 이언도 불소수지 강판
THK0.7 이언도 불소수지 강판(SLT-500)
THK3 AL. SHEET
강화유리난간
THK3 AL. SHEET
워드지
THK0.7 AL. SHEET
THK24 칼라복층유리
AL. 판넬
THK6 칼라반강화유리
AL. 그릴
AL. 판넬
THK24 칼라복층유리
THK24 칼라복층유리
(젤연 : Milky Glass)
북측면도



주단면도


THK24 투명복층양면반강화유리
THK3 AL. Sheet
THK24 칼라복층양면반강화유리
22층 FL
21층 FL
20층 FL
19층 FL
18층 FL
THK70 클라스울
THK1.2 E.G.I Steel
인테리어 마감
스위트룸
입면도
단면도
21층평면도

외벽 평, 입, 단면 상세도

달성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노인회관 _당선작

DALSEONG COMMUNITY HEALTH SUPPORT CENTER & SENIOR CENTER

발주자 : 달성군청

설계자 : 이대섭 KIRA | ㈜우리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최철규, 박성수, 김성호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267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1,164 ㎡
건축면적	673.10㎡
연 면 적	1,889.23㎡
건 폐 율	57.83%
용 적 률	148.60%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요마감	세라믹타일, 알미늄복합패넬, 로이복층유리

기본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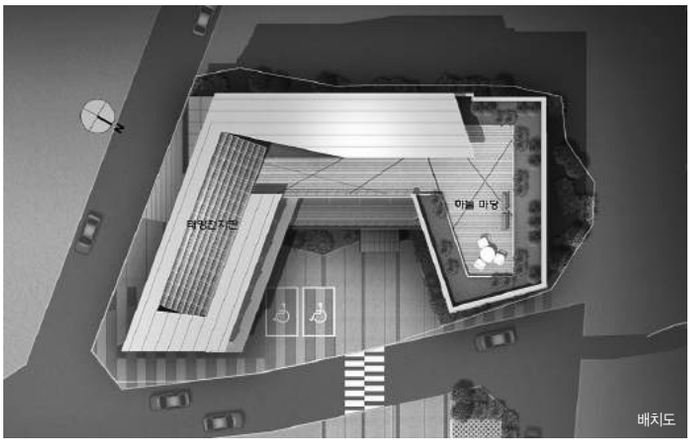
-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지역민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과 노인회관 기능의 복합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충족
- 주민의 일차적인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에서의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지역사회의 보건 및 여가공간으로써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열린 공간계획
- 지역주민과 교감하는 공간계획 및 상징성을 고려한 랜드마크형성

배치계획

- 대지의 주변현황과 인접시설, 외부공간, 조망, 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배치계획
-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
- 오픈스페이스를 향해 열린공간구성 및 외부동선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평면계획

-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원활한 동선연계로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 공간의 성격 및 프로그램을 고려한 기능별 조닝계획(층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동선체계 확보) 및 동선체계 확보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고려한 평면계획
- 보건사업공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구성과 내부공간의 융통성 확보
- 진입동선과 주차장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출입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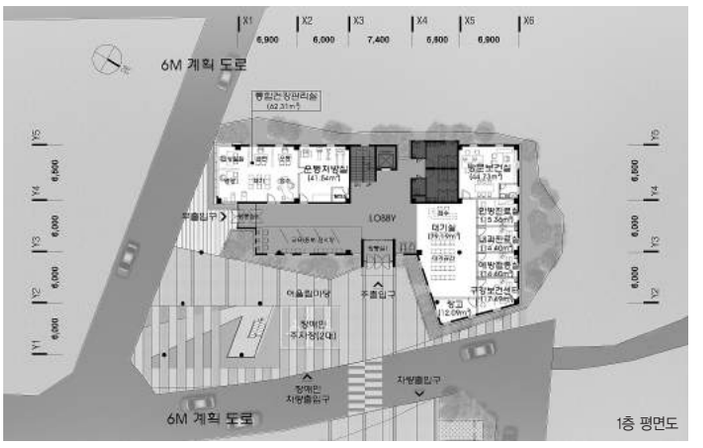
배치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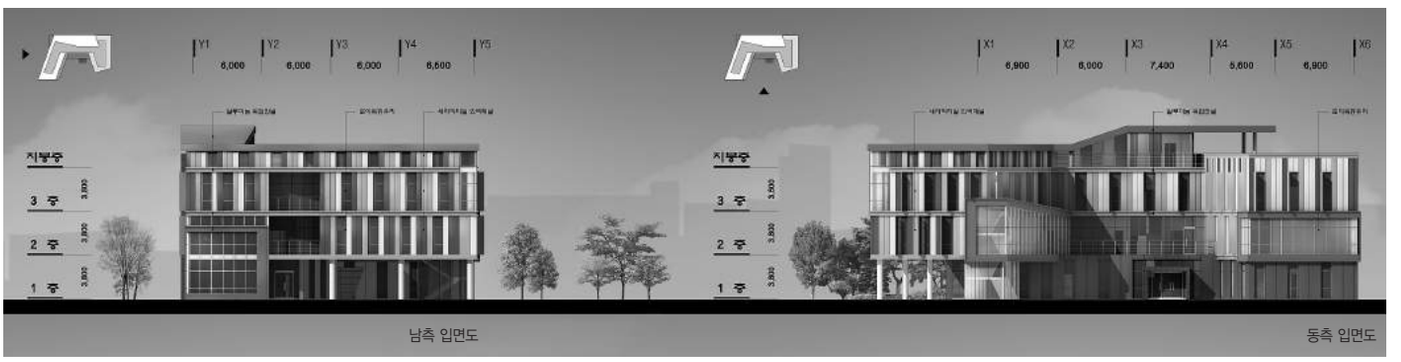
단면 계획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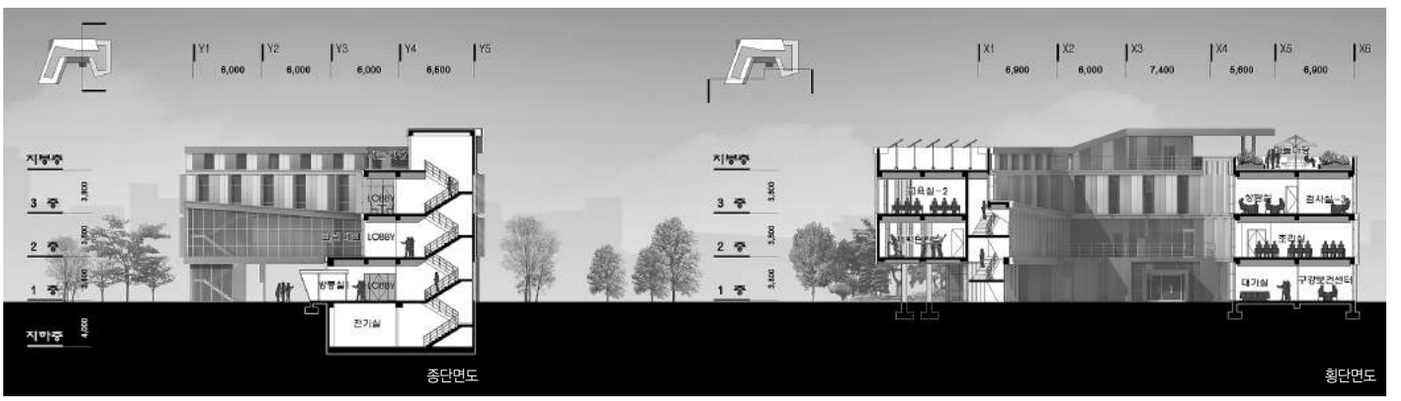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달성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노인회관 _가작

DALSEONG COMMUNITY HEALTH SUPPORT CENTER & SENIOR CENTER

발주자 : 달성군청

설계자 : 정일식, 공봉극 KIRA | ㈜위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진영, 김희림, 이현정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영남구조
– 기계/전기 : 세웅설비/정이엔지
– CG : 기즈모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267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1,623.00㎡ (신축부지:1,164.00㎡, 부설주차장부지:459.00㎡)
건축면적	698.30㎡
연 면 적	1,869.26㎡
건 폐 율	59.99%
용 적 률	144.4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목재루버, A.L복합패널

계획개념

누리정(累利庭)_여럿이 이로울 곳.
마을에 있는 여럿을 이롭게 해주는 건강지원센터로, 주민에게 불편한 공공시설이 아닌 따뜻한 공간으로 소통될 수 있는 장소로 제안하였다.

- 아름다운 정신과 건강한 삶이 있는 치유공간
- 지역사회의 복지와 소통되는 열린공간
- 지역주민과 자연이 하나되는 공간
-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배우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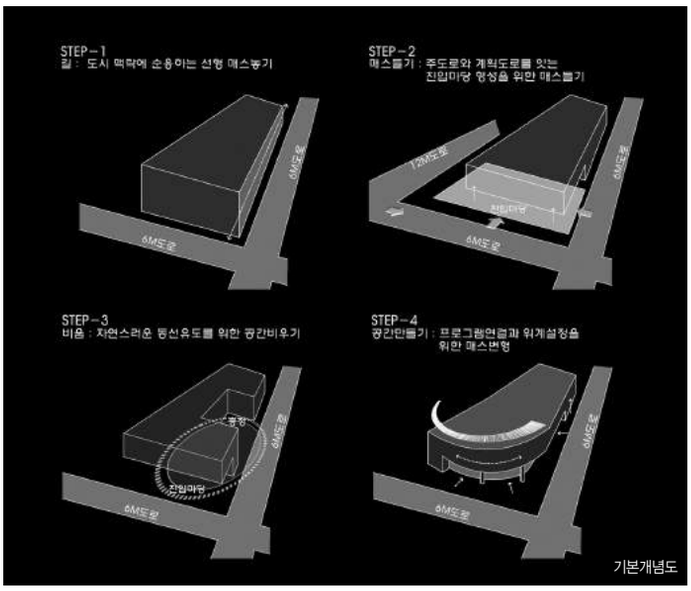
배치계획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요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각각의 성격에 맞게 보건영역, 교육영역, 공용영역으로 조닝하였고, 중정을 통해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대지주변의 대방산으로 조망과 녹지흐름을 열어줌으로써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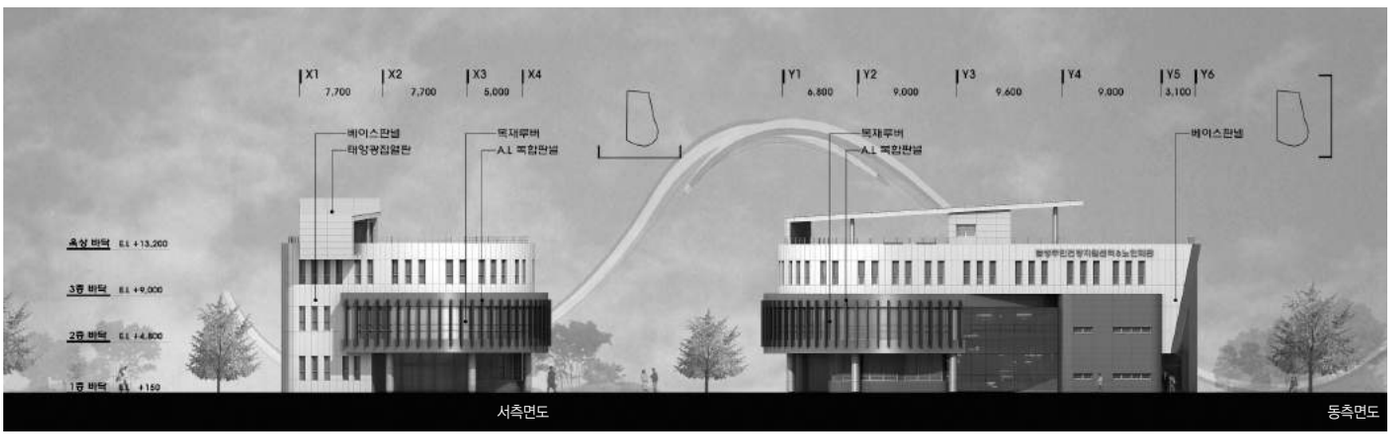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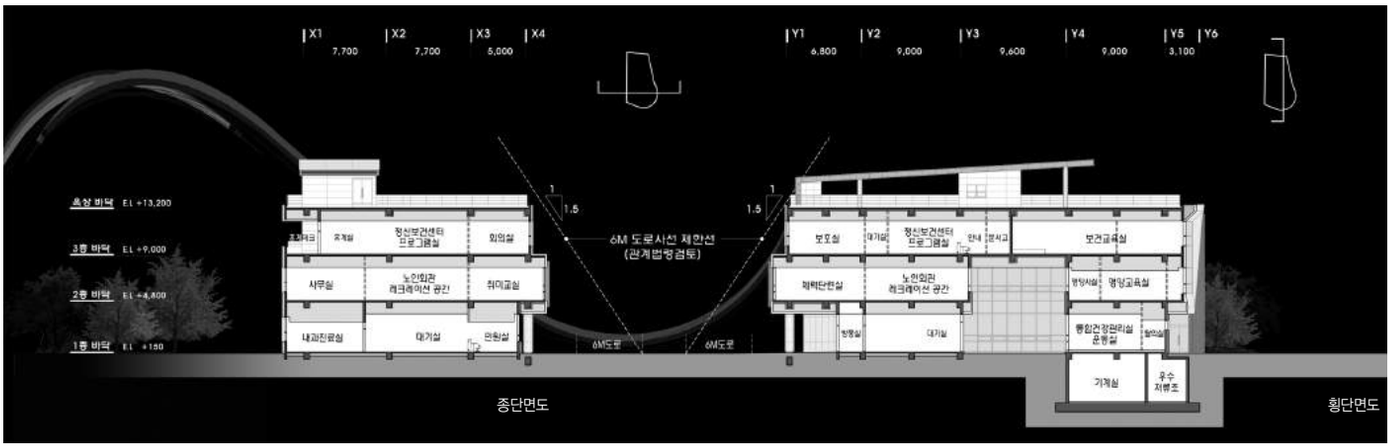
장래에 대비하여 가변적이고 지속가능한 평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계획하였다. 내부 공간에 개방감을 형성하는 중정은 동선의 다양성을 고려하였고, 각 층의 주용도 영역을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평조닝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STEP-1
길 : 도시 맥락에 순응하는 선형 매스띄기
STEP-2
매스틀기 : 주도로와 계획도로를 잇는 진입마당 형성을 위한 매스틀기
STEP-3
비움 : 자연스러운 동선유도를 위한 공간비우기
STEP-4
공간만들기 : 프로그램연결과 위계설정을 위한 매스변형
6M도로
12M도로
진입마당
중정
기본개념도

지상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베이스판넬
태양광집열판
목재루버
AL 복합판넬
옥상 바닥 EL +13,200
3층 바닥 EL +9,000
2층 바닥 EL +4,800
1층 바닥 EL +150
서측면도
동측면도


6M 도로사선 제한선
(관계법령검토)
6M도로
종단면도
횡단면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The procedure and incentive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왕정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부원장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1월 1일 출범한 이래 약 3,000여건에 달하는 인증실적이 달성되었으며 이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내년 2월 23일에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기본 절차 및 주요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우선 그 인증대상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여러 용도가 복합된 경우 복합건축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소형주택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도 금년도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은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인 경우가 해당되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여서 기존 공동주택과 기존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그 인증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지만 부지 내 증축인 경우 기존 건축물과 구분하여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인증 범위를 정하여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시기는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건축준공 단계에서의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본인증이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예비인증의 경우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며 본인증의 경우는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점검이 수반되어 진행된다.

평가부문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며 에너지절약과 같은 필수항목이 있어 반드시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기관의 심사 및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가 확정되며 인증 등급은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기간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40일이며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에 따른 인증신청자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증비용은 예비/본인증, 연면적, 평가항목 수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예비인증의 경우 대략 500만원~1,000만원 사이에 책정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이 있다. 그 밖에 설계자에게 인증 설계별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비를 일정비율로 가산해주며 시공자에게는 PQ 가산점 부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인증수수료 환급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민간건축물과 달리 공공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경우 인증 의무 대상이며 특히 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인 경우는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국토해양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운영위원, 한국생태건축학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의위원 및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주요 인센티브 현황

항 목	세 부 사 항	비 고
취 · 등록세 감면	15%(최우수등급+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5%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재산세 감면	15%(최우수등급+에너지효율 1등급)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50%(최우수등급) ~20%	
건축규제 완화	12%(최우수등급+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4%	
인증설계별 대가 추가산정	9.5%(최우수등급 인증) ~8%	
PQ 가산점	1점(최우수등급), 0.5점(우수등급)	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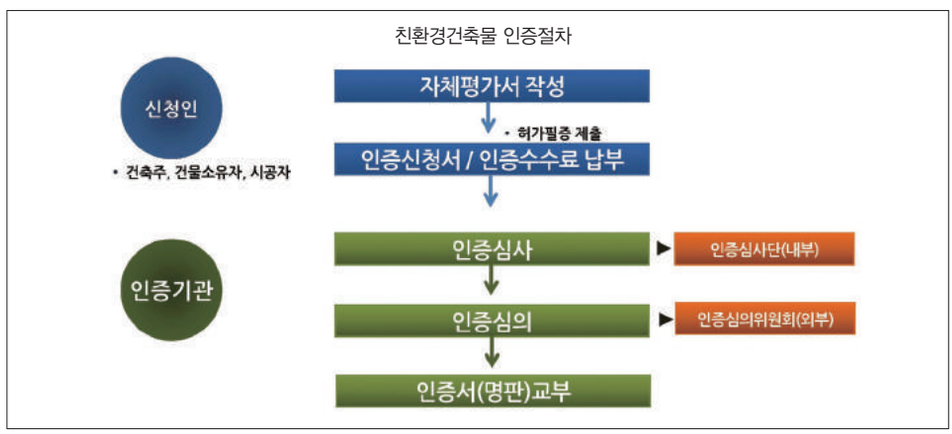
내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9개 평가부문 및 세부 기준의 조정, 인증절차의 개선 등이 예상되며 관련 유사제도와의 통합 등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건축물 평가사 제도 등도 신설되어 인증저변의 확대 및 녹색건축물의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그동안의 초기 도입과정과 최근 몇 년간의 도약을 거쳐 본격적인 확대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초기부터 평가기준 작성 및 제도 출범에 관여해 온 필자는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전파되기를 기대해본다.

판교 아펠바움(본인증)

중앙대학교 기숙사(예비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현재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취등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Exceptional supports for whom subjected under migration policy and paying for basic household equipments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풍동 3, 5통은 2000. 10. 25.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풍동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고양풍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주공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을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6. 22. 피고에 대해 특별공급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공급가격과 조건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통지한 다음, 2004. 6. 28. 피고와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주어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주택을 공급할 경우)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파트분양계약은 택지의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를 합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판결의 요지

(1)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조건과 같게 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항소심(제2심)에서 원고들은 2007. 2. 21.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제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은 원고들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특별공급)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써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의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범위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신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다만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1다5778 판결 등)에 따라 원고 전부 승소로 판시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로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었다.

3. 판례 평석

(1) 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을 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법관 김능환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을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2)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범위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 포함된다는 판결(민사 제11부, 2012나523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 이윤을 포함한다는 판결(민사 제9부, 2011나11346), 일반분양가,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민사 제23부, 2012나13882)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신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바,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생활기본시설의 내용과 범위 및 계산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개항과 조선의 변화

Encountering the Westen and Joseon's New Venture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개항으로 조선은 세계의 질서에 편입되었고, 조선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했다. 이전 시기까지 중국과 가까이 하고 일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왔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외에 서구 여러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 첫 시작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修信使)와 청국에 파견된 영선사(領選使) 그리고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報聘使)였다.

일본국과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전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했던 조선통신사가 조선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데 반해, 수신사 파견은 조선이 일본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었다.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사는 1876년, 1880년 그리고 1882년에 걸쳐 세 차례 파견되었으며, 수신사들은 일본의 서구화된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의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1876년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김기수는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를 남겼고, 1880년 김홍집 역시 수신사일기를 남겼으며, 1882년 3차 수신사였던 박영효는 사화기략(使和記略)을 남겼다. 수신사로 다녀온 이들은 우리보다 서양에 대해 문호를 먼저 개방했던 일본이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이는 곧 중국과 달리 성공적으로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일본이 조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신사외에 1881년 일본에는 조사시찰단도 파견되었다. 이른바 신사유람단으로 불렸던 12명의 고위관리가 이끄는 64명의 시찰단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에 체재하면서 도쿄 · 오사카 등에서 문교 · 내무 · 농상 · 외무 · 대장(大藏) · 군부 등 각 성(省)의 시설과 세관 · 조폐 등의 각 분야 및 제사(製絲) · 잠업 등에 이르기까지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시찰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던 사람들은 1882년 1월에 통리기무아문 각사의 개편 때 각각 자신이 맡았던 조사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였다

청국과 영선사

청국에는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영선사는 1881년 청국의 근대식 병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파견되었던 유학생을 인솔하는 사신이었다. 김윤식을 필두로 유학생 20명, 기술자 18명 등 모두 83명이 파견되었으나 임오군란이 발생하여 중도에 귀국하였다.

당시 유학생 파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앞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고종의 강한 의지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정부가 중국으로 유학생 파견을 추진하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도 도입을 권유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선정부는 실리적인 중립적 입장을 취해 중국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중국에 파견된 유학생들은 1882년 1월 8일부터 톈진기기국(天津機器局) 동국 · 남국에 배속되어, 화약 · 탄약 제조법, 기계조작법 등 근대적 군사지식뿐 아니라 자연과학 · 외국어 등도 학습했으나 임오군란으로 6개월여 만에 귀국함에 따라 무비자강(武備自强)의 목표는 완수되지 못했다. 1883년 5월에 착공하여 1884년 5월에 준공된 삼청동의 번사창(蠜沙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호)[1]은 영선사의 성과였다.

미국과 보빙사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외교와 통상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 맺은 첫 통상조약에서 관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함에 따라 불평등한 통상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관세제도를 확립하고, 새로운 관세제도에 따라 이전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조미통상조약으로 내한한 미국 푸트(Foote. L.H)에 대한 답례와 양국 간 친선도모를 위해 파견된 사절이 보빙사다.

보빙사는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부대신에 홍영식(洪英植) 그리고 서광범, 유길준, 고영철, 변수, 현흥택, 최경석 등과 중국인 우리탕(吳禮堂)[2], 일본인 미야오카 츠네지로(宮岡恒次郎)[3], 미국인 퍼시벌 로웰(Pervival L. Lowell)[4]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1. 보빙사 일행, 앞줄 가운데가 민영익이고, 왼편에 홍영식과 서양인이 퍼시벌 로웰 그리고 오른편에 서광범과 우리탕이 앉아있다.

7월 26일 인천을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9월 18일 미국대통령 아서(Arthur C. A.)를 접견하였으며 40여 일 동안의 미국거류 기간 중에 외국박람회 · 공업제조회관 · 병원 · 신문사 · 조선공장 · 육군사관학교 등을 방문 시찰하였고, 미국 정치와 농사 개량에 대한 지식도 배웠다. 홍영식 등은 귀국하였으나, 민영익. 서광범, 변수는 유럽을 거쳐 서구의 신문물을 직접 관찰하였고,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갑신정변의 발발 때까지 유학하였다.

그림2. 보빙사로 파견된 민영익이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기위해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모습, 출처: 뉴욕타임즈 1883년 9월 18일

보빙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서구식 우편제도의 도입, 육영공원을 설치하였고, 특히 농무목축시험장과 경작기계의 제작, 수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보빙사 파견은 개신교의 국내 전래의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 남아 거버너 더머 아카데미(Governor Dummer Academy)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한 유길준 1884년 12월 4일의 갑신정변으로 2년여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갑신정변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구금되었으나, 구금기간 동안에 귀국길에 서구 각국을 돌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행문 형식의 개혁의지를 담은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하였다. 서유견물을 통해 유길준은 서양의 근대문명을 한국에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개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실학의 통상개국론, 중국의 양무 및 변법론, 일본의 문명개화론, 서구의 사회계약론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입헌군주제도의 도입, 상공업 및 무역의 진흥,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김옥균의 치도론(治道論)과 근대도시계획의 태동

1876년 개항이후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보내 그들의 앞선 문물을 견학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은 김기수의 일동기유와 수신사일기, 박영효의 사화기략, 유길준의 서유견문 등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은 김옥균의 치도약론과 치도규칙이다.

1) 번사(蠜沙)란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용액을 부어 주조한 용기에 화약을 넣은 것으로, 폭발시킬 때 천하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빛은 대낮처럼 밝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dpppedia

2) 청국의 외교관출신으로 인천해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다

3) 영어에 능했던 일인으로 로웰의 비서 역할로 보빙사의 일원이 되었다.

4) 미국의 수학자이자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기도 하다. 조선과 일본을 미국에 소개했다. 일본 여행중 주일미국공사의 요청으로 조선의 보빙사를 미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로웰은 188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김옥균은 일본에서 머물면서 제3차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 김만식과 일본의 근대적 도로체계에 관해 논하던 중 박용효와 김만식의 요청을 받아 치도약론과 치도약칙을 작성했다. 이 책은 박영효를 통해 국왕에게 바쳐졌으며 1882년에 설립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치도약론은 서론, 치도약칙(또는 치도규칙)이 본론에 해당된다.

그림3. 김옥균의 치도규칙

김옥균은 서론인 치도약론에서 '요즈음 세계정세는 크게 변하여 만국이 서로 통하고 있으므로 화륜선이 동서해양을 누비고 다니며 전선(電線)은 온 지구를 이리저리 엮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광을 개척해서 금은을 캐고 석탄과 철도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드는 등 일체가 인민생활에 날로 쓰이는 편리한 곳들로써 손꼽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진제국의 긴절하고 중요한 정책을 찾아보면, 첫째가 위생이요, 둘째가 농상(農桑)이요, 셋째가 도로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들 세 가지는 아시아 성현들의 정치하는 방법과 비교해 봐도 또한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옛날 춘추시대에는 남의 나라에 사절로 가게 되면 먼저 도로와 교량을 보고 그 나라 정치의 잘잘못을 알았다고 하며,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 사람들이 '조선의 산천이 아름다우나 사람의 수가 적어 부강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인축(人畜, 사람과 가축)의 똥과 오줌이 도로에 가득 차 있어서 무섭다'고 한다는 말을 전하며, 위생과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김옥균의 생각에 대해 박영효는 '우리나라의 당면한 급선무는 농상(農桑)을 일으키는데 있으며 농상을 일으키는 요체는 실로 분전(糞田)을 권장하는데 있다. 분전을 부지런히 하면 오예물이 자연 없어질 것이고, 오예물이 없어지면 전염도 역시도 사그라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령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수송이 불편하면 하동(河東)의 곡식을 하내(河內)로 운반[5]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를 잘 닦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차마(車馬)를 이용하게 되면 인부 열이 하던 것을 하나가 거뜬하게 해낼 수 있으므로 그 나머지 아홉 사람의 노동력은 공작품(工作品)제작에 종사하게 되면, 지난날 그저 먹기만 하던 사람이 결국 일정한 직업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에게 편리한 것이 이보다 나을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동의했다고 한다.

본론인 치도약칙은 17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생적인 도시 만들기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리의 주요지역에 치도국을 설치하고, 한성부 부윤(현 서울시장)에 맞먹는 본관을 설치하여, 오물을 관리하고, 도로정비를 관리하여 도시의 위생과 미관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위생과 방화를 중심으로 한 김옥균의 치도약칙은 동시대에 세계 각국이 위생을 화두로 도시를 개조하고 가꾸었던 시대적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국가의 경우 산업혁명이후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안전의 첫 번째 조건으로 위생과 방화를 강조한 배경이었지만, 조선의 경우 산업혁명 없이 근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통적인 생산체제 내에서 발생한 위생과 방화의 문제가 배경이었다는 점이다. 김옥균의 주장은 단순히 공중의 위생을 개선하고 안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개입하고 벌칙까지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실천적 제안이었다.

서구에서도 근대도시계획은 산업혁명이후 도시인구의 증가와 환경악화로 인한 공중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중반 나폴레옹3세 치하의 프랑스 파리에서 도로정비와 공원 조성을 중심으로 시행된 대대적인 도시개조사업을 거쳐, 19세기 말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일본을 다녀온 김옥균과 박영효의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정비의 필요성 강조와 실천은 조선의 근대도시 건설노력이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박영효는 한성판윤이 되어 위생국을 설치하여 도로 정비 및 위생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도서기론과 근대산업시설의 도입

조선은 개항이후 유교적 질서(東道)를 지키며, 서양의 우수한 군사 과학기술(西器)을 수용하겠다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자 했다. 동도서기론[6]을 내세우면서도 서양문물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었지만, 외국기술자를 초빙하여 근대적 산업시설인 번사창, 전환국을 건설하고, 전신과 우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서양의 건축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번사창과 무비자강(武備自强)

번사창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근대무기 제조관련 시설이다. 1984년 해체보수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는 '무기를 저장코자 터전을 반석위에 정하고, 쇠를 부어 흙과 합쳐 건물을 지으니

1) 하동과 하내는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중국의 지명이다. 하내가 흉년이 들면 하동의 곡식을 운반하여 구제한다는 고사가 있다.
2) 그러나 동도서기론에서 도(道)와 기(器)는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理)인 도(道)가 우위에 있어 기존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이 더욱 강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림4. 번사창

그림5. 번사창의 지붕구조

이를 번사창이라 하였다. … 중략 … 칼, 창 등 정예한 무기를 제조, 수선, 보관하는 건물은 기예의 으뜸가는 수준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윤치호 일기에는 '1883년 3월 종사관 김명균이 천진의 공장인 원영찬(袁榮燦) 등 4명을 고용으로 데리고 와서 5월 서울의 삼청동 북창(北倉)에 기기국을 설치하고 김윤식, 박정양, 윤태준, 이조연을 총판(總辦)에 임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8월에 김명균이 연대(烟臺)에 갔다가 상해 험취소(驗取所)까지 가서 기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때까지 창사(廠舍)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공도(工徒)들을 독려하여 벽돌과 돌을 쌓게 하였다고 한다. 세워진 창사에는 모래 뒤치는 곳, 쇠붙이 불리는 곳, 목양(木樣, 나무로 만든 성형틀) 만드는 곳, 동모(銅冒) 만드는 곳, 그리고 고방(庫房)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번사창이 청의 근대무기 제조법을 들여오기 위해 청의 기술로 지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번사창은 조선시대에 군기시(軍器寺)의 창고가 있었던 곳에 지어졌으며, 장대석 위에 검은 벽돌로 내력벽체를 구성하고, 출입구에는 화강석 아치와 벽돌아치가 사용되고, 창호에는 목재 상인방과 아치가 사용되었다. 지붕은 서양식 목조트러스로 짜였으며, 전통기와로 덮여졌다.

우정총국과 근대우편제도의 도입

1882년 12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내에 우정사(郵政司)가 설치되고, 일본, 영국, 홍콩 등과 우편물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대적인 우편활동이 시작되었다. 우청총국은 재래의 역전법(驛傳法)을 근대식 우편제도로 고치면서 설치된 기관으로 1884년 10월 1일 우체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7일 우정총국 청사의 낙성 및 개설 축하연을 이용해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킴에 따라 10월 21일 폐지되었다. 근대식 우편제도를 담당했던 관청 건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13호로 보호되고 있다. 근대적 우체업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정면5칸 측면3칸의 한 채만이 남아있다. 현재의 건물은 16~17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 사용되는 약을 제조하고 약재를 재배하던 전의감이라는 의료시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다.

현재의 우정총국은 전통건축의 구법과 공간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편업무가 각종 근대적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우정총국이 개설되었던 1884년이라는 시점이 서양의 건축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은 전통건축을 변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은 우정총국 옛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그림6〉의 건물이 현재의 우정총국과 같은 건물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로 보아 현재의 우정총국과 같은 건물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6〉의 건물이 흥미로운 점은 지붕에 2개의 굴뚝이 설치되어 있

그림6. 우정총국의 옛 모습, 출처:네이버백과사전

그림7. 현재의 우정총국

그림8. 전화국

을 뿐 아니라 외벽이 벽돌벽체와 여닫이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대적 우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비가 필요하고 각종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층고가 높고 기둥 간격이 넓은 관청건물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8〉의 전화국 사진은 〈그림6〉의 건물이 우정총국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위치를 알 수 없는 〈그림8〉의 전화국 사진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전통적인 건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새롭게 건축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건축물의 층고가 일반적인 전통건축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앞에 서 있는 6명의 외국인의 키를 감안하더라도 전화국의 처마 밑까지의 높이는 최소 3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국이 전면 3칸 건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층고는 전화국의 설비를 수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건물의 구조는 목조이지만 벽체는 벽돌로 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주 출입구가 아치로 만들어졌고, 창호도 여닫이 유리창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건축의 벽체구성이나 창호구성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양인에 의해 근대적 전화국 시설이 건축되었지만, 서양건축술을 온전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건축술에 의해 서구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 일어난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우정총국 건물은 내부 천정은 내진 부분을 소란우물반자로, 외진을 연등천장으로 꾸며져 있다. 건물의 남쪽 양 모서리와 북쪽면의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고, 나머지는 사각기둥이다. 정면 가운데 칸에는 두짝문을 내었고, 나머지 칸에는 모두 사분합창을 내었으며, 상부는 모두빛살 고측창이 설치되어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단청을 하였다. 무출목 초익공계 건물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합각면은 전벽돌로 처리되었다.

전환국과 근대 화폐경제의 출발점

고종20년인 1883년 화폐의 주조와 발행을 통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각종 화폐의 통일을 목적으로 전환국이 건축되었다. 번사창이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근대적 국방프로젝트였다면, 근대화폐의 주조는 근대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전환국의 설치는 조선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첫 경제프로젝트였던 셈이다.

1884년 원서동에 처음 설치되었던 전환국은 묄렌도르프가 전환국 총판으로 임명되면서 세창양행을 통해 근대적 조폐기기가 수입되었고, 1885년 당시 선혜청 별창(현 상공회의소 위치)에 세창양행이 제시한 설계에 따라 전환국이 신축 이전하였으나, 1892년 인천시 전동 1번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출범 이듬해인 1898년에 군자감 터(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에 용산전환국을 신축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이던 메가다(目賀田種太郎)가 1904년 11월 전환국을 폐지함에 따라 을사늑약으로 정치, 외교주권이 박탈되기 전에 경제주권이 먼저 상실되었다.

서양의 근대기 건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로운 건축유형의 탄생이다. 전환국의 신축 역시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신건축 탄생'이라는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래 건축술'과 구별되는 것은 '창안이 아니라 도입'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도입 과정에서 '전래 건축술'이 '다른 기술'과 접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건축적 변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료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한적이기는 문헌기록과 사진을 통해 최초의 산업건축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선 22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환국의 입지가 3번이나 옮겨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입지는 원서동의 대갓집이었으나 근대적 조폐시설을 설치하기 부적절하여, 곧이어 남대문 근처인 현 상공회의소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공장건축의 입지와 건축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조폐공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해도 궁궐과 가까운 주거지인 원서동은 공장건축의 적지가 될 수 없었다. 재료의 조달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을 도입하면서 기존 건축의 활용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거건축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원서동 전환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해지지 않지만 주택의 층고와 공간의 넓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대문 근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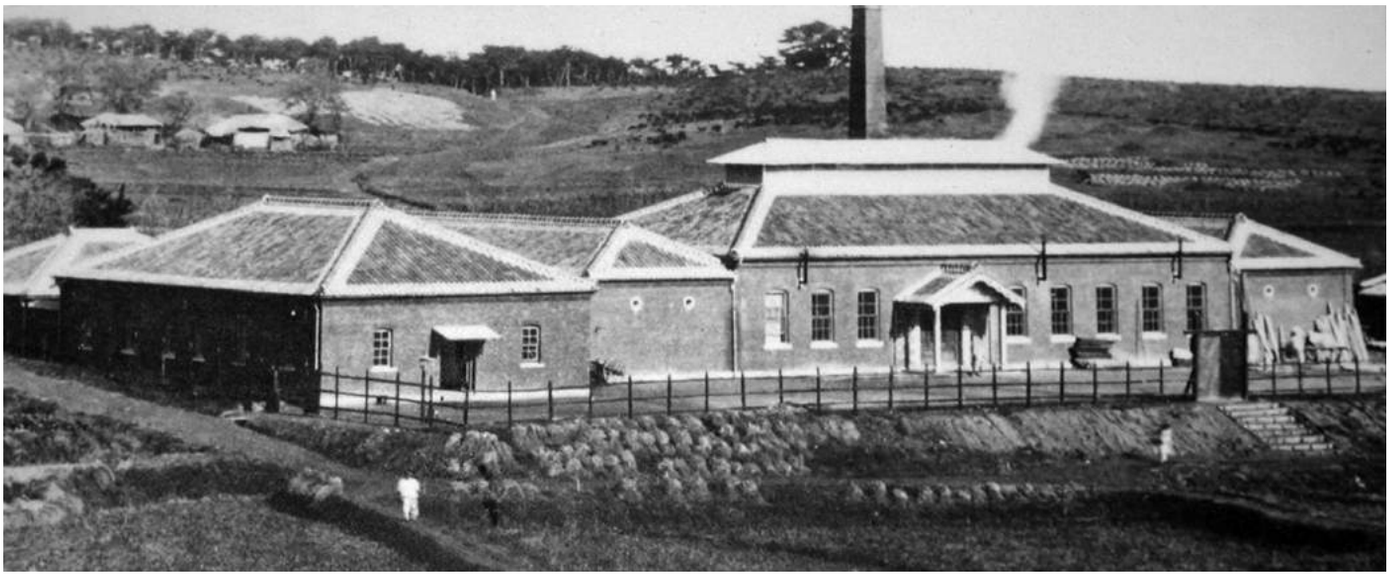


그림9. 인천 전환국 전경

고 할 수 있다.

남대문 전환국은 모두 3동으로 구성되었으며 60척 높이의 굴뚝을 지닌 벽돌집이었는데, 제1동은 기관실, 제2동은 지금실(地金室), 조각실(彫刻室), 칭량실(稱量室), 제3동은 용해(鎔解), 신연(伸延), 극인(極印), 분석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환국의 기능이 3개 동에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기능에 따른 채단위의 공간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92년에는 원료수급의 편이성을 이유로 전환국이 인천으로 옮겨졌는데, 인천전환국은 1,500평의 대지에 3개동의 공장과 3개동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었다.

일본공사관 기록에 의하면 3개 동의 공장은 요(凹)형으로 구성되어 안쪽에 마당이 있고, 그 중간에 출입구 헌간(軒間)이 칭량실 사무소 화폐조사 및 극인실을 겸용하고, 동쪽편 건물은 지금창고 기관실 및 기관실, 서쪽편 건물은 정화(正貨)창고, 여공실, 조각소 및 감찰소가 위치했다고 한다. 그 밖에 원형마실(圓形磨室) 및 단야공실(鍛冶工室)로 사용되는 가가(假家)가 있고, 순검입직소와 잡물장치소, 벽돌로 만든 기와집과 목조주택, 잡창물치소, 관사 및 공장숙소가 있었다고 한다. 공장 주변으로는 '나무말뚝으로 담장을 두르고 매 칸마다 3개의 횡목을 삽입하였으며 사방에 목조문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현존하는 사진과 모습이 일치한다.

사진 속의 공장을 살펴보면, 인천전환국은 경사지에 건축되었으며, 주변에 인가가 없어 공장입지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면적은 시설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내 2개의 우물은 상하수도가 부재하던 시절에 공장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는데, 서울과 달리 강이 없는 인천에서는 공장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우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재 및 생산품의 반출입을 위한 진출입로는 건물 뒤편에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건물은 요(凹)형 공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건물은 벽돌조 내력 벽체에 목조트러스 구법에 의한 지붕구조물로 건축된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1898년에는 신화폐주조계획이 차질을 빚자 인천전환국에 조폐중지령을 내리고, 용산전환국을 새로 신축하였다. 이는 경인철도부설로 원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한제국 출범이후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에 준공된 용산전환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해지지 않지만, 전환국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탁지부 소속의 2등국이었던 전환국을 1등국으로 독립시키면서 직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시설 규모도 800평에 이를 정도로 확장되었다. 한편, 1901년 7월 6일부터 15명의 처녀가 고용되어 제지원료의 정선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외부출입이 금지되어 가사에만 종사해오던 혼전 여인이 공개 작업장에 나와 근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전환국은 수공업적 공업기술 단계를 벗어나 서구의 근대산업기술과 접촉하는 첫 산업건축으로 평가되지만, 러일전쟁이후 근대적 화폐주조 이후에 추진되었던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자주적 근대국가를 계획이 무산되고, 대한제국의 멸망함에 따라 소멸되었으며, 강제병합이후에는 인쇄국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전환국과 우정총국의 설치 그리고 도시개조 사업의 시작은 조선사회가 서구의 근대기술문명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도였지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점하면서,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시도는 무산되었다.

중국 전통건축 답사기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ravelogue

김석환 | 터.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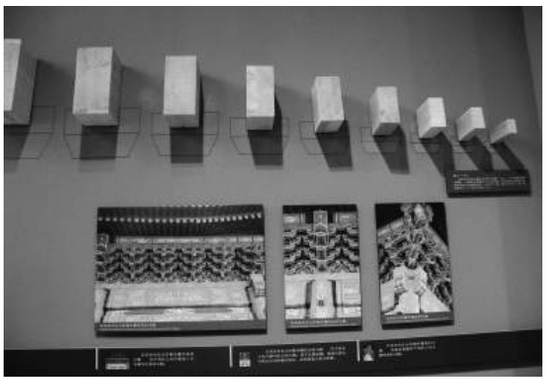
제1일

현재 진행 중인 '한옥인력양과정'에서 2012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의 전통건축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는 이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민, 윤대길 소장과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석환, 김은하, 김종윤, 나정윤, 민경철, 박상민, 윤미섭, 이영선, 정수일, 정현미, 정호영, 조병섭, 천국천 건축사 그리고 사무국에서 허 훈 실장과 빈흥기 팀장 등 17명이 참가했다.

중국 건축은 한국, 일본 등 동양 건축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 바탕위에서 기후와 문화 그리고 지역적 차이에 따라 형성된 우리 고유의 건축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7시 25분 모임장소인 김포공항 2층 인포메이션 센터에 도착해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부치고 나니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 예정 출발시각은 9시인데 앞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어 출발시간을 넘겨 9시 38분부터 탑승을 하기 시작해 9시 57분 이륙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자 대지가 내려 보였다. 따스

고건축박물관 내부



건물의 척도가 되는 소로 전시물

고건축박물관 스케치

한 햇살이 대지에 산란하여 마치 봄이 올 때처럼 땅기운이 느껴졌다.

11시 40분 북경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은 한 시간 이른 10시 40분이었다. 공항을 나서자 가이드인 황일만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조선족으로 연길에 사는데 가이드 경력이 20년 정도 된다고 했다. 북경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4개의 순환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둘러치고 있는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제 4 순환도로라고 했다.

북경(北京)

북경은 동서 177㎞, 남북 155㎞의 면적 17,900㎢이다. 허베이(河北)성 중앙부에 위치하며 중앙정부 직할시로서 광대한 허베이 평야의 북부에 있는 거대한 분지형 도시이다. 그리고 약 700년간 거의 중단 없이 중국 수도의 자리를 지켜온 베이징은 산시성(陝西省)의 장안(長安)과 허난성(河南省)의 뤄양(洛陽)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수도의 지위를 지켜온 고도이다.

북경 주변지역은 선사시대에 최초의 인류들이 살고 있었다. 1918~39년, 5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북경 원인과 5만 년 전에 생존했던 상동인(上洞人)의 화석이 북경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저우커우뎬에서 발견되었다.

현재의 북경은 모든 면에서 수도로써의 위상을 갖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선발이나 인맥 모든 면에서 북경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비해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1시 20분 식당에 들러 오리 요리로 점심을 먹고 12시 50분 고건축 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이드가 제2순환도로를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 차량이 많이 붐볐다. 현재 북경은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가다보니 우측에 강이 보였다. 그것은 쿠빌라이 칸(1215~94)이 1278년 대도(大都)를 만들 때 건설한 길이 1,178km의 인공 수로로써 양쯔강 이남의 지역에서 공물로 걷어 들인 쌀을 베이징 성 안의 새로운 인공호수까지 운반하기 위해 운하(통후이, 通惠)를 파서 대운하와 연결시킨 것이다.

고건축박물관

천단공원 남단을 지나 13시 35분 고건축박물관에 도착했다. 이곳은 선농단이 있던 곳으로써 2002년 리모델링을 해서 고건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장권을 사고 박물관 안으로 돌아 들어가니 커다란 전통건축양식 건물의 정면이 보였다. 그 주변은 커다란 노거수 등이 원림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중앙부 천정에 둥글게 용이 조각되어 있었다. 거기서 문이 열려 보이는 안쪽에는 사면에서 건물이 둘러친 중정이 놓여 있었다.

일행이 들어서자 인상 좋은 박물관 여 학예사 분이 나와 안내와 설명을 해 주었다. 그 곳은 중국 건축의 역사적 시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모형과 사진 자료 등을 주제와 연대순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궁궐 사찰 등 다양한 건물의 모형들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쪽 건물을 보고 중정을 지나 맞은편 건물로 들어서니 거기에는 건축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 그리고 도시와 사찰의 사례, 구법의 변천에 관한 내용이 주제 별로 잘 전시되어 있었다. 커다란 그 건물 내부를 올려다보니 잘 짜인 지붕 가구가 노출되어 보였다. 다시 마당을 나가 좌측 건물 끝 모서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사합원 등 주거 건물이 전시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황릉과 그 구조에 관한 자료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시 중정으로 나와 맨 처음 들어선 건물에서 전시도록을 사고 15시 3분 박물관을 출발해 천단공원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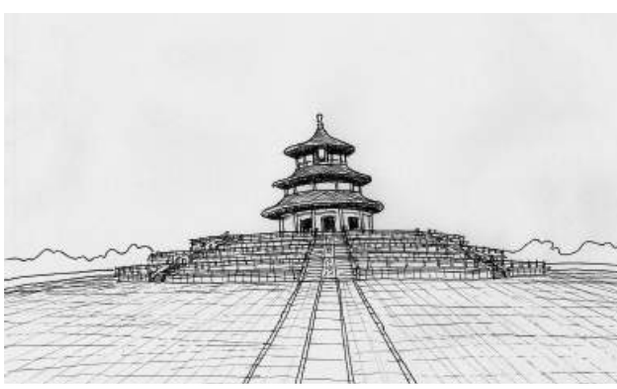
천단공원

15시 15분 천단 공원 근처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천단공원은 90만평 부지에 원구단 황궁우, 회음벽, 기년전 등이 차례로 중심축선 상에 놓여 있다. 자금성에서 보면 남동에 천단, 남서에 선농단 동쪽에 일단 서쪽에 일단, 동쪽에 지단이 위치한다.

천단공원 맨 앞쪽에 위치한 원구단(圓丘壇)은 공원 남천문(南天

천단공원 내 천단(天壇)

황궁우



기년전 스케치

門) 입구 근처에 있는데 1530년에 만들어졌다. 바깥쪽의 4각담장과 안쪽의 둥근 2중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원형의 3단 대리석 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지인을 상징한다. 원구단의 한가운데에는 황제가 기도를 올리는 원심(圓心)이라는 둥근 대리석 판이 있는데 거기서 손뼉을 세 번 치고 하늘을 행해 통찬하고 외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

원구단을 지나 북쪽 축선 상에 보이는 황궁우(皇穹宇)는 역대황제의 위패를 모셔 둔 곳이다. 명의 가정(嘉靖)황제 시대에 세워지고, 그 후 청의 건륭황제 시대에 재건되었다. 황궁우에서는 회음벽이 유명한데 천단공원 축선 상에 있는 가운데 길 앞부분 판석에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되돌아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단공원의 맨 뒤쪽에 있는 기년전(祈年殿)은 이곳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행한 곳으로 3층의 원형 기단 위에 세운 높이 38m, 직경 30m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의 외부는 위로 점차 줄어드는 3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단일 공간으로 천정까지 툭 트여 있는데 대들보나 마룻대를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천정 돔을 받치는 안쪽 4개의 높은 기둥이 있고 그 주위에 12개씩의 원주가 2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꽃무늬가 그려진 4개의 용정 주는 4계절을 나타내고 안쪽의 12개는 1년의 12개월, 바깥쪽의 것은 12간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내외합계 24개의 지붕기둥은 24절기를 나타내고 있다.

5시 10분 천단동원을 현지식으로 저녁을 먹고 7시 10분 숙소인 사합원 호텔로 출발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북경가로의 야경을 보며 지났는데, 무술학교 간판이 보이자 가이드가 자금성 및 산해공원 무술학교 이연걸도 이 곳 출신이라고 했다.

사합원 호텔

대로변에 내려 우측 골목길로 접어들어 숙소인 사합원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골목을 걸어가다 보니 사합의 대문과 식당, 상가들에 설치된 원색의 네온사인 간판과 장식 등이 반사되어 조금 현란한 가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리 풍경을 찍으며 가다보니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 겨우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중국 전통건축 답사 일정 중 사합원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제2일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세면을 하고 골목길을 오가며 스케치를 하다 다시 숙소로 돌아봐 보니 일행이 식사를 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급히 식사를 하고 짐을 들고 나오다 다시 이곳 저곳을 돌아보았다. 일행이 묵은 사합원 호텔은 전형적인 3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문은 동남쪽에 모서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처럼 3진으로 구성된 사합원은 전원 원자 후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문을 들어선 전원 영역에는 손님이나 하인들의 거처가 위치한다. 거기서 가운데 중정인 원자로 들어서는 전면에 보이는 벽이 영벽인데 그 중앙에 있는 문은 수화문(垂華門)으로 '二門' 또는 '내분'이라고도 부른다. 수화문은 대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대문이 동남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중요성이 작아진 대신 수화문이 주택의 중심축선에 자리해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8시 40분 사합원 숙소를 나와 거리를 지나 대로로 나왔다. 가다 몇 분이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느라 버스 타는 곳으로 늦게 도착하여 9시 30분 버스를 타고 자금성으로 향했다. 사합원 골목길에서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아침 차량이 분주했다.

자금성

자금성을 관람하기 위해 맨 바깥문인 전문 근처 도로를 조금 지나 내리니 앞쪽에 모택동 미라 기념관 등이 보였는데, 광장에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도로에 내려 지하도를 건너 천안문 광장 쪽으로 잠시 걸어갔다.

사합원호텔의 전원과 수화문

사합원호텔의 중원(원자) 부분

사합원호텔의 후원부분

자금성이란 이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우주론에서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동서로 760, 남북으로 960m, 담장높이 11m, 둘레길이 4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써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중국을 다스렸던 곳이다. 800채의 건물과 일명 9,999개의 방(실제로는 8,707칸이라고 한다.)이 배치되어 있다.

도성의 축조 원칙을 밝힌 주례고공기의 천자오문 제후삼문(天子五門 諸侯三門)의 원칙에 따라 자금성은 오문을 통과해 정전인 태화전에 이르게 되어 있다. 현재는 그 중 제3문 대명문 자리에 모택동 주석의 미라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고 천안문이 제4문이다.

오문 안으로 들어가니 태화문 광장이 나왔다. 태화문 앞에는 금수하(金水河)가 흘러가도록 해 놓고 그 위로 걸린 5개의 흰 백옥석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상 세계로 들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 했다.

태화전 뒤에 있는 중화전은 태화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황제가 휴식하고 의식을 준비하던 곳이고 보화전은 명나라시기 황제가 예복을 바꿔 입던 곳으로 과거를 시행하기도 했다. 경운문을 지나 봉선전 현판이 걸려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그 곳은 현재 황실에서 받은 수많은 시계들을 전시하는 시계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 곳을 보고 나와 다시 중심 축선 상에 위치한 건청궁 영역으로 들어서서 건청궁–교태전–곤녕궁을 차례로 지나 후원을 둘러본 다음 후문인 신무문으로 자금성을 나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금성 뒤에 있는 경산에 올라 자금성을 바라보고 식당으로 이동해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45분 오후 일정으로 사합원 개조 및 사례 탐방을 위해 식당을 출발했다.

사합원거리

2시 15분 남라고항 역사문화지구 사합원 지역에 도착했다. 대로변에 내리자 청화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신혜원 씨가 마중을 나와 안내를 해 주었다. 함께 안으로 조금 걸아가다 보니 전통가로의 입구가 나왔다.

그 안쪽을 보니 붉은 등이 여러 개 걸려 가로를 장식하고 있고 가로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가판대 시설이 보였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서울의 인사동 거리 같은 느낌이었다. 중심 가로를 따라 안쪽으로 가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발길이 부딪쳤다.

길을 따라 이 곳 저곳 걸으며 가로풍경을 느끼고 사합원 대문 안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반듯한 사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신혜원 씨가 반듯한 곳으로 안내한 곳이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제백석 고택이어서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바깥마당을 거쳐 중문 안으로 들어서니 사방의 건물에 둘러싸인 너른 마당이 나왔다. 사합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형 주택으로서 중정을 중심으로 4채의 건물이 ㅁ자형으로 둘러치고 있는 가옥 구조를 의미하는데 그 구조가 내향성과 폐쇄성, 위계성, 대칭성 등을 가진다. 그리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안쪽의 남향으로 위치한 건물이 주인이 쓰는 정방(正房)이고 그 좌우 건물이 아들들이 쓰는 상방(廂房), 그리고 아랫부분이 손님과 하인이 거처하는 도방(倒房) 또는 도좌방(倒座房)인데 그러한 사합원의 가옥 구조는 중국의 가족제도 및 종교, 사회, 문화 그리고 도시의 방형의 가로 조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곳을 나와 개조중인 사합원을 들러 보았다, 바깥 도로에 면한 건물을 상가나 식당으로 개조하고 있는 듯 했는데 골조만 두고 벽을 철거한 다음 유리 접이문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전면의 건물이 개조됨으로써 전통적인 중정의 느낌은 사라지게 될 듯 했다.

제3일

청화대 건축관

호텔서 조식을 하고 9시 15분 청화대에 도착하니 그 곳 건축과 박사과정에 있는 백소훈 씨가 나와 안내를 했다. 그는 논문을 다 마치고 이번학기에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긴 축선 상에 펼쳐 보이는 자금성 일우

자금성 태화전

경산에서 바라보이는 자금성 전경

북경 남라고항 사합원가로 모습

제백석 고택의 제백석 동상

제백석 고택의 중정 모습

일행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백소훈 씨가 그곳이 자신의 지도교수인 왕귀상(王貴尙 1950~) 교수 연구실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자료를 통해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설명을 담당할 시덕화 씨를 소개했다.

소개 받은 시덕화 씨가 최근 몇 년간 연구실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설명해 주었다. 중국의 전통 건축 사업은 리모델링이나 문화재 일은 별로 없고 새로 짓는 신도시, 사찰, 도관 등 지역과 유형이 다양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원래 있던 터이거나 복원 사업이면 시대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해서 그 시대 양식을 적용한다고 했다. 또 발주자가 어느 시대 양식을 주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청화대 사합원

12시 45분 청화대 내에 있는 사합원에 도착하니 관리 직원이 나와 확인을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입구에서 잠시 안쪽을 바라보니 마치 서양의 장원처럼 큰 나무가 중앙의 길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서 있었다.

이 사합원은 영락제의 동생이 살던 곳이어서 그런지 규모가 매우 컸다. 건물이 사방에서 중정을 둘러친 기본 구조는 일반 사합원과 같으나 넓이가 넓고 회랑과 건물로 구획된 기본 구조가 반복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구법이 격식을 잘 갖추고 있고 정원은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좌우의 너른 마당을 보며 트인 회랑을 오가는 동안 평온하고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원명원

잠시 후 청화대를 나와 식사를 하고 원명원에 도착했다. 원명원은 규모가 매우 큰 중국의 대표적 전통 황가원림인데 17세기에 아편전쟁 기간(1856~60) 1860년에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폐허화되다시피 크게 파괴되었다. 흑고니가 노닐고 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니 안쪽에 전시관 건물이 나타났다. 그 안에 들어가니 모형이 거대한 크기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청화대 건축원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전시관을 나와 다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파괴된 석물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은 미로의 탑이 보였다.

원명원을 끝으로 답사를 마치고 15시에 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비가 계속 내렸다. 중우가 내린다는 예보대로 내리는 것 같았지만 답사를 마쳐서 별 지장이 없었다. 가이드는 앞으로 40시간 비가 내리고 눈도 온다고 예보되었다고 했다. 올해 한번 태풍 온 날 비행기가 결항 한 적이 있지만 이륙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다.

18시 50분 북경공항 출발하여 9시 50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모두 무사히 알찬 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안도하며 인사를 하고 귀가했다.

원명원 전체 모형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는 원명원

원명원의 미로의 탑

사람과 예술, 건축과 자연이 빚어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Naoshima-An art site organized by human and art, architecture and nature

이진경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본 기행문은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들을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번 건축문화대상 해외건축탐방은 오카야마, 나오시마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막연하게 기다린 여행이 하루하루 구체화되었다. 사실, 어렴풋이 일본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2,3일씩 동경과 오사카에만 다녀왔던 나로서는 나오시마라는 지명을 듣고 약간은 당황했었다. 여행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던 터라 부랴부랴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역사미관지구인 쿠라사키와 고라쿠엔 정원, 안도다다오의 건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일정상 안타깝게도 오카야마는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운대로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오카야마의 소소한 풍경들을 바라보는데 만족했다.

우리는 11월 30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서 모였고, 오카야마 공항에는 오후 8시에 도착하였다. 손기찬, 유대근 심사위원님과 대한건축사협회 손석원 기자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9명의 학생들과 유광훈 가이드님까지 13명은 호텔에 도착한 후 어색한 첫 인사와 함께 오카야마에서의 밤을 맞으며 다음날부터 진행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넓은 양철지붕으로 덮여있는
나오시마 페리터미널의 외부공간

2006년 완공된 SANNA의
나오시마 페리터미널

지중미술관 안내센터에서 미술관 설명을
듣고있는 모습

짧은 여행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나오시마는 "안도 다다오의 건물이 많이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이라는 것." 이것이 여행을 가기 전 내가 알고 있던 정보였다. 사실 여행길에 오르기 전까지 나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평소 도시적 이슈가 담긴 공공건축, 새로운 프로그램의 해석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정밀한 프로세스와 새로운 구축방식, 재료로 무장한 현대건축의 흐름에서 기하학적인 매스, 노출콘크리트로 대변되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어딘가 모르게 심심해 보이기도 했다. 일본까지 왔는데 안도 다다오의 건물만 보고가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안일했던 내 생각들은 다음날 나오시마 항에 발을 딛자마자 깨져버렸다.

호텔에서 아침 일찍 빠져나와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15분 남짓 들어간 나오시마. 일정에도 없고 유명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작은 섬마을 나오시마에서 우리를 처음 반겨준 것은 바다의 역(marine st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지마의 건물이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 완공된 나오시마 페리 터미널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적한 겨울 바다와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과 어울리는 소박하지만 근사한 입구이자 광장이었다. 얇은 판과 같은 넓은 양철지붕아래 세지마 특유의 하얀 기둥과 투명한 유리벽으로 인해서 내부는 대기실, 카페, 상점 등으로, 지붕으로만 덮여있는 외부공간은 바다를 향한 의자와 곳곳에 있는 거울벽을 통해 바다를, 또 나오시마의 아름다운 마을을 비추는 열린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마린 스테이션 바로 옆에 나오시마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호박이 보인다. 빨간 호박은 쿠사마 야요미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나오시마 곳곳에서 예술작품을 볼 수 있다.

항구 앞에서 나오시마에 하나밖에 없는 마을버스를 타고 우리는 곧장 지중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에 나오시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는데, 둘레 16km, 인구 3,600명의 이 작은 섬마을은 원래 중공업단지가 있던 곳으로 구리 제련소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었다. 그러다 제철업이 쇠퇴하면서 마을이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 망가져갔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무렵 안도 다다오와 베넷세 재단의 협력으로 미술관과 현대적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예술 마을로 재생되었고, 15년 정도 지난 지금은 매우 유명한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지중 미술관에 도착하니, 근사한 미술관이 아닌 작은 안내센터가 우리를 맞는다. 지중 미술관은 이름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미술관으로, 미술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관람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미술관으로 가게 되어있다. 작품과 공간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중미술관 입구에서부터는 모든 사진촬영이 금지되며 땅속 미술관을 둘러보는 여정이 시작된다. 안내센터에서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는 모네의 그림에서 따온 작은 정원이 있고, 소박한 노출콘크리트 벽면을 따라 미술관 안으로 들어간다.

양옆에는 노출콘크리트의 높은 벽이 있고, 하늘만 보이는 좁은 길을 지나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면, 작은 중정이 보인다. 처음만난 작은 중정에는 하늘, 그리고 그림 같은 녹색의 정원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가장 중심이 되는 삼각형 모양의 중정이 있다. 이 중정은 자갈로만 이루어진, 전형적인 일본의 전통 정원의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중정을 만들어 주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는 얇은 오프닝이 동선을 따라 있고, 복도는 어둡다가도 밝고, 아름답게 빛을 비추기도, 자연스레 밝은 중정을 향해 시선을 유도하기도 하며 미술관 전체의 동선을 엮어주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중정을 둘러싼 계단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면서, 작품을 보기도 전에 이 건물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안도 다다오를 얼마나 알았다고 생각했을까. 그의 작품을 책에서라도 제대로 들여다 본적이 있었던가. 그러자 비단 안도 다다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관심 없음으로 일갈한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오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간 내가 건축을 판단했던 가치관들이 너무 협소한 시각이었던 것은 아닌지, 세상의 많은 건물을 공부하고 판단하기에 경험과 기준이 너무나 부족했던 건 아닌지, 머리로, 책으로 공부하는 것과 실제 공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며 고요한 그 중정에서 몇

노출콘크리트 벽을 찢고 들어오는 빛을 따라 지중미술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중미술관 엽서

이우환 미술관은 외부공간부터 전시가 시작된다

번이나 아찔함을 느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시기라 공간의 구성이나 큰 구조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디테일 역시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트렌치, 조명, 난간에서부터 노출콘크리트의 매끈한 마감까지 어느 것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일본 특유의 치밀한 마감을 하고 있다는데 또 감탄했다.

지중미술관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끌로드 모네(Claude Manet) 이 세 작가의 단 9작품의 영구전시를 위한 곳으로 그 작품에 최적화된 공간을 통해 극적인 연출이 이루어진다. 가장 작품집에 많이 실린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의 방은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공간을 만들어 내는 구조인지 구분이 쉽게 가지 않는다. 계단 끝에 올라 거대한 검은 구를 바라보면서 지중 미술관이 지어지는 광경을 상상해본다. 안도 다다오는 어느 지점까지를 염두하고 설계했을까? 지중미술관은 분명 단순히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외피, 그저 작품을 위해 물러나있는 화이트박스는 아니었다. 저 거대한 구는 공사하는 어느 시점에 들어와 이 방을 완성시켰을까. 그 옆의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방 역시 상상력을 자극하기는 충분했다.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종이처럼 얇아 보이는 천장과 칼로 자른 듯 네모난 오프닝은 몇 번이나 혹시 하늘 그림은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했고, 여름밤이면 이 방에서 별을 보는 행사를 하고, 비가 내리면 오프닝을 통해 네모난 비가 내린다는 이 방의 365일을 몇 번이나 앉아서 상상해 보았다. 하루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지중미술관이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단지, 지중미술관을 나오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기에 내가 느낀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꺼내어 보고,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늘에서의 지중미술관이 담긴 엽서를 한 장 사들고, 이우환 미술관으로 향했다.

이우환 미술관 역시 기하학적인 평면과 노출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작은 미술관으로 외부와 내부에 아울러서 전시가 되어있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이 건물은 그만큼 외부공간과 내부와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었고, 단순화 되었지만 강렬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상적인 노출 콘크리트 벽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 넓은 잔디밭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다시 노출 콘크리트 벽을 따라 몇 번을 돌아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몇 점의 드로잉과 돌, 철판을 이용한 설치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드로잉 작품보다는 설치작품들에 더 눈길이 갔는데 노출콘크리트와 함께 있는 돌과 철판의 물성의 조합은 매우 강력했다.

서둘러 이우환 미술관에서 나와 이번에는 베넷세 하우스 뮤지엄(Benesse House Museum)으로 향했다. 이 일대는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나오시마의 상징과도 같은 미술관이다. 실제로도 미술관 내부뿐만이 아니라 바다 근처를 무대로 다양한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술관뿐만 아니라 호텔이 같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밤을 보낸다. 베넷세 뮤지엄은 매우 내부 중심적이었던 지중미술관과 달리 거의 모든 공간이 외부와 연계되는 느낌을 받았다. 지상층의 공간들에서는 대부분 나오시마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어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잠시 동안은 묘한 여유마저 느낄 수 있었다. 베넷세 뮤지엄 역시 노출콘크리트 위주로 지어진 건물이긴 했지만, 몇몇의 외벽은 자연스럽게 돌로 마감되어 있어 뮤지엄의 정원과 멀리 보이는 바다와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도 다다오가 꾸준히 밀어붙인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한 마감과 어두운 철판과 투명한 유리는 나오시마이기 때문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뮤지엄 내부에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만들어 주는 원형과 직선의 공간에 인상적인 램프가 있고, 그 동선을 따라가면 역시나 매력적인 중정이 있었다. 매우 내부중심적일 것 같은 안도 다다오의 미술관 세 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오시마의 아름다운 환경과 어우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술관 역시 나오시마 전체로 확장된다. 세 개의 미술관 모두 뚜렷한 입구를 갖기 보다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노출 콘크리트 벽이 나타나고, 그러한 시퀀스가 있는 흐름 끝에 미술관 내부로 전환된다. 나오시마와 미술관이 만나는 관계만 보아도 단순히

이우환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길. 자연과 미술관 사이에 노출콘크리트 벽과 하늘만 보이는 길이 있다

나오시마의 상징인 노란호박.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로 불리는 이 일대에는 예술작품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베넷세 하우스 뮤지엄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마가 보이는 테라스로 나와있었다

베넷세 하우스 뮤지엄. 지중미술관과 달리
미술관 내부에서 나오시마 곳곳을 바라볼 수 있다

무너지기 직전의 폐가를 예술가가 리모델링하여
집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제임스 터렐의 'Backside of the Moon' 이라는 작품이 있는 아트하우스

나오시마에 안도의 미술관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 계속해서 나오시마를 향해 확장하고 나오시마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세 개의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보고, 우리는 나오시마 마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오시마의 마지막 미술관.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의 미술관이 아니라, 나오시마 혼무라 지구에 있던 오래된 가옥을 현대 예술 설치작품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프로젝트로 어떤 곳은 빈집을 고치기도, 또 어떤 곳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신사를 고쳐서 작은 집 하나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도록 만든 프로젝트이다. 어떤 면에서는 안도 다다오의 미술관 보다 더 인상적인 곳이었다.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는 혼무라 지구 안에 있는 여섯 개의 집인데, 골목 곳곳에 숨어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지도를 들고 찾아다녔다. 안내센터에서부터 지도를 보고 가장 가까운 집부터 찾아 마을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것은, 안도가 치밀하게 고려한 공간들을 거니는 이상의 흥미로운 시퀀스였다. 예상치 못한 오래된 마을의 풍경이 주는 감동, 낙엽을 치우는 할머니와 너무나도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 아주 작은 간판하나, 단순하지만 어느 집 하나 똑같지 않은 시멘트 벽돌담까지. 첫 번째 집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이미 혼무라 지구 전체가 미술관이었다. 사진은 안타깝게도 공유할 수 없지만, 각각의 집은 모두 저만의 컨셉으로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집이었다. "See of Time" 이라는 작품이 있는 집에는 전통 일본식 주거의 바닥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 빛이나는 숫자판들이 있다. 어두운 내부에 앉아있으니 물속의 반짝이는 숫자들이 마치 일본의 전통 축제에 가면 볼 수 있는 불꽃놀이나 연꽃등이 떠올랐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제임스 터렐의 "Backside of the Moon" 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던 집도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빛과 어두움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각각의 전시들도 흥미롭고, 지도를 따라 하나하나 집을 찾아가면서 나오시마를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진 점은 이 프로젝트가 마을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각각의 집에는 나오시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안내가이드를 하고 있고, 또 동네의 아이들이 여행객들에게 내부의 작품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마을 곳곳에 숨겨진 이 아트하우스로 인해 마을 전체가 생기를 띄고, 아주 작은 간판하나까지도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나오시마를 방문했을 때는 안도다다오의 건물하나가 이 섬 전체를 재생시켰다고 생각는데, 혼무라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나오시마가 아름다운 것은 어느 한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전체의 화학작용이 나오시마를 재생시킨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마을 전체를 미술관처럼 엮어주는 아트하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둘러보다 마주한 광경.
나오시마의 아이들이 여행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신사를 고친곳으로 지하에서부터
유리 계단이 올라오는 작품

첫번째 아트하우스에 도착하여 설명을 듣고있는 모습

안도다다오의 물의 절.
Water Temple로 들어가는 길

하얀 돌과 곡면의 콘크리트 벽을
지나면 넓은 원형의 물 가운데로
계단이 있다

물 아래에 있는 절.
아름다운 붉은 빛이 회랑을
감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간사이 공항에서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었다

우스 프로젝트와 그것을 유지시키는 마을 사람들, 베넷세 뮤지엄 근처의 흩어져 있는 각종 예술품들, 그을린 목재로 만들어진 전통 주거들의 정갈한 풍경, 마을버스 기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나오시마의 이야기.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꼭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을이었다. 작은 섬마을이라 오후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왔다. 마을과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기존 가옥을 세련되게 리모델링한 숙소에 묵은 남자들과 달리, 운좋게 홍일점이었던 나는 혼무라 지구 한복판 나오시마 마을의 수많은 집들과 같은 전통 집에서 밤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 혼자만의 여운을 즐기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나오시마를 떠나 고베로 향했다. 우노항부터 전용버스를 이용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안도 다다오의 물의 절(Water Temple)로 향했다. 이 물의 절은 물속에 숨어있는 절이었다. 곡면의 노출 콘크리트 벽을 따라 들어가면 원형의 넓은 수조에 주변의 풍광을 그대로 담아낸 물이 담겨있고, 그 물 한가운데 있는 직선의 계단을 따라 들어가면 아주 작은, 원형의 절이 있다. 계단을 다 내딛기 전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강렬한 붉은 빛에 둘러싸인 회랑이 펼쳐지고 그 원형의 회랑 안쪽에 작지만 충분히 신성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법당이 있다.

마지막으로 답사한 곳은 고베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효고현립 미술관이었다. 이틀 동안 방문한 다섯 개의 안도 다다오의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고, 네 번째 미술관인 셈이다. 안도의 건물에 내성이 생겼는지, 기하학적인 공간구성과 매끈한 콘크리트와 나오시마가 주는 화학작용에 미치지 못해서 일까, 규모가 커졌다고 공간이 더욱 풍성한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중미술관에서의 숨 막히는 공간감이나, 베넷세 뮤지엄에서의 자연과의 조화,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들의 작품과 건축이 일체화된 느낌이 주는 감동을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진 효고현립미술관에서 느끼기는 부족했었다. 여전히 근사한 공간들이 미술관 곳곳에 있었지만 규모가 커지다 보니 몇몇의 근사한 공간만으로 미술관 전체의 구성을 아우르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고, 절제된 재료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드러낸 다른 건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재료가 뒤섞인 구성에서 일관된 감성을 느끼기가 어려워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의 일정이 모두 끝나자 거짓말처럼 조금씩 비가 내렸고, 우리는 여행을 마무리 하며 공항으로 향했다. 간사이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고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일본에서의 감동과 많은 생각들을 복기하면서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던 값진 여행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

여행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었던
안도다다오의 효고현립미술관

미술관과 외부영역들을 통합하는 거대한 원형의 계단

높은 층고를 가진 전시실에
막다른 길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계단을 따라 전시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동선

협회소식

제12회 이사회

2012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가칭)건축문화장학재단"설립의 건, 2013년 1~2월 국제교류행사 추진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2013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건축문화장학재단"설립의 건
  - 원안대로 설립하기로 함.
- 제2호 : 2013년 1~2월 국제교류행사 추진의 건
  - ARCASIA 임원회의 참가경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추진키로 함.
    - ▷ 몽골건축사협회(UMA) 초청(435만원) : 초청인원 2~3명 이내로 조정시행
    - ▷ 한중일건축실무핸드북 발간 기념행사(200만원) : 내용은 건축위원회에서도 검토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 별도의 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문서규정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3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협의사항 제2호에서 추진키로 한 국제교류 행사비를 추가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차입금액 : 40,000,000원
    - ▷대여재원 : 건축사등록업무관리회계 임의적립금
    - ▷차입조건 : 원금 일시납
- 제6호의안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수 입	지 출	차인잔액(잉여금)
410,517,052	410,261,760원	255,292원

▷ 결산잉여금을 본협회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 후 광주건축사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기타사항

- 위원회의 조직이 변경(재경→기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재경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문제를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1회 법제위원회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 관련 법령 실무해설시리즈 제작의 건
  - 201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사무처에서 사전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작 방향은 아래의 원칙대로 하기로 함.
    - ① 개인이 편저자로 명기되지 않도록 함.
    - ② 감수는 법제위원회 및 국토부(공문 요청)가 공동으로 하기로 함.
    - ③ 원고내용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담당임원이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함
    - ④ 주택법 질의회신집 추가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은 원고량

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필요

• 제2호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대한 저작권의 건

–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 초안을 김상호 위원이 작성하여 사무처에 전달하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설계도서의 정비 및 체계화의 건

– 건축법상 건축허가도서 중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각 위원이 의견이 있는 경우 사무처에 송부하면 이를 정리하고 위원장 확인을 받아 향후 법령개정 건의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 제4호 : 기타의 건

① 고층건축물 구조감리 구조기술사 수행 법안에 대하여

– 박수일, 김상호 위원이 국토부(11/10 이전)에 방문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② 대지안의 공지 문제에 대하여

– 국토부 지침 중 "건축물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주차구획 제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를 충족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구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함. (위원장이 국토부 담당자와 협의)

③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 동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각 위원이 의견을 사무처에 전달하면 박수일 위원이 정리한 후 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협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함

④ 석면감리교육 개선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5회 전통건축 TF

제5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 1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 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회장에게 요청키로 함

– 책자 작품선정관련 사항을 논의함.

– 좌담회 관련 사항을 논의함.

• 제2호 : 기타의 건

– 전통건축 TF의 발전방안 논의

▷ 협회의 전통건축 및 한옥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TF팀이 아닌 위원회로 승격이 필요함을 최용달 담당이사와 유흥재 위원이 회장께 건의하기로 함

▷ 한옥교육과 관련된 일을 전통건축TF에서 해야 함

▷ 한옥교육, 책자발간, 세미나 등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 다음 회의는 11월 27일(화요일) 14시에 개최키로 함

■ 제6회 전통건축 TF

제6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 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세미나 개최일을 12월 20일로 변경하기로 함.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될 작품 수집〉

▷ 작품수집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공지하여 협회 회원으로 부터 작품을 수집하기로 함

〈세미나 관련〉

– 제 목 : 한옥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 일 시 : 12월 20일 목요일 14시 ~ 17시 30분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

– 좌 장 : 장순용 전통건축 TF 위원장

– 사회자 : 유흥재 위원

– 발제자 : 조선건축사사무소 윤대길건축사 / 동남건축사사무소 이형재건축사 / (주)고진 티엔시 기술이사 안경호

– 토론자 : 한양대학교 한동수교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 오진수 사무관 /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석순건축사 / 원택건설 문장용이사

▷세미나 후원기관 선정

– 국토해양부,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문화재수리협회에 세미나 후원자지정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함

▷세미나 발표 주제

1. 한옥 설계에 있어 몇 가지 문제 (윤대길)
2. 한옥 설계와 감리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이형재)
3. 한옥 시공과 재료, 유지관리 (안경호)

▷교육인증

– 좌담회 참석 건축사의 실무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전통건축 TF팀을 전통건축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을 최용달이사가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검토의 건

▷2013년도 전통건축 TF 운영에 관한 건

–전통건축 TF위원회의 업무

–전통건축 TF의 전통건축위원회로 격상

■ 제8회 건축위원회

제8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용역발주 제도개선의 건
– 용역발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 그리고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하기로 함.
▷ 협회에서 건의했던 용역발주 제도개선과 관련한 건의문 · 결과, 발주관련 회의록, 연구용역자료, 발주관련 자료를 수집 · 조사하여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상충되는 법상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며, 그리고 제도의 공정성문제를 개선하는 것임을 중심으로 논리를 만들기로 함

〈모순을 안고 있는 용역발주 사례〉
▷ 관계전문기술자 일괄입찰방식에 따른 기술자 수급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 학교시설의 설계용역 발주에서 과업지시서의 업무 범위와 실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상이하므로 대가의 증가 없이 건축사의 업무량만 증가함
▷ 건축허가 이후 설계의 변경이 설계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이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보상이 없음. 설계변경 대신 계약변경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함

• 제2호 : 기타의 건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발주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은 약 이천만원 정도에서 수립하기로 함

■ 제10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0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대전시청 실무자가 참석하여 대전역세권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대전시 정동의 사업개발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및 임대주택, 광장계획, 골목길(근대화거리) 리모델링, 공원계획을 담당위원별로 차기 회의까지 자료를 완성하고 CG작업 및 세미나자료를 준비토록 함
▷ 게스트하우스 및 상가
▷ 커뮤니티 및 임대주택
▷ 광장계획(안)
▷ 골목길(근대화 거리) 리모델링
▷ 공원계획
▷ 세미나 및 최종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CG 작업을 아래와 같이 4컷 으로 확정함.

■ 제11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1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대전시 정동의 사업개발 계획(안)중 동선계획, 광장계획 등의 자료를 차기 회의까지 완성하고 CG작업 및 세미나자료를 준비토록 함
– 기타사항
▷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법 등의 문제로 민간 협력 세미나를 개최할 수 없어 날짜와 장소를 변경함
▷ 날짜변경 : 11월 30일 → 12월 21일
▷ 장소변경 : 대전시청 세미나실 → 5층 대회의실
▷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자기계발 1시간 인정됨

■ 제4회 회관관리위원회

제4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시도건축사회가 참가자로부터 비용을 납부 받는 행사에 있어서 "예외기준사용료의 25%적용"에서 "예외기준" 만을 적용하고, 협회후원행사는 "일반기준에서 50%를 적용한다" 를 "예외기준을 적용한다"로 외부학술단체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제2안의 예외기준 사용료의 상향조정안으로 하는바 예외기준에 대한 본래의 목적상 외부에 대한 협회이미지 개선 및 위상정립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소액의 인상으로는 협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음.

〈개정(안)〉

구 분	현 행	상 정 안
협회주최,주관행사	무료	현행과 동일
시.도건축사회가 참가자로 부터 비용을 납부 받는 행사	예외기준사용료의 25% 적용	예외기준 적용
후원 행사	일반기준의 50% 할인	예외기준 적용
회원, 입주사, 장기임차자	일반기준의 30% 할인	현행과 동일
학술 및 연구단체 건축, 음악, 미술, 문학 관련 행사	예외기준 적용	현행과 동일

• 제2호 : 정부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운영비 협의의 건
– 정부위탁업무의 관리운영비 책정에서 일반임대기준에서의 위탁 업무라는 특성을 감안, 보증금은 유보하고 임대료는 30%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며 관리비는 일반적용과 동일하

게 적용하는 방안을 상정함.
– 공제조합의 기준과 다른 위탁사업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 외부간판 시안 협의의 건
– 기존벽면에 후면의 패널 없이 벽체에 프레임으로 설치하며, 마크 및 글씨는 고유 로고체로 글씨상단은 한글, 하단 프레임 표면에 영문을 넣어 글씨는 모두 LED를 삽입 제작하는 바 개선시안 보고 후 최종결정토록 함
– 설치위치는 기존벽면에 후면의 패널 없이 벽체에 그대로 설치하고, 세부 기술적 문제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시안을 다시 위원회 보고 후 최종결정토록 함.

• 제4호 : 결혼도움방 사용료 조정 협의의 건
– 현재 예식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현재 계약의 잔여기간만을 적용하여 주고, 이후 계약에서 재검토후 결정토록 함.

• 기타사항
– 대강당조명개선은 LED조명의 현장검수 결과 자연광(Warm light)은 전반적 조명으로(86개)하고, 출입구측은 주광색 계통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속히 공사 진행함.
– 대강당 패브릭 흡음제 시공 건은 현장견본 조사결과 선정한 3개의 견본의 크기를 크게(실제시공1단의 높이)하여 최종시연 후 결정토록 함.

■ 제5회 회관관리위원회

제5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회관관리 예산 협의의 건
– 2013년도 회관관리 예산중 시설관리비 예산책정을 원안과 같이 협의하되, 회관옥상(구조물)에 태양광에너지를 활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회관 외부공간 활성화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토록 함
– 회관관리 예산중 회관 옥상(구조물)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일부전력을 세이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검토토록 함
– 회관의 외부공간 환경개선은 1층 현관 공개공지, 2층 외부 출입부, 3층 건물 중앙부 노출공간 등에 대한 활성화를 검토토록 함

• 제2호 : 대강당 패브릭 흡음재 선정의 건
– 대강당벽체 패브릭 흡음재는 전회에 이어 현장에서 견본 크기를 크게 하여 2차로 선정한 바 3가지 패브릭 견본섬유 중 DR3004로 결정함
– 회관대강당 패브릭흡음재 시공은 전회(제4회, 12.11.8)에서 1차로 정하고, 금회(제5회,'12.11.21)에서 실제 시공크기의 견본으로 현장에서 전시하여 선별 한 바, 정형의 무늬 보다는 잔잔한 무늬로 두드러지지 않지만 식상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무난한 소재를 선택기준으로 선별함
– 회관대강당 건축음향 실태조사는 별도의 확보된 예산도 없고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코저 하는 취지에서 향후 전반적인 대강당 개선시 실시키로 하고, 금번은 패브릭 시공만으로 개선범위를 축소하여 마감키로 함

• 기타사항
– 외부간판은 기존벽면에 후면의 패널 없이 벽체에 프레임으로 설치하고, 마크 및 글씨는 고유 로고체로 글씨상단은 한글, 하단 프레임표면에 영문을 넣어 글씨는 모두 LED를 삽입 제작하며, 한글로고 길이에 맞게 하단프레임에 영문을 넣는 것으로 최종확정하고 신규 제작토록 함

■ 제6회 인사위원회

제6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직원 전보 및 충원의 건
– 직원 전보 및 충원은 신규채용 보다는 기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함.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실의 조직을 정비하여 업무를 조정토록 건의함.

• 기타사항
– 연말 외부기관(국토부장관, 건단연표창) 직원표창 추천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8회 기획위원회

제8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 협회 중요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규정(안)'중 제13조(기록물의 관리 등)의 〈별표1〉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제13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별표 1〉 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모든 기록물의 보관, 보존, 대여, 공람, 폐기는 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결 과 : 회장 직선제관련 조항은 기존(안)대로 하고 별도법인 및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며, 회장 선출방법 및 예산소요비용 등은 총회개최 전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예 : 2년마다 개최되는 건축사 대회에서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

현행 정관	정관 개정(안)
제3조(조직) ①~② 생략 ③ 〈신 설〉	제3조(조직) ①~② ③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⑤ 생략	제31조(위원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⑤ 생략
제33조(위원회 등의 임무) ① 생략 ② 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조직(T/F, W/G 등)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 등의 임무) ① 생략 ② 위원회, 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조직(T/F, W/G 등)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요청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총회에서 개정토록 할 만큼 동규정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재개정 요구는 최근에 2번이나 개정되었으므로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호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회관관리 임대수입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회관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5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안) 최종검수의 건

– 기획위원회(3차)와 감사가 보완 요청하여 제출된 최종보고서(안)를 담당이사, 위원장, 부위원장이 최종 검수키로 함. (감사가 요청한 감사1인의 검수자에 포함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 제6호 : 2013년도 임시예산안 심의의 건

– 2013년 1~2월 협회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국제사업비' 부문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 10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국제사업비 부문 임시예산요구액 조정내역〉

1) 아카시아 자문위원 임원회의 참가경비 지원금 1,200,000원 전액 삭감

– '12년 제2회 이사회('12.2.15)시 금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사항임

2) 「한 · 몽 상호 교류(초청 3인/3박4일)」 4,350,000원 전액 삭감

– 몽고와의 상호교류의 실리적인 측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이사회)가 필요함

• 제7호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회장의 의견(이사, 시도회장 각 2인 포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 위원장(홍사원), 위원(박운천, 박일경, 신만석, 윤재화, 이인화, 전기달, 정익현, 조동욱, 최남수)

■ 제8회 정책위원회

제8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협의회 구성 · 운영방향의 건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협의회는 협회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한 인원구성과 독립적 재정운영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함

– 오늘 논의된 협의회 구성관련 정관개정(안)은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현 행	개 정(안)
제 1 장 총 칙 제3조(조직) ①협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건축사회라 한다. ②건축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지역건축사회라 한다. 〈신 설〉	제 1 장 총 칙 제3조(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 제2항과 같음. ③협회는 회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 제8회 정책소위원회

제8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정책토론회 홍보 관련

▷책자 및 초청장 등 제작 관련

▷토론자 선정 관련

▷토론자 발표내용 관련

▷토론회 진행관련

▷발표자료 검토

▷기타사항

■ 국제위원회 간담회

국제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11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주최측에서 개최일정 통보 시 대표단 구성 및 회의별 참석자 등을 재논의 하기로 협의

▷ Young Architects를 위한 국제화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국내외 젊은 건축사들의 모임에 관해 현황파악을 한 후에 Young Architects를 위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담당위원은 추후 논의하여 정하기로 협의함

〈연사 및 발표자〉

일자	시간	회의(세션) 주제	담당자/발표자
11.15 (목)	전일	한중일건축사협의회	
	08:20~08:50	1.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실무핸드북 발간 발표식 (주관 : JFABEA)	담당: 이승석 위원
	08:50~09:35	2. APEC건축사 제도 추진현황 ☞KIRA : 09:20~09:35 (15분)	김지덕 대한민국 APEC등록 건축사위원회 위원장, 조인숙
	10:00~11:00	3. 건설시장 감리, 건축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에 관한 논의 및 3국의 건축사 윤리 ☞KIRA : 10:30~10:45 (15분)	국토해양부 관계자 (예정)
	11:10~11:30	4. JFABEA 제안에 관한 논의 · Young Architects를 위한 국제화 지원 프로젝트	조인숙 국제위원장
	13:30~16:50 (동시개최)	○ 회장단 회의 (Summit Meeting) 3국 공통 이슈 및 차후 협력방안 (Common interests and concerns of three organizations and future cooperation among three organizations) ☞KIRA : 14:00~14:15 (15분)	회장, 신춘규 국제이사, 전성호 위원
		○ 기술교류회의 (Technical Exchange Meeting)	조인숙 국제위원장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 건설에 관한 아이디어 ☞KIRA : 14:00~14:30 (30분)	심형섭 위원
		주제 2. 건설에서의 자연재해 방지와 완화 ☞KIRA : 15:40~16:10 (30분)	서울시 관계자 (예정)
		○ Community Architect 포럼 ☞KIRA : 14:00~14:30 (30분)	김지덕 자문위원, 오동희 위원
	18:20~18:50	차기회의 개최지 소개 (대한민국 인천)	인천건축사회 관계자, 인천광역시 관계자 (예정)

• 제2호 : 2013년도 국제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건

– 국제사업계획

▷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는 가능한 날짜를 3배수로 양국에 제시하여 의견수렴 후 정하기로 함

▷ KIRA-AIA 실무회의는 AIA컨벤션 시 개최하기로 함

– 국제사업예산(안)

▷ UIA 4지역 이사회 참가비 추가

▷ ARCASIA 자문위원 또는 KIRA 전임회장 참가 시 항공료만 지원(4회)

▷ Young Architects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증액 고려

▷ 신규사업 추진 고려

• 제3호 : 2013년도 해외교류단체 초청 및 방문 계획의 건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시(짝수해) 해외단체장을 모두 초청하여 해외단체장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1회 방문, 1회 초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문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 회장 의견에 따르기로 협의

– 멕시코, 유럽과의 MOU 체결 후 실질적인 진전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제4호 : 몽골건축사협회(UMA) 정례교류 추진의 건

– 제47회 정기총회(13. 2월) 해외교류단체 초청에 대비하여, KIRA-UMA간 Working Plan을 사전 검토하고 차기 위원회 시 논의하여 초청서신을 보내기로 협의함

■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간담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11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 개최의 건

– 영국문화원과 일정 및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시행하기로 협의.

▷ 13년도 건축사등록원으로 이관 후 개최하는 것을 제안

▷ 참석 수요조사 후 유료 강연회로 개최하기로 함

▷ 영국문화원 내에 건축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여 건축사등록원에 CPD Provider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

• 제2호 : 제5차 APEC등록건축사 심사 · 등록계획(안)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등록신청비 및 등록비 등은 예산편성 시 재논의 하기로 함

▷ 건축사등록원은 국가 간 MRA, FTA 등에 관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APEC등록건축사 관련 업무가 건축사등록원으로 이관되더라도 대한민국 APEC등록 건축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제3호 : 2013년도 APEC등록건축사제도 운영예산(안)의 건

– 예산은 현행대로 APEC등록건축사 특별회계로 편성 · 운영하기로 협의.

▷ 회의비, 심사비,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참가비,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사무국 운영경비,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부분을 위원장이 상세히 검토하여 운영예산(안)을 수정하기로 협의.

▷ 한중일 교류, NCARB 교류에 대한 예산은 건축사등록원에서 실제 집행경비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기타사항

– 건축사법에서 인정하는 실무교육은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의 위상을 정리하고, 임기는 그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협회 규정에 맞게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JAEIC 측에서 12. 11 .29(목)에 개최하기로 한 간담회에서 1)한국의 건축사 등록시스템, 2)한국이 로컬콜라보레이션(Local Collaboration)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 3)일본의 APEC등록건축사가 한국 건축사로 등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JIA 전국대회 참가 전 사전 설명준비를 하기로 함. (※12. 11. 19(월) 설명요청 메일접수)

■ 제14회 건축영화제 TF

제14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1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배우 양미라를 영화제 홍보대사(Festival Architect)로 선정하여, 위촉패를 제작하기로 함
▷ 개막식 사회를 부집행위원장 유영식 감독 과 배우 김난주로 결정함
▷ 개막식 인사말시 영화인 대표 인사를 이장호 감독님으로 결정함
▷ 개막식이 끝나고 홍보대사와 초청 인사들과 자리를 마련하여 대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함
▷ 예산부족으로 인해 초대권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만 초대권을발송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직접 오셔서 이름을 이야기 하면 초대권을 드려 영화를 볼 수 있게 진행하기로 함
▷ 영화제 위원들에게 초대권을 일부 배부

■ 제9회 사업위원회

제9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2 개최결과 평가의 건
– 전체부스현황 2012.10.23 기준

참가업체	유료부스	무료부스	전체 부스
75	147	93	240

–한국건축산업대전 가결산(안) (2012. 11. 19 현재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332,062,332	324,386,021	7,676,311	미수금 포함

∴ 2012년도 한국건축산업대전 정산시 약 7,600,000원의 수익금 발생이 예상됨.
– 2012년도 전시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
▷ 전시회와 건축사대회가 동일한 협회행사라는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워크숍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코자 함
• 제2호 : 전시관련 유치성과금 지급의 건
– 참가업체 및 협찬광고 유치 성과금 지급계획(안)대로 진행키로 함
• 제3호 : 전시회 관련 시 · 도지원금 지급의 건
– 원안대로 진행키로 함. 단, 정관 제55조에 의거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는 제명대상자이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4호 : 2013년도 건축자재전시사업 예산(안)의 건
– 전시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나 위탁회계와 다르게 예산이 전시회 참가비로 구성되는 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협회홍보행사와 동일하므로 전시사업팀에 소속된 직원(1명)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반영하고 전시회와 관련한 사업비만 특별회계로 계상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우수건축자재추천 TF팀 구성 계획(안)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인사 추천 등을 재협의키로 함

■ 제2회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위원회(T/F)

제2회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위원회(T/F) 회의가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
– 한옥개량운동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발표자 중 2인은 전통개량에 관하여, 2인은 최근 개량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임
– 세미나 자료제작 및 진행비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으므로 국토부와의 예산 조절시 추가하기로 함
– 금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목조건축단면유형도 포스터를 인쇄하여 기념품 대신 배부하도록 하고 비용은 4인의 설계스튜디오 강사의 사무소에서 후원하기로 함
– 마지막 세미나이므로 종료 후 1–3회 세미나에 관한 리뷰 및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
• 제2호 :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 대학생 워크숍 진행의 건
– 12개 학교에서 2명씩 24명을 추천받기로 하였으나, 9개 대학 32명을 추천받음. 14명을 추천한 연세대학교에서 6명을 선발하여 24명을 맞추고 진행하기로 함
– 워크숍을 진행할 수강생 건축사는 위치 선정을 하고 미리 답사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지할 것임
– 참가한 대학생에게는 당일 수료증을 배부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국내 답사 추진의 건

– 영산재에서 숙박을 하며 진행할 것이고 1일차는 신한옥 부재 재료 개발에 대한 천득염 교수의 세미나를, 2일차는 영산재를 설계한 조영귀선생의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함. 2일차 세미나 후 오동재를 보고 종료하기로 함
– 지역별로 수강생이 있고 영산재의 위치가 교통편이 좋지 않으므로 이동 방법은 수강생 의견을 참고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하기로 함

• 제4호 : 설계 마감 및 평가 위원 구성의 건
– 11월 18일 중간 평가를 거쳐 12월 9일 설계마감을 하기로 함
– 12월 11일 은평뉴타운 한옥단지 설계작품 평가회에는 위부위원 국토부 관계자 1인, SH공사관계자 1인, 한옥교육을 진행하는 명지대, 전북대, 경상대 담당자 각 1인을 위촉하기로 하고 한옥과정운영위원회(T/F)위원 및 설계강사가 배석하기로 함
– 12월 9일 설계시 1층 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함

▲기타사항

• 해외답사(중국) 시행 결과의 건
– 답사 결과, 선농단 및 고건축박물관, 전통주거 체험, 중국 건축 복원설계에 관한 간담회 등으로 이루어져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하였음
– 결과 보고서는 협회지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 실무교육 인정의 건
결 과 : 본 과정은 실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과정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은 인정 신청을 검토하기로 함

• 교육 수료 및 결과 보고서의 건
– 결석시간이 초과한 수강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석일자의 교육 동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료를 검토하기로 함
– 교육 종료 후 제출할 결과 보고서는 교육 자료 및 작품 발표 자료 등을 취합하여 책자 및 CD로 제작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설계스튜디오 마감 후 평가회가 있는 12월 11일 15시 30분에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 토의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3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2013년도에 시 · 도건축사회가 건축사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은 전문교육 4시간, 윤리교육 1시간, 자기계발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함
– 시 · 도건축사회가 실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협회 교육원운영위원회에 강의 계획서 제출 후 강의 계획서 심사를 통해 실무교육을 하기로 함
– 경남 건축문화제, 충청북도 건축문화제, 서울건축사회 세미나 및 워크숍, 서울시 건축정책 및 유지관리점검제도 운영 설명회,「우리도시 되살리기」정책 제안에 따른 세미나 참여는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 제2호 :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기준의 건
–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기준은 동정근 전문위원이 배점 부분을 세분화 하여 정리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실무교육 비용의 건
– 시 · 도건축사회가 실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인정 1시간당 3,000원/인을 본 협회 교육원에 시스템운영비로 납부하기로 하고, 사무국과 전영철 위원이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함

• 제4호 :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의 건
– 11월 26일(월) 14시에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후 정리된 안건으로 12월 3일(월) 14시에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2012년도에 한해서 전문교육으로 요청한 건이라도 자기계발로 하기로 함. 이에 따라 전문교육으로 요청한 대전건축사회(회원교육), 경기도건축사회(세무교육), 충남건축사회(건축관련강의)의 교육도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대전건축사회(송년행사), 경기도건축사회(건축사대회), 전남건축사회(전남건축인의 밤)의 행사 참석을 자기계발 1시간으로만 인정하기로 함
– 2013년도부터는 동정근 전문위원이 작성한 실무교육 실시계획서 양식에 따라 접수 받기로 함
–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기준에 관하여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을 참고하여 동정근 전문위원이 수정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비용의 건
– 2013년도 교육비는 4만원(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회원은 협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실제 회원부담은 2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함.
– 2013년도 시 · 도건축사회가 실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인정 1시간당 3,000원/인을 건축사교육원에 시스템운영비로 납부하기로 하고, 2014년도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

• 제3호 :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 건
– 12월 3일(월) 14시에 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12명) 및 각 시 · 도건축사회 교육(관련)위원장(16명)이 참석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자료(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등)

를 수정 보완하여 준비하기로 함

• 제4호 :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 제안의 건

– 건축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초안)에 관하여 동정근 전문위원이 수정 보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개최하는 한옥세미나 참석자는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 실무교육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내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대리급 직원이 반드시 충원되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함

■ 제7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7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 제1호 :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 신상일 위원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간사로 선출함

• 제2호 : 건축사 면허 대여에 대한 고발장 청구의 건

– 임광철 위원이 작성한 고발장을 기초로 협회 회장명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인 조사는 위원장이 회장을 대리하기로 함

• 제3호 :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의 건

– 정경수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기수 회원에 대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 신고 기준의 건

– 건축신고업무도 건축사의 고유업무이므로 적정한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문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홍보하기로 함

• 제5호 : 현장 조사 · 검사 업무 규정 정리의 건

– 현장 조사 · 검사업무시 적정비용을 받자는 내용의 홍보문안을 이광수 위원이 작성하고 임광철 위원은 Data를 작성하기로 함

• 제6호 : 공공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문서 발송 대책 논의의 건

–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법제위원회검토를 거친 문서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정하여 발송하는 경우 관여하지 않기로 함

▲협의

• 제1호 : 공공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문서 발송 대책 논의

–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법제위원회검토를 거친 문서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정하여 발송하는 경우 관여하지 않기로 함.

• 제2호 : 인테리어 설계업무 경고 문서 발송 대책 논의의 건

–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제3호 :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협의의 건

– 백민석 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 제4호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한 협의의 건

–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제6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6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건축사등록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협의 건

– 2013년 건축사등록업무관리회계 예산(안)은 10년치 손익계산(안)을 작성하여 김항년위원, 오동욱위원, 전영철위원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APEC등록건축사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반영하기로 함.

· 제2호 : 자기계발 인정신청의 건

– 건축사교육원에서 제출한 자기계발 인정신청은 각 1시간씩 인정하기로 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경기도 고양시의 자기계발 인정신청은 각 1시간씩 인정하기로 함.(법 시행일 전 실시한 행사는 제외)

• 제3호 :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계획의 건

– 한국비아이엠전문학원과 스마트컴퓨터디자인학원은「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제3조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하기로 함.

– 심사비는 협회 규정에 따라 4시간 이내인 20만원, 심사위원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당 3명씩 구성하기로 함.

• 기타사항

가. 건축사등록원 이메일 계정 신설의 건

– 원안대로 신설하기로 함.

나. 자기계발 최대 인정시간의 건

– 행사 당 1시간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함.

다. 사이버교육(동영상) 심사방법 및 제출자료의 건

– 사이버교육 인정신청 자료에는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최종 승인통보 시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토록 함.

라.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비용 예산반영의 건

– 건축사등록관리회계 10년치 손익계산(안)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강성익 회장, JIA2012전국대회 참가 '양국 교류활성화' 성과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일본건축가협회(日本建築家協會, JIA) 2012년 전국대회'에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가해 양국 건축문화 교류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건축인들의 가장 큰 행사이자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성익 회장은 '국제 협회장 패널토론(International Presidents' Forum)'에 참석해 각국 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 및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건축문화를 교류했다. 특히 강성익 회장은 일본건축사협회 전국대회 개회식에서 아시하라 타로 JIA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증을 수여받아 일본건축사협회 명예회원이 되었다.

아울러 (사)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JAAF) 회장 및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회장과도 회동을 했다.

대회참가와 연계하여 일본 (재)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JAEIC)와 만나 양국 APEC등록건축사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자협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특히 한국의 "지역협업(Local collaboration)"을 일본의 "고유사항심사(Domain Specific Assessment)"단계로 올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JIA대회 후 JFABEA 국제팀과는 별도점심회의를 하여 한 · 중 · 일이 3년간에 걸쳐 완성한 한 · 중 · 일 · 영어 4개국어본 건축사실무핸드북(HOPPA: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 of Architects, Korea-China-Japan)의 론칭에 대해 협의했다.

이로써 대한건축사협회는 일본의 법적인 또는 사적인 주요건축단체 모두와의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해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JIA는 1987년 '일본건축사회(JAA)'와 '일본건축단체연합(JFPAA)'이 통합된 단체로 2014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0대 회장 및 2013년 감사 선거 실시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2013년 2월 27일 개최될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 및 감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진행됐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12.10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일정 예정안내
▷'13.1.21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13.1.21~1.28 후보자 등록
▷'13.1.30 등록서류 검토 및 피선거권 자격심사, 기호추첨 및 후보자 간담회
▷'13.2.1 회장선거 및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13.2.5 후보자 합동 토론회
▷'13.2.7 선거공보 검수, 선거인명부 확인
▷'13.2.15 선거공보 제출
▷'13.2.18 선거공보 발송
▷'13.2.20 선거인명부 확정
▷'13.2.22 후보자 투 · 개표 참관인 신고
▷'13.2.27 선거 실시, 투표 · 개표, 당선확정
▷'13.3.4 선거효력 이의신청 마감, 투표용지 폐기

우리협회 정책토론회 '건축설계시장, 정상화방안은 있는가?'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10일 오후2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시장, 정상화방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건축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축사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1층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정책위 조재용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성익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서비스산업시장의 정상화와 건축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 건축사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관련 법 ·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분야 별 위원회 활동과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상황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건축설계시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정책위 유흥재 부위원장의 기조 발표와 2개의 주제토

론은 이상진 숭실대학교 교수가 '국가선진화 정책에 발맞춘 건축설계시장의 변화와 건축제도의 개선 방향'과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이 '건축사 업무의 환경변화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후 협회 이종정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황희준 교수(한양대 건축학과), 손희준 교수(청주대 행정학과), 홍성준 사무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정익현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조동욱 건축사(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익수 건축사(서울 성동지역건축사회 회장), 최봉기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 위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건축설계시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문화신문 12월 16일자(148호)를 참고하거나 우리협회 기획팀(02-3415-6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건축사회 '여성건축사를 위한 심포지엄 · 워크숍' 열어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과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여성과 함께 지키고 함께 일하는 도시, 서울' 심포지움과 '서울여성건축사 한마음 워크숍'을 지난 11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의 MOU 이후, 10월 코엑스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심포지움 개최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왜 성 평등 임대주택인가 △안전한 여성 단독가구를 위한 정책수요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워크숍에서는 선배 건축사들로부터 조언과 진정한 건축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음가짐 등 진정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 됐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012 송년의 밤' 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12월 5일 오페라웨딩홀에서 회원 200여명과 함께 '2012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송재현 회원의 사회로 201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대전건축사

회와 회원들의 1년간 활동사진들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해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 친목을 다지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현배 건축사, 박순란 건축사, 조한묵 건축사, 박병주 사무처과장이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공로패와 부상을 수상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열린 조영준 교수의 "설계 책임과 클레임", 전영철 건축사의 "건축법 특강" 세미나는 소중한 정보와 건축사로서의 소양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대구건축사회, 수성구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쌀 전달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12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을 방문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쌀 50포를 전달했다.

건축계소식

강성익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취임'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하 FIKA)은 대표회장 이 · 취임식을 지난 12월 17일 18시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의 건축계 인사를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이었던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강성익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우리 건축계에 만연된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무보수 무한서비스 업무라는 고질적인 병폐 한 가지를 고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천에 모든 건축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설계업무계약서를 추가로 제정 배포할 계획"이라며"다가오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앞으로의 우리 건축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7 UIA 세계건축대회도 FIKA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FIKA가 여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 더욱 하나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FIKA(Federation of Institute ofKorean Architects)는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가 WTO관련 국제 협상 및 UIA 등의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건축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한 기구이다.

신간안내

주거해부도감 (이미지 1컷)

마스다 스스무 저 | 김준균 역 | 204쪽 | 더숲

신간『주거해부도감』은 집의 구조와 설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각도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독특한 건축책으로, 2009년 11월에 출간된 이후 줄곧 일본 아마존 건축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온 장기 베스트셀러다. 그리고 건축책으로는 드물게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에도 현재 판권이 수출된 책이다.

이 책은 여느 건축책들과는 커다란 차별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감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설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 특유의 재미있는 비유와 설명으로 건축의 근본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과 건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건축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550점이 넘는 작고 따뜻한 일러스트와 담백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승효상 저 | 284쪽 | 컬처그라퍼

신간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건축철학으로 유명한 건축사 승효상이 여행길에서 만난 건축과 그것이 이루는 삶의 풍경들을 기록한 인문 에세이이다. 건축사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이 인문서인 이유는 이것이 전문적인 건축이야기나 여행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간 여러 지면에 연재했던 글들과 이전의 기록들을 묶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파해 온 승효상의 건축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동시에 문필가로도 이름 높은 저자의 문학적 향취를 만날 수 있다. 간결하고 담담히 써내려 간 문장 안에 담긴 사유의 묵직함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2012년 11월호(523호)의 39쪽 '심사총평–준공건축물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 사회공공부문의 심사총평이며, 작성자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로 바로잡습니다.

이승석_Lee, Seung-seok I (주)시아플랜 건축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세계박람회를 통한 우리 삶의 변화

World's Fair changed our lives

1

2

전기, 아이스크림콘, 상징적 건축, 대회전차,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세계박람회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키워드이다. "당신의 미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카피가 떠오르듯 세계박람회는 근 시대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인터넷 세상이 된 오늘날,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예전의 그것만 못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건축, 예술, 도시계획 등의 많은 분야에서 최신의 유행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기자는 휴일을 맞아 가보면 괜찮을만한 전시회 하나를 추천하고 있다. "Inventing the Modern World: Decorative Arts and at the World's Fairs" 라는 제목으로 피츠버그 카네기 아트 뮤지엄에서 다음달인 2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한 전시회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세계박람회의 발전과 함께 건축과 기술에 관한 유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박람회를 꼽으라면 1893년에 시카고에서 개최된 콜롬비아 엑스포일 것이다. 그곳에서 비로소 신고전주의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적

어도 40년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피츠버그 소재의 카네기 뮤지엄과 도서관은 그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이 박람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인물은 익히 알려진 시카고출신 건축사 다니엘 번햄이다. 물론 다른 지역 출신의 건축사들과 협업을 추구했다. 박람회장의 전체 평면은 뉴욕의 Central Park를 설계한 Frederick Law Olmsted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었다. 이들 건축사들은 "White City"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박람회 이곳저곳의 건축물들을 디자인 했다. 박람회장의 중심부에 웅장한 돔과 회랑을 반복하는 건물을 놓고 그 위에 전등을 장식해 경관조명을 시도하였는데, 이 광경은 관람객들에게 흔히 보았던 건축물이 조명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주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White Stone으로 마감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 프레임을 감싸는 석회벽 위에 페인트를 바른 것이다.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많은 볼거리들과 새로운 경험 가운데 있는 관람객들에게 이런 작은 부분은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다. 경관조명이 시도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에게 이것은 태어나 처음 보는 훌륭한 장관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명물로 대형 회전 관람차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George Ferris라는 엔지니어가 발명한 것으로 높이 80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에 버스 크기의 관람차를 서른여섯 개나 매달고 있어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4년 전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여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존심의 결과이다.

1904년 세인트 루이스에서는 또 한 번의 박람회가 열렸으며 시카고에서 성공한 많은 것들이 다시금 보여진다. 대회전차의 경우 시카고 박람회에서 사용된 후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립하여 쓰기도 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 보는 아이스크림 콘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이때부터 이기도 하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최신기술을 장착한 많은 열차용객차, 기관차 그리고 마차 등이 전시되었으며 한쪽 구석에 아직은 형태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아주 실험적인 물건이 "독일에서 온 개솔린 동력 수레" 라는 타이틀을 달고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자동차의 시초인 것이다. 하지만 바로 11년이 지난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는 140여대에 이르는 자동차들이 전시장 곳곳을 진열하게 된다.

번햄과 옴스테드가 함께 작업을 하던 1893년의 시카고 박람회, 어쩌면 1904년의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까지도 우리는 자동차의 발전으로 야기될 건축과 도시의 변화를 어떤 경로로도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1939년 뉴욕박람회가 열리자 사람들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General Motors의 기획전시관인 "Futurama"는 약 3,3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각종 움직이는 모형들로 20년 뒤에 다가올 미국의 모습을 구현하고, 방문객들은 천정에 위치한 좌석에서 넓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들과 그 위를 연결하는 자동차의 행렬을 굽어보게 된다. 70년도 넘은 오래전이지만 이미 고속도로 연결망과 차량을 이용한 도시간 이동,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확장이라는 오늘을 예견하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당시의 박람회를 기획하던 그들에게는 전혀 살아보지 않은 미래, 그 오지 않은 시간들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3

4

01.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General Motors의 기획전시관 "Futurama"
02. 오늘날 Ferris Wheel 이라 알려진 대회전 관람차는 George Ferris 라는 엔지니어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03.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엑스포
04. 1889년 파리 박람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에펠탑

※윗글은 Tribune Review에 실린 World's Fairs Created New Looks라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11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834	5,834	92	184	8	24	5,934	6,042	1,711	1,711	226	452	58	174	27	108	19	125	2,041	2,570	7,975	8,612
서울	925	925	22	44	1	3	948	972	872	872	121	242	44	132	9	36	13	76	1,059	1,358	2,007	2,330
부산	497	497	11	22	2	6	510	525	117	117	23	48	1	3	3	12	2	15	146	193	656	718
대구	491	491	21	42	4	12	516	545	69	69	17	34	2	6	3	12	0	0	91	121	607	666
인천	285	285	3	6	0	0	288	291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61	372
광주	216	216	0	0	0	0	216	216	44	44	7	14	1	3	3	12	0	0	55	73	271	289
대전	264	264	6	12	0	0	270	276	31	31	7	14	4	12	1	4	1	13	44	74	314	350
울산	183	183	5	10	0	0	188	193	20	20	3	6	0	0	0	0	0	0	23	26	211	219
경기	816	816	2	4	0	0	818	820	243	243	19	38	3	9	2	8	1	5	268	303	1,086	1,123
강원	198	196	2	4	0	0	200	202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28	235
충북	224	224	2	4	0	0	226	228	38	38	3	6	1	3	2	8	1	9	45	64	271	292
충남	271	271	1	2	0	0	272	273	53	53	5	10	1	3	2	8	0	0	61	74	333	347
전북	260	260	5	10	0	0	265	270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4	306
전남	212	212	0	0	0	0	212	212	21	21	2	4	0	0	0	0	1	7	24	32	236	244
경북	392	392	4	8	1	3	397	403	39	39	3	6	0	0	0	0	0	0	42	45	439	448
경남	465	465	8	16	0	0	473	481	34	34	3	6	0	0	0	0	0	0	37	40	510	521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612	100%	17
서울	2,330	27%	2
부산	718	8.3%	10
대구	666	7.8%	0
인천	372	4.3%	0
광주	289	3.4%	0
대전	350	4.0%	0
울산	219	2.5%	0
경기	1,123	13.1%	3
강원	235	2.7%	0
충북	292	3.4%	0
충남	347	4.0%	0
전북	306	3.6%	0
전남	244	2.9%	0
경북	448	5.2%	0
경남	521	6.0%	2
제주	152	1.8%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3,133	831
서울	615	600
부산	333	22
대구	464	11
인천	298	3
광주	94	16
대전	150	16
울산	70	3
경기	466	21
강원	25	3
충북	103	26
충남	76	24
전북	166	5
전남	107	25
경북	58	4
경남	20	10
제주	2	6
기타	86	36
비고	회원 : 2,841/비회원 : 292	대학 : 743/대학원 : 88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042	2,570	8,612	
비율	70.15%	29.84%	100%	
사무소수	5,934	2,041	7,975	
비율	74.40%	25.59%	100%	